

경기다문화뉴스

The Gyeonggi Multicultural Family News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경기수원

이주여성·다문화가족을 위한 긴급지원·상담 및 생활정보 제공
13개 언어로 서비스 됩니다.

☎ 031-257-1841

제177호 2020년 07월 16일 (격주간) 발행인 겸 편집인 송하성 등록번호 경기 다 50340 전화 031-8001-0211, 328-0211 수원사무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3층(영화동) 인쇄인 장용호 부천사무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 2차 209호 danews1@daum.net 후원계좌 110-408-662725 신한은행 <2세>



고려인 동포와 함께한

'코로나19 확산 방지'

캠페인

▲국내 거주 고려인 자원단체 사단법인 너라는 지난 7월 3일 대한고려인협회와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와 함께 안산 팻골마을 일원(선부2동)에서 '고려인 동포와 함께 하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고려인 동포와 외국인 주민들에게 예방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보 전달과 생활 습관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관련기사 15면> 송하성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위원장 '박창순', 경제노동위원장 '이은주'

경기도의회가 7월 7일부터 17일까지 11일간 제345회 임시회를 열고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안건 심의 등을 진행했다. 경기도의회 의장에는 3선의 장현국 의원(수원7), 부의장에는 문경희(남양주2), 진용복(용인3) 의원이 선출됐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위원장 '박창순'

경기도의 다문화가족 관련한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도 13일 박창순 경기도의원(민주, 성남2)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박창순 위원장은 단국대 행정학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6대 성남시의원을 지낸 재선 경기도의원이다.

박창순 위원장은 14일 열린 후반기 첫 상임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의원님들과 함께 하게 돼 기쁘다"며 "여성과 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담당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위원장으로는 김성수(민주, 안양1) 의원과 김용성(민주, 비례) 의원이 같은 날 선출됐다.

상임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박창

순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 ▲김용성 부위원장 ▲김미리(남양주1) ▲신정현(고양3) ▲유영호(용인6) ▲이진연(부천7) ▲장태환(의왕2) ▲조성환(파주1) ▲송치용(정의, 비례)

경제노동위원회 위원장 이은주

경기도의 외국인근로자와 유학생 등이주민 관련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경제노동위원회도 13일 이은주 경기도의원(민주, 화성6)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은주 위원장은 10대 의회 전반기 예결특위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중앙당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은주 위원장은 "경기도정이 도민

중심으로 바로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1,370만 도민과 의원님들을 섬기고 소통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도 최선의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부위원장으로는 김인순(민주, 화성1) 의원과 김장일(민주, 비례) 의원이 선출됐다.

상임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은주 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 ▲김미숙(군포3) ▲김영혜(평택3) ▲김현삼(안산7) ▲남운선(고양1) ▲박관열(광주2) ▲심민자(김포1) ▲안혜영(수원11) ▲이동현(시흥4) ▲이원웅(포천2) ▲최세명(성남8) ▲허원(통합, 비례)

송하성 기자



지자체별
지면 안내

헤드라인 1 경기도 2 고양 3~7 안산 8~15 시흥 16~21 부천 22~27 오산 28~29 파주 30~32 군포 33~35 광명 35~37 김포 38~40 과천 41 안양 42~43 화성 44~48



언어별
지면 안내

중국어(Chinese) 中文 6, 22, 29, 32, 40, 43 베트남어(Vietnamese) Tiếng Việt 17, 29, 33, 35, 39, 42, 45 일본어(Japanese) 日本語 9, 19 영어(English) 14 네팔어(Nepali) नेपाल 31 인도네시아어(Indonesian) 26 태국어(Thai) ภาษาไทย 41 몽골어(Mongolian) Монгол хэл 26 러시아어(Russian) Русский 13, 24



섹션별
지면 안내

정책 Policy 1, 2, 7, 10 부동산 기획 Real State 7, 9, 19, 22, 25, 34, 35, 39, 40, 41, 42, 43 생활정보 Information 6, 13, 29, 31 육아 Child Care 46 인권 Human Rights 20, 24, 32, 33 코로나19 Corona19 5, 11, 29 인터뷰 Interview 12 경제 Economy 26 기고 Column 17, 43, 45 도서관 Library 19 보건 Health 3, 4, 11, 14 취업 Job 16, 23, 34, 42, 47 비자 Visa 27, 45



경기도의회는 13일 제3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10대 후반기를 이끌어갈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날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지난 7일 유일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정된 의원들이 큰 이변 없이 확정됐다.

이번 상임위원장은 초선 7명, 재선 4

명, 3선 1명으로 초선의원들의 전문성, 경력, 의정활동 등을 감안해 전진 배치한 것이 특징이다.

이날 의원들의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된 상임위원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박창순(성남2, 재선, 작은 사진 왼쪽), 경제노동위원장 이은주(화성6, 재선, 작은 사진 오른쪽), 의회운영위원장 정승현(안산4, 초선), 기획재정위원장 심규순(안양4, 초선), 안전행정위원장 김관수(군포4, 초선),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최만식(성남1, 초선), 농정해양위원장 김인영(이천2, 초선), 보건복지위원장 방재욱(고양2, 초선), 건설교통위원장 김명원(부천6, 초선), 도시환경위원장 장동일(안산3,

3선), 교육기획위원장 정윤경(군포1, 재선), 교육행정위원장 남종섭(용인4, 재선) 의원 등이다.

이로써 경기도의회는 지난 7일 3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데 이어 12명의 상임위원장을 선출해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근철 대표의원은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12분의 상임위원장님들과 함께 도민의 민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하는 경기도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상임위원장들의 정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장현국 의장은 “제10대 경기도의회 후



반기 의정활동 목표는 도민의 행복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해 먼저 ‘참여 존중 의회’를 만들겠다”며 “도민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정책 공약에 담겨있는 만큼 도민과 약속했던 4,914건의 공약이 하나라도 더 실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다양한 가족의 삶에 큰 영향 미치는 상임위원회’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박창순 위원장 주재 첫 회의 열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제345회 임시회 2차 본회의(7.13, 화)에서 제10대 후반기 위원장으로 선출된 박창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주재 첫 회의를 14일(화)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제10대 후반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과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을 선임하고, 소관부서인 평생교육국에 대한 주요 업무를 보고받는 등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박창순 위원장(더민주, 성

남2)은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힘든 싸움을 벌이는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하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도민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도민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합심하여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성수 의원(더민주, 안양1)은 “위원장님과 여러 동료 위원들을 잘 보필해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가 모범적인 상임위, 성과를 내는 상임위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으며, 김용성 의원(더민주, 비례)은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고, 소속 위원들의 전문성을 살려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날 실시된 후반기

첫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소관 부서인 평생교육국과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에서 추진된 코로나19 주요 대응조치 등 202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살펴보고, 당면 현안에 대한 질의와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집행부와 모색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비대면 학습 흐름을 반영한 새로운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을 당부하였으며, 내년도(21년) 예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국간 또는 부서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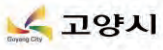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5일 여성가족국 업무보고와 16일 산하 기관 현장방문을 끝으로 제345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송하성 기자

박옥분 도의원, 경기도 성평등 기반 마련 앞장, 전반기 마무리

경기도의회 박옥분(수원2, 더민주) 의원은 13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민선 7기 성평등정책 중간 평가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하여 경기도 성평등정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여성의원로서의 성평등정책에 대한 견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여성네트워크에서 주최하여 경기여성단체연합에서 주관하였으며, 박옥분(수원2, 더민주) 의원은 주제 발제자로 참석하여 경기도 민선7기의 성평등 정책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과 관련 정책, 앞으로의 발전방향 등 여성의원으로서 추구하는 성평등 정책에 대해 제안했다.

박옥분 의원은 “정책이 정책으로 머물러있는 것이 아닌 정책이 사업과 예산으로 이어져 실효성있는 성평등 구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하성 기자



엄마나라 언어, 이젠 쉽게 가르치고 배워요
고양다가, 크레몽이 개발한 베트남 이중언어교재 받아

예비사회적기업 (주)크레몽(대표 오은강)과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김민수)가 지난 7월 2일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유진, 고양다가)를 방문하고, 베트남 이중언어교재 총 30세트를 전달했다.

이 교재는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베트남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의 이중언어교육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이날 전달된 이중언어 교재는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와 고양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예비사회적기업 (주)크레몽에서 교육 콘텐츠를 기획, 개발하여 마련된 교재이다.

이 교재는 'step1, step2 속속러닝 이중언어 시리즈'로 1단계는 카드게임과 워크북, 스티커로 구성되어 있고, 2단계는 국내의 유명 동화작가들이 직접 쓴 동화를 활용한 색칠공부, 워크북과 스토리북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1,2단계의 단어와 문장을 활용한 보드게임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주)크레몽 오은강 대표는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처음 방문했을 때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이중언어교육의 현실과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교재개발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그 결

과 베트남 이중언어교재 <속속러닝 1, 2단계>가 제작되었고, 센터에서 교재 전달식을 진행하게 되어 뜻깊다”고 전했다.

오 대표는 또 “속속러닝 시리즈가 모두 개발 완료되면 가정에서도 쉽고 재미있게 부모 나라의 언어를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이 될 것”이라며 “이 교재가 전국의 베트남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들의 이중언어 습득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임유진 센터장은 “다문화가정 자녀가 글로벌리더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중언어 교육은 매우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제 크레몽의 다양한 교구와 교재들을 활용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중언어를 통해 자녀와 부모가 정서적으로 풍부한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크레몽은 앞으로 베트남어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이중언어 교재도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 이중언어교재에 대한 문의사항은 예비사회적기업 (주)크레몽으로 하면 된다. 031-994-1396

이지은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베트남 입국자, 디프테리아 감시 강화”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는 베트남에서 입국한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디프테리아 감시를 강화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소에서는 베트남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가 발열(37.5℃이상) 또는 인후통 등의 증상 발현 시, 디프테리아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베트남 현지에서 디프테리아가 유행하면서 지난 6월 1일 ~ 7월 7일까지 환자가 총 63명, 사망자 3명이 발생함에 따라 국내 유입을 우려해 내린 조치다.

디프테리아는 1급 법정감염병으로 디프테리아균 감염에 의해 발생하는 급성 호흡기 감염병이다. 치사율은 10%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고, 주로 호흡기나 피부로 배출되는 균과의 접촉에 의해 전염된다.

보통 감염 후 2~4주간 균 배출이 계속되며, 만성 보균자의 경우 6개월간 균이 배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감염 환자가 발생하면 반드시 격리해 다른 사람과 직접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디프테리아는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므로 일정에 맞춰서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 필수 접종으로 접종 시기는 생후 2개월부터 2개월 간격으로 DTaP백신(디프테리아/파상균/백일해 백신)을 3회 기초접종하고 생후 15~18개월, 만 4~6세에 추가접종하며, 만 11~12세에 Tdap 혹은 Td 백신으로 추가 접종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베트남에서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를 강화해 국내 디프테리아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12세 이하 어린이와 베트남 출국 예정자는 디프테리아 예방접종을 꼭 받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일산동구보건소는 지역 내 사용되지 않는 재활 보조기기를 기증받아 저소득 주민과 희망자에게 대여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기기 나눔센터’를 활발히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보조기기관 각종 사고 및 질환으로 활동에 제약이 생긴 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도구로서 대표적으로 휠체어, 노인용 실버카, 목발, 지팡이 등이 해당된다.

‘보조기기 나눔센터’ 사업은 보조기기가 질병 완화 및 완치 등의 사유로 가정 내에 방치되거나 상태가 좋음에도 폐기되는 사례가 많은 점에 주목해 일시적 장애 및 수술 등으로 보조기기 단기 사용 시 야기되는 경제적 부담과 사용 후 방치되는 자원낭비를 개선하고자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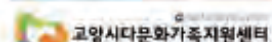
보건소는 민간의료기관 및 동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쳐 일산하이병원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기증을 받아 ▲환자용 수동침대 5대 ▲기립훈련기 ▲침대형 휠체어 ▲지팡이 ▲목발 등을 확보해 희망자에게 대여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7월 프로그램 안내

프로그램명	시작일	장소	내용	대상	담당자
취업교육지원-온라인학교	7월 중	센터 별관 교육실	온라인취업 학과시험 대비 문제풀이, 고용안전수칙 등	결혼이주인 15명	오은주
자조모임-도서관활동가 '글로벌가디언스'	7월 7일(화)	센터 및 외부장소	정보공유, 정서적 유대감형성, 잠재능력 개발, 전문가로서 역량강화 등	결혼이주여성 7명 이상	정수정
자조모임-베우자 '준남들 의 토크'	7월 18일 토요일	성적증 방어패비주 말동장	농작물 가꾸기 및 요리체험, 진고	결혼이주인 베우자 및 가족	박기숙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 생활 요리교실	7월 24일 금요일	대한적십자봉사회 고 양지구협의회	한국 생활요리 방법 익히기	결혼이주인 45명	서은주
자조모임 '다문화이해교육' 행사 '씨일레'	7월 28일 화요일	센터 교육실	2020년 사업안내 및 정보공유	이해교육 강사 30명	정수정
자조모임-다사랑 난타클럽	7월 중 예정	IN난타 연습실	난타교육 및 공연, 친목도모	강사 및 참여자 10명	김두주연
자녀건강지도-인라인스케이트	7월 중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종산역 타이거아카데미 인라인 하키장	인라인 기본 동작 배우기, 인라인 하키 경험을 통한 건강증진	다문화자녀 10명	정수영
자녀건강지도-무지개 리틀야구단	7월 중 둘째, 넷째 주 토요일	고양 국가대표 야구 훈련장	야구훈련, 프로야구 관람	다문화자녀 22명	정수영

문의 031-938-9801



고양 다문화가족 장보기 후원해요

한국마사회, 고양다가에 500만원 전달



한국마사회 일산지사(지사장 김호균)가 지난 8일 오전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유진)에 기부금 5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기부금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의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에 사용될 예정이다.

해마다 추석 명절에 진행되는 ‘결혼이주여성 전통시장 문화체험’ 행사는 다문화가족들이 원활한 한국 생활 정착을 지원하고, 친밀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센터가 한국사회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결혼이주여성을 선정하고 후원금으로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이날 기부금 전달식에서 김호균 지사장은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공기업으로써 수익금을 활용해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행사를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외계층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유진 센터장도 “전통시장은 한국의 맛과 멋이 숨 쉬는 활력이 넘치는 공간으로 많은 사람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곳이며 명절에도 코로나19로 고향에 다녀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향수를 달랠 수 있는 곳”이라며, “이번 체험을 제공해주는 한국마사회 일산지사에 다문화가족을 대신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이주민 자녀 돌봄과 교육 제대로!

김해련 고양시의원, 한국이주인권상 수상



김해련 고양시의원이 ‘2020 제3회 한국이주인권상 시상식’에서 지역정책 부문 본상을 수상했다.

한국이주인권상선정위원회(위원장 이정호)는 지난 6월 29일 오후 경기도의회 4층에서 ‘2020 제3회 한국이주인권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경기다문화뉴스가 주관하는 한국이주인권상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바람직한 다문화사회의 기준을 제시하며 외국인주민의 복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해 온 시민사회 인사 및 이주민 당사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5개 분야에서

10명이 상을 받았다.

김해련 의원은 평소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족과 이주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심을 바탕으로 고양시의회에서 이를 정책으로 실현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김해련 의원은 소상소감에서 “지역구가 공항이 가깝다보니 난민, 이주민, 다문화가족 등이 많이 거주한다”며 “이주민들이 많아진 만큼 이주배경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제대로 돌보는 것이 중요해졌다. 이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노력, 쉬지 않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국가 암검진’ 받고 건강챙기세요

건강보험 가입한 외국인주민도 받아요

고양시(시장 이재준) 일산동구보건소는 저소득층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암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암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국가 암검진을 통해 진단 받은 6대 암종(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다.

6대 암 진단을 받은 경우 2020년 1월 1일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00,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97,000원 이하 기준에 해당될 경우 1년에 20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3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소아암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기준에 따라 전체 암 종에 대해 연간 2,000만원 한도(백혈병은 3,000만원) 내에서 만 18세까지 지원되며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연말에는 수검자가 몰려 대기시간이 길기 때문에 10월 이전에 꼭 암 검진을 받고 의료비 지원 혜택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암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증진팀(☎031-8075-4132)로 문의하면 된다.

이지은 기자



질병관리본부 KCDC

대응지침 제9판 부록5 '일반국민 10대 수칙'

코로나19 예방 행동수칙 10가지

“코로나19와의 장기전, 흔들림 없이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 01**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2m(최소 1m)) 거리 유지하기
- 02** 두 팔 간격 거리가 어려우면 **마스크 착용하기**
2세 미만의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경우의 사람은 마스크 착용을 권하지 않습니다.
- 03** 환기가 안 되고 많은 사람이 가까이 모이는 장소는 **방문 자제하기**
- 04**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 05**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 06**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 07** 매일 주기적으로 환기하고 자주 만지는 표면은 **청소, 소독하기**
- 08**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 09** 매일 본인의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확인하기**
주요 증상으로는 발열(37.5℃),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등 그 외에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 증상 등이 다양
- 10** 필요하지 않는 **여행 자제하기**

2020.07. 01.

韩国各大便利店将从明日开始销售口罩, 每张600韩元, 人均购买不受限制

7월부터 편의점에서 마스크 개당 600원씩 판매, 1인당 무제한으로 구매 가능



从疫情的最初口罩的刚需缺口巨大一罩难求，到之后的限购，进而“五部制”，政府和防疫部门全力以赴的对抗此次疫情，并真心为整体全部本土的不仅本国人包括外国人在内居民做出最大的保护使得韩国从全球第二大疫情国平稳过渡到现在人们的生活基本正常运行！不得不对所有辛苦付出的防疫医护和相关人员真心道一声谢谢！这次防飞沫口罩虽是一次性口罩但是基本具备KF80的条件更透气在炎炎夏日使用起来更舒适。也请大家做好防护！

韩国各大便利店将从明日开始销售防飞沫口罩。

CU在30日表示,从7月1日开始,全国1万4千个店铺将开始销售防飞沫口罩。该种口

罩使用了三重MB过滤器结构,并且获得了韩国食品医药品安全处的认证。据悉,每套口罩为5枚,每张价格为600韩元,并且没有购买数量限制。CU计划每周平均订购3次,每周销售约50万张防飞沫口罩。

另外,7-eleven也将从7月1日开始在全韩所有店铺销售防飞沫口罩,预计每天将销售5万张口罩。7-eleven所销售的口罩也是获得食药处批准的口罩,每张售价为600韩元。同样,人均购买不受限制。7-eleven表示,面膜套装将采用拉链袋形式,便于保管剩余数量,而且可以卫生使用。7-Eleven还计划在下个月3日左右追加推出其他制造商的防飞沫口罩和2种小型口罩。

易买得24也将从同一天开始依次在全国卖场销售防飞沫口罩。易买得24仅在7月的第一周就计划发放两个制造公司生产的共100万张口罩。口罩根据制造商的不同,采用5个装和2个装销售,每张售价分别为600元和975元。另外,易买得24将于7月对2种口罩进行“1+1”活动。每周供应200万张,每个300韩元就可以购买。

在本月25日率先销售口罩的GS25,预计从7月2日起,将销售口罩的门店扩展至1.5万家,届时,GS25,GS the fresh,lalavla等GS零售店都将可以购买到口罩。GS25预计每周销售100万张口罩以上,每张价格为500~900韩元

本帖出自奋韩资讯!

코로나 발병 초기, 마스크 공급량 불충분으로 1개도 구매하기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엔 판매제한 및 마스크 5부제 실시로 인해 마스크 구매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물론 정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전력투구하여 전염병 확산에 맞서 싸웠습니다.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모두 포함하여 같이 보호해 주었기에 한국은 전 세계 제2의 발병국에서 전염병 유행을 잘 막은 나라가 되었고 사람들의 일상은 거의 정상화가 되었습니다. 고생을 무릅쓰고 전염병 예방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온 의료진 및 관련 종사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

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비말 방지 마스크는 일회용 마스크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KF80의 방어조건을 구비하고 있고 무더운 여름날씨에 환기성이 좋아 사용하기가 더 편리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드디어 7월 1일부터 전국 1만4000개 편의점에서 비말방지마스크 판매를 시작합니다. 이 마스크는 3중 MB필터 구조를 사용해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마스크 한 세트당 5장, 장당 가격은 600원이며 구입 수 제한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편의점 CU는 매주 평균 3회 주문해 약 50만장의 비말 방지마스크를 판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편의점 세븐일레븐도 7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점포에서 비말 방지 마스크를 판매하며 하루 5만 장의 마스크가 판매될 예정입니다. 세븐일레븐에서 판매되는 마스크도 한 장에 600원 씩 판매됩니다. <중략> 조양 경기외국인SNS기자단

国籍业务访问预约施行告示

1. 施行摘要

为了缓解申请人等待时间过长带来的不便和科罗纳疫情的防疫 从 2020/7/15日起施行 国籍申请业务事前访问预约制

- 办理业务前 提前线上预约好时间段后再去办理
- 事前没有预约的 直接访问时有可能无法办理业务!

2. 适应预约访问的对象

(施行机构) 全国18处 处理国籍业务的出入境和外国人管理所
-首尔南部, 釜山, 仁川, 水源, 济州岛, 大邱, 大田, 丽水, 杨州, 蔚山, 光州, 昌源, 春川, 青州, 全州, 东海, 束草

(业务范畴)

- 许可业务: 国籍归化, 国籍恢复, 国籍判定
- 申报业务: 注销国籍, 国籍选择, 保留国籍, 因认知取得国籍的申报, 再入籍申请

—签发证明: 放弃国籍证明书, 外籍不履行誓约确认书

单纯商谈, 国籍取得丧失证明等其他证明书签发业务 没有预约情况下直接访问也可! 但是 10分钟以上深层的商谈咨询 建议事先预约

3. 预约申请方法

—登陆 www.hikorea.go.kr 网站 点击 右侧的访问预约 画框 预约后带着预约证 前去办理 (线上预约 7/1开始可以预约)

—katalk 也可点击 “国籍综合情报” 链接

4. 施行日期: 2020. 7. 15 (星期三)

如仍有疑问也可电话咨询: 1345 出入境

PS: 鉴于小编的韩语水平 如有不精准地方请指正!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 업무 방문예약 시행 알림

1. 시행 개요

민원인의 장시간 대기 불편 해소 및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 7. 15.부터 국적업무 사전 방문 예약제 시행을 알려드립니다.

-국적업무 하기 전 미리 온라인으로 방문일자 및 시간대를 예약하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한다. / 사전에 방문예약을 하지 않고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면 업무처리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2. 사전 방문 예약 대상

(대상 사무소) 전국 18개 국적업무 시행 출입국·외국인관서

- 서울, 남부, 부산, 인천,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광주, 창원, 춘천, 청주, 전주, 동해, 속초

(대상 업무) 허가업무 : 귀화, 국적회복, 국적판정

- 신고업무 : 국적상실신고, 국적선택신고, 국적보유신고, 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 신고, 국적 재취득 신고

- 증명발급 : 국적포기 확인서 발급, 외국국적불이행 서약 확인서 발급

※ 단순 상담, 국적취득사실 증명 등 기타 증명서 발급 업무는 예약없이 방문이 가능합니다. 다만, 10분이상 소요되는 심층 상담의 경우 예약 후 방문하 시기를 권장합니다.

3. 사전 방문예약 방법

- 인터넷 사이트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우측상단에 있는 방문예약 버튼을 누르고 예약 후 예약 확인증을 소지하고 방문하기 바랍니다.(온라인 예약은 7월1일 부터 실시합니다.)

※ 카카오프러스친구 ‘국적종합정보’에서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면 하이코리아 방문예약으로 바로 연결이 됩니다. 4. 시행날짜 : 2020.7.15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문의전화 : 1345 출입국 외국인 종합안내 콜센터

다문화 사회, 경기도 정책도 문화다양성 효과적으로!

김달수 도의원, 조례 개정안 발의... 경기도문화소통센터 설치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후반기) 김달수(민·고양10) 의원은 7~17일 열리는 제345회 임시회 심의 안건으로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 제출했다.

개정안은 경기도에 ‘문화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해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실행계획을 평가하고,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을 위한 지원을 논의토록 하고 있다. 또 경기도가 문화다양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경기도문화소통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로 정해 1주간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경기도내 문화다양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으며 문화다

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및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실효성을 높였다.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역협력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예시 사업으로는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독도탐방 등이 제시됐다.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장기 거주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독도탐방(150명), 역사특강(4회/400명), 문화다양성 교육 체험(4회/400명), 아카이빙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김달수 의원의 발의는 국내 거주 다문화가족과 이주민이 200만명을 훨씬 넘어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어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러한 조례 개정에 대해 일부 기독교단체들이 동성애와 이슬람을 옹호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난달 30일 마감된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결사반대한다’는 부정적 의견들이 다수 접수되는 등 반발 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내용적으로 동성애나 이슬람을 옹호하는 취지가 절대 아니다”라며 “세계화와 다문화에 접어든 사회 변화에 맞춰 문화다양성에 관한 경기도의 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송하성 기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무료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받아요

고양시(시장 이재준)에서는 10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수수료 없이 발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에 도입되는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수수료 무료화’는 ‘고양시 체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을 통해 광명시, 의왕시, 오산시에 이어 경기도 지자체 중 4번째로 시행하는 것이다. 기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건당 발급 수수료 200원이 들었지만 10일부터는 전액 면제된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 총 90종 가운데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 건수가 가장 많아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시민들이 시간적·경제적 혜택을 많이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양시 관내에는 행정복지센터, 지하철역, 병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무인민원발급기 43대가 고루 설치돼 있어 바쁜 직장인과 급하게 민원서류가 필요한 시민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향후 지속적인 이용 실태 점검을 통해 적재적소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배치 운영함으로써 민원 편의와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는 기자

[기획1] 한국의 부동산 광풍, 다문화가족은 어떻게?

아파트 사랑 유별난 한국의 부동산 시장, 다문화가족 청약제도 이해하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아주 특이하다. 여러 가지 주거 형태 중 아파트의 인기만 너무 높다.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주택 등은 인기가 높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진다. 반면 아파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계속 오른다.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이 매우 가파르게 올랐다. 미처 아파트를 사지 못한 사람들이 정부에 불만을 얘기하는 것도 좋은 위치에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1년 사이에 1~2억원 이상을 벌었기 때문이다. 회사를 다니며 아주 열심히 일을 해도 1년에 5천만원을 벌기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가졌다는 이유로 가만히 앉아서 1억원을 벌었다고 하니 화가 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많은 내국인들이 아파트 청약에 매달린다. 경기다문화뉴스는 이번 호에 한국의 아파트 청약제도와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한국의 주택청약제도

아파트가 인기가 많다보니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정부가 주택청약제도를 만들었다. 주택청약제도는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이 미리 은행에 가서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분양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그냥 아파트를 사도 되는데 사람들이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이유는 새 아파트를 보다 싼 값에 사기 위해서이다. 현재 주택청약상품은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2가지가 있다. 월 2~50만원까지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매월

납입해야 한다. 이자를 조금 더 주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만 19세 이상~34세 이하인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청약통장에 가입한 뒤에는 정해진 납입금을 연체하지 않고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액은 중요하지 않다. 2만원씩 12개월을 내면 보통 1순위가 된다. 청약을 할 때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수 등에 따라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청약통장으로 일반청약하기

청약통장 가입자는 2019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에 약 2,550만명이 있다. 경기 지역에 676만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에 662만명이 있다. 전국 인구의 약 49.4%가 청약통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아파트에 당첨되기 위한 내국인들의 의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청약통장에 가입해 있으므로 실제 아파트 청약에 들어가면 인기 지역은 100대 1 이상의 경쟁률이 기본이다. 이 많은 사람들을 점수로 계산해야 하므로 실제 청약 가산점을 주는 방식은 매우 복잡하다. 관심 있는 다문화가족들은 청약 공고 등을 잘 살펴야 한다. 아파트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는 서울 지역의 주요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최소 60점 이상의 가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공급 이용하기

이쯤 되면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많은 준비가 필요한 청약제도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어렵겠다

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특별공급’이라는 제도를 만들었다.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경우에 청약할 수 있다. 세대 구성원 전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3인 가구 540만 1814원, 4인 가구 616만 5202원)인 경우에 청약할 수 있다.(맞벌이 경우 120%이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있고 소득기준(전용면적 84.9제곱미터 이하인 국민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 민영주택은 미적용)을 충족하면 청약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 특별공급’도 있다. 다문화가족 구성원으로서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사람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보통 2세대만 모집한다. 한부모 가정 특별공급도 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 다문화가족 특별공급도 6개월 이상 납입한 청약통장이 있어야 한다. 만약 특별공급에 당첨됐다고 해도 아파트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것은 아니다. 일반청약으로 당첨된 사람이나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사람이나 아파트 가격은 똑같이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의 아파트 가격 폭등을 생각하면 어떻게 해서든 당첨이 되면 가격이 오르니 모든 사람이 뛰어드는 것이다. (중국어 40면, 베트남어 35면, 일본어 9면, 태국어 41면) 송하성 기자

안산시, 생활안정지원금 외국인주민 모두 지급 위해 적극행정 펼쳐

전국 최초 차별 없이 외국인주민에 지급...누락 없도록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 모두에게 차별 없이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률 100% 달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치고 있다.

안산시는 국내 최대 다문화도시답게 외국인 주민에게도 7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등의 외국인 주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유도한 촉매제 역할을 했다.

16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 14일까지 지급 대상 외국

인 주민 6만9천541명의 87.6%인 6만912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됐다.

안산시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신청 기간이 이달 말까지인 것을 감안해 함께 사는 이웃이자 주민세·소득세 등을 납부하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 주민 모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먼저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외국인 주민에게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5개 언어로 제작된 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하는 한편, 외국인 유학생 및 관련 종사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관내 4개 대학교에 안내 협조문을 보내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 등 외국인 주민 밀집지역 곳곳에 안내현수막을 설치했으며, 인천 출입국·외국인청 안산출장소와 협력해 외국인 체류지 거주여부 등을 확인해 대상자 발굴도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25개 동행정복지센터는 미신청 외국인 주민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외국인

관련 커뮤니티 등과의 간담회를 통해 신청 안내 및 접수를 독려하고 ‘찾아가는 방문서비스’도 함께 연계할 예정이다.

안산시는 이밖에도 중국어와 영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등 모두 11개 언어로 작성된 신청서를 마련해 냈으며, 주소 대신 외국인 등록번호로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외국인 주민들의 신청 편의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접수 마감일까지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에게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을 한분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글로벌 ‘상호문화도시’의 위상을 높임과 동시에 우리시 경제의 한축인 외국인 보호에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7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외국인 주민의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은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한 외국인 주민에게는 지역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해 안산화폐 ‘다운’으로 7만원이 지급된다. 김영의 기자

미등록 이주아동 기본권 보장 노력 눈부서

김현삼 경기도의원, 제3회 한국이주인권상 수상 주목



경기도의회 김현삼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지난 6월 29일 경기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2020 제3회 한국이주인권상 시상식’에서 지방정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경기다문화뉴스가 주관하고, 한국이주인권상선정위원회가 선정하는 한국이주인권상은 한국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새롭게 하고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의 기준을 제시하는 등 다문화 정책을 선도하고 정책발전에 기여한 정계, 학계, 시민사회 인사 등을 선정해 시

상하고 있다.

이번 시상식은 공모를 거쳐 5명의 심사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지방정책 부문 등 6개 분야에서 10명을 선정했다. 김현삼 의원은 국회 및 법무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등에게 미등록 이주아동이 대한민국에서 기본인권을 보장받으며, 행복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출생신고 방안을 법제화하고 종합적인 지원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이주아동 지원을 위한 법제화 방안마련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그동안 다문화 정책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시상식 지방정책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현삼 의원은 수상소감을 통해 “이제는 외국인 등 다문화가족을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고 우리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이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이해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마을특구 내 ‘로고젝터’ 환경개선, 범죄예방 효과 특출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원곡동 다문화마을특구의 환경을 개선하고 쓰레기투기 예방 등을 위해 이달부터 외국인주민지원본부와 다문화거리 진, 출입로 등 5개소에 로고젝터를 운영하고 있다.

로고젝터는 이미지와 문구를 전주나 가로등에 설치해 바닥 등에 표출하는 LED 조명 장치로 가로등(보안등)이 점등되는 시간 동안 작동하므로 야간에 통행하는 주민에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안산시는 로고젝터를 활용, 깨끗한 특구를 만들자는 문구를 시민들과 외국인 주민에게 알려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로고젝터의 문구는 ▲어두운 밤길 비취줄게요. 안전안산 ▲깨끗한 다문화마을특구 함께 만들어요 ▲우리 먼저 인사해요! 작은 지구촌 안산시 ▲여긴! 살맛 나는 다문화마을특구 등 모두 4종이다. 특히 외국인이 많이 통행하는 다문화마을특구 특성상 한국어뿐 아니라 중국어도 함께 병기되며, 향후 영어, 러시아어 등도 추가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1666-1234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1644-7111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99-1700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031-599-1770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031-364-570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글로벌미션센터 070-8600-8040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031-413-3106 원곡보건지소(외국인 진료) 031-481-360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031-481-266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다문화가족도 코로나19로 어렵지만, 함께 도우며 이겨내요"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내 후원 및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활동 논의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문숙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이 흔들리며 다문화가족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문화가족 서포터즈를 통한 지원 활동 등을 논의하는 등 다문화가족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도 다문화가족을 위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는 등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월례회의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7월 10일 다문화가족 서포터즈 월례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오전, 오후 나뉘어 진행됐으며 총 18명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신규 서포터즈와 기존 서포터즈 소개, 활동일지 작성법 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서포터즈들의 활동의견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서포터즈 대상으로 연 5회기 교육을 진행하는데, 환경교육, 목공수업, 법률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

왔다. 또한, 서포터즈 국가별 리더를 뽑아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시간도 되었다.

센터 관계자는 “가장 많은 베트남 서포터즈의 경우 담당자가 일일이 전화 연락을 하기보다는 리더에게 전달하여 다른 서포터즈들에게 안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도 나왔다”라며 “센터에서는 서포터즈의 안전한 활동을 위하여 마스크를 배부하였으면, 8월부터 서포터즈 대상 교육 진행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영원무역 의류 후원 및 나눔 진행

(주)영원무역(대표이사 성기학)은 지난 7월 10일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아웃도어 256벌을 후원 물품으로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아웃도어는 2벌씩 안산 저소득 다문화가족 128명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배분 예정이다.

문숙현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해 의류를 후원해주신 영원무역에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김영의 기자

[企画1] 韓國の不動産狂風、多文化家族はどうすれば?

アパート人気の高い韓國不動産マーケット、請約制度とは

韓國の不動産マーケットはたいへん特異だ。いくつかの住居形態のうち、アパートの人気がたいへん高い。單獨住宅、ビラ、多世帯住宅などは人気が高くなく、時間が経つにつれ価格が下がる。反面アパートは時間がたつほど価格があがっていく。最近アパート価格が急激に上がった。アパートを購入できない人たちが政府に不満を訴えるのは、人気の位置にアパートを所有する人は、1年の間に1~2億ウォン以上を手にしたからだ。仕事を一生懸命しても1年に5千万ウォンを稼ぐことすら難しいのに、アパートを所有しているだけで何もせずに1億ウォンを手にいれたのだから、腹も立つはずだ。そのため韓國人の多くはアパート請約に血眼になる。今号で京畿多文化ニュースは、韓國のアパート請約制度と政府の住居福祉政策をご紹介します。

韓國の住宅請約制度

アパートの人気がとても高いので、アパートを購入しようとする人も多い。そこで政府は住宅請約制度をつくった。住宅請約制度は家を購入したい人が、前もって銀行で請約通帳に加入し一定の要件を満たせば、分譲アパートに請約する資格を得る制度だ。

不動産仲介業所を介してアパートを購入してもいいが、請約通帳に加入する理由は、新しいアパートをより安く購入するためだ。現在住宅請約商品は、‘住宅請約総合貯蓄’と‘青年優待型住宅請約総合貯蓄’の二種類がある。毎月2~50万ウォンまで、望む金額を毎月納入せねばならない。利子がもう少し高い‘青年優待型

住宅請約総合貯蓄’は、満19歳以上~34歳以下の者が加入可能だ。

請約通帳加入後には決まった納入金を毎月納入することが重要だ。金額は重要ではない。2万ウォンづつ、12ヶ月納入すると一般的に1順位となる。請約を行うときには、請約通帳加入期間、無住宅期間、扶養家族の数、未成年の子どもの数などによって点数を決める。

無住宅期間(1年単位で2点づつ)と扶養家族の数(ひとり当たり5点)、請約通帳加入期間(1~17点)などによって点数が変わってくる。請約加点は最低8点から最大84点となる。当然点数が高ければ新しいアパートに当選する確率が高くなる。

請約通帳で一般請約

請約通帳加入者は2019年12月基準で、全國に約2,550万人にのぼる。京畿地域に676万人で最も多く、ソウルに662万人。全人口の約49.4%が請約通帳を保有していることになる。新しいアパートに当選するために韓國人がどれだけ頑張っているかがわかる。

このようにたくさんの人たちが請約通帳に加入しているので、實際アパート請約となると、人気の地域は100対1以上の競争率が基本だ。点数で計算することになるので、請約加算点計算はたいへん複雑となる。関心のある多文化家族は請約公告などをよく調べてみることを勧める。アパート価格が最も上がるソウル地域の主要アパート分譲に当選するためには、最低60点以上の加点が必要となると予想される。

特別供給利用

こうなってくると多文化家族はたくさんの準備が必要となる請約制度で、アパートの分譲を受けるのは難しいと思うかもしれない。そこで政府は‘特別供給’という制度をつくった。子どもの多い世帯、新婚夫婦、障がい者、片親家庭、多文化家族など、社會的弱者がより容易くアパートに当選できるような支援だ。

‘新婚夫婦特別供給’は、結婚してから7年以内の請約だ。全世帯構成員の月平均所得が、前年度都市勤勞者世帯当たり月平均所得の100%以下(3人世帯540万1814ウォン、4人世帯616万5202ウォン)の場合に請約が可能だ。(共働きの場合120%以下)

‘子どもの多い世帯特別供給’は未成年の子どもが3人以上で、所得基準(専用面積84.9平方メートル以下の國民住宅は、前年度都市勤勞者世帯当たり月平均所得の120%以下、民營住宅は未適用)を満たせば請約可能。

‘多文化家族特別供給’もある。多文化家族構成員で配偶者と3年以上同じ住所で居住した者に資格がある。一般的に2世帯のみの募集となる。片親家庭特別供給もある。新婚夫婦と子どもの多い世帯、多文化家族特別供給も6ヶ月以上納入した請約通帳が必要だ。

もし特別供給に当選したとしても、アパートの価格が割引となるわけではない。一般請約で当選した人も特別供給で当選した人もアパートの価格は同じだ。しかし最近のアパート価格暴騰を思えば、どうやっても当選すれば価格は上がるので皆が必死になる。

<한글 기사 7면>

번역 아키오 객원기자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내외국인 갈등 해결, 사회통합의 모범되도록!'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 열고 4개 안건 해결 치열한 논의

경기도가 올해에도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 속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경기도와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오경석)는 지난 6월 29일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에서 2020 제2차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위원장 이정호 신부)를 개최했다.

다양성소통조정위원회는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 공약인 '더불어 살아가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외국인·다문화 인권 분야의 민간, 공공,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작년에 출범했다.

홍동기 경기도 외국인정책과장은 "다양성 소통 조정 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지역사회 기반의 사회문화적 갈등조정기구"라며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을 해결해 소통과 사회통합의 모범사례가 되어 달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1. 외국인 재난기본 소득 지급방식의 문제점 ▲2. 외국인쉼터 인증제 및 재난 시 공적격리 장소 확보 ▲3. 선불금 요구 등 의료기관에서의 외국인

차별 ▲4. 재외동포 배우자의 가정폭력과 체류자격 문제 등 4가지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첫 번째 안건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본인 확인 문제로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만 가능해 외국인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던 문제가 제기됐다.

두 번째 안건인 외국인 쉼터는 정부지원 없이 자부담으로 운영하는 쉼터에 대해 냉난방비, 수도세 등 계절별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지원을 요청하는 내용이였다.

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 대표는 "쉼터에 가보면 재정이 열악하기 짝이 없고 거주하기에도 불편함이 적지 않다"며 "하지만 외국인에게는 이마저도 없어서 못 들어간다. 제대로 된 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안건은 이주배경 청소년이 코로나19검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했으나 질병관리본부의 무료 검사 안내에도 불구하고 선불금을 요구하는 병원의 관행에 대해 지적했다.

네 번째 안건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재외동포 배우자의 경우 체류자격이 재외동포 남편의 비자에 종속되어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개선 논의였다.

재외동포가 가정폭력으로 처벌을 받으면 비자가 취소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가정폭력을 신고한 배우자도 함께 한국에서 추방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실제 이날 회의장에는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재외동포 배우자가 참석해 증언을 하기도 했다.

박정해 변호사는 "외국인의 배우자는 이러한 체류자격 문제로 인해 가정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며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정호 위원장은 "정부의 외국인 정책은 급작스럽게 변하는 경우가 많아 이주민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러한 정책이 예측가능하고 이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경기도내 외국인주민의 권리구제, 온라인으로 더 쉽게 도움 받는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포스트코로나 대비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 신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오경석 소장)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도내 외국인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대면 상담이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 비대면(Untact) 온라인 원격상담 방식을 도입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지난 5월

부터 접수 페이지 작성, 번역, 서버 증설 등의 작업을 추진해 이번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을 개설하게 됐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주민은 센터 홈페이지(www.gmhr.or.kr)에 접속, '진정신청(petition)'란을 클릭해 이름과 연락처 등 간단한 정보를 기입한 후 인권침해 사항을 접수하면 된다.

인권침해를 받은 도내 외국인주민 자신 또는 관련 사례를 알고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자

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에 상근 중인 전문 변호사·노무사가 직접 검토한 후,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세부상담 등 권리구제를 지원하게 된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이번 온라인 시스템 개설로 권리구제를 받길 희망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영상 실시간 상담 등 앞으로도 새로운 방식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도내 외국인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설립·운영 중인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 개발 기관이다.

특히 민선7기 들어 '누구나 차별 없는 인권 경기 구현'이라는 공약 실현 차원에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차별대우 등에 대한 권리구제 및 권익증진 지원부터 인권실태조사, 관련시책 발굴,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어 32면, 러시아어 24면, 베트남어 33면> 이지은 기자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1666-1234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1644-7111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99-1700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031-599-1770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031-364-570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글로벌미션센터 070-8600-8040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031-413-3106 원곡보건지소(외국인 진료) 031-481-360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031-481-266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단원보건소, 10월 31일까지 슬기로운 생활 온라인 캠페인

안산시(시장 윤화섭) 단원보건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자신만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법, 생활방역을 타인과 공유하는 ‘슬기로운 여가생활’ 인스타그램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안산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편의점 업체의 전년 대비 주류 매출이 20% 이상 증가하는 등 외부 약속과 회식이 줄고 가급적 사람 많은 곳을 피해 집에서 음주를 즐기는 ‘홈(Home)술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코로나19의 장기화 속에 일부 시민들은 적절한 활동을 찾지 못하고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및 음주 등 자극적인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코로나 블루라는 증상이 나타날 정도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단원보건소는 오는 10월31일까지 시민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및 음주가 아닌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방역을 실천하며 건강한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알아보고 나아가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한다.

‘그 시간에 다른걸 해보는 건 어때?’라는 주제로 인스타그램에 음주, 스마트폰 사용을 대체할 수 있는 활동사진을 찍어 ‘#슬기로운여가생활,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너는너를위해무엇을하니’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 업로드하면 된다. 이벤트 참여 시 매달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5천원권 해피포인트 상품권을 증정한다. 031-411-8455~6 이지는 기자

단원구,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즉시 단속 실시 7월 중점단속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기용)는 오는 7월 한 달간 인도위 불법주·정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등은 주정차가 금지돼 있으나, 신도시를 중심으로 주차공간 부족 및 이동편의 등을 이유로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도 위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의 불편 및 안전사고의 위험을 야기하고 있어 그동안 단원구에서는 불법주·정차 금지 현수막 게시, 불법 주·정차 금지 안내문 배포 등 꾸준한 지도 및 계도활동을 펼쳐왔다. 단원구는 인도 위 불법주·정차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등 시민의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인도 위 불법 주·정차는 절대 안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오는 7월 한 달 동안 중점 단속기간을 정하고 인도 위 불법주·정차에 대해 계고없이 바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방법은 평일 2개조, 주말 1개조를 투입해 도로변 불법주·정차 단속과 병행해 인도위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이지는 기자

2020.06.23 질병관리본부 KCDC

코로나19로부터 우리집을 깨끗하게 우리집 방역하기, 집방!

1편 소독 전 준비사항

1/5

2020.06.23 질병관리본부 KCDC

소독은 청소 후 표면에 남아있는 **감염성 병원체를 사멸**시켜 감염 노출(감염확산위험)을 더욱 감소시킵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중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첫번째 단계,

소독 전,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할까요?

2/5

2020.06.23 질병관리본부 KCDC

소독 전 준비사항 1

집 안을 소독하기 이전에 반드시 아래 **개인보호구**를 착용해 주세요.

일상 소독 시 필요한 개인보호구



방수용 장갑
(일회용 라텍스 장갑 또는 고무장갑)



보건용 마스크

소독에 사용하는 도구는 가능한 **일회용** 또는 **전용**으로 사용해 주시고 개인보호구 착용 후 소독 중에는 **피부와 눈, 호흡기가 소독제 성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단, 제작하여 재사용 가능한 청소도구는 적절한 소독제를 이용, 소독 후 건조시켜 보관)

3/5

2020.06.23 질병관리본부 KCDC

소독 전 준비사항 2

소독 전체 과정 중 **충분한 환기**가 필요하고, 소독하려는 물체 표면은 소독 전에 **깨끗이 청소**해야 소독제의 효과가 증가합니다.

일상 소독 전 지켜야 할 것



충분히 환기하기



소독할 표면 청소하기

어린이, 노약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소독제를 과량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공기 중에 소독제를 분무 분사하는 것은 소독 효과가 미흡하므로 자제해야 합니다.

4/5

2020.06.24 질병관리본부 KCDC

올바른 소독제를 선택하였다면, **안전하게 소독을 준비해야 합니다.**

생활 속 거리 두기 중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두번째 단계,

올바른 소독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2/5

2020.06.24 질병관리본부 KCDC

올바른 소독제 선택하기

환경부에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코로나19 살균·소독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분류	대표 유효성분	유효 농도	비고
염소계 화합물	차이염소산나트륨 (일명 가정용 락스)	0.05~0.5%	금속표면 손상에 주의 흡입에 의한 독성 가능
알코올	에탄올(에틸알코올) 이소프로판올	70~90%(알코올) 50%(이소프로판올)	피부 자극 및 심각한 눈 자극 유발 가능
4급 암모늄화합물계	벤질포늄염화물	0.05% 이상 함유	피부 자극 및 심각한 눈 자극 유발 가능, 흡입에 의한 독성
과산화물	과산화수소	-	피부 자극 및 심각한 눈 자극 유발 가능, 경구 및 흡입에 의한 급성 독성 가능
페놀화합물	크로록실레놀	0.12%	피부, 눈 자극 유발 가능

*소독제 목록 및 일회용 환경부 조서


3/5

2020.06.24 질병관리본부 KCD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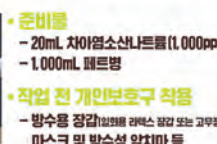
올바른 소독제 만들기

올바른 소독제를 선택했다면 안전한 방법으로 **사용 직전에 희석**해야 합니다.

0.1% 농도 차이염소산나트륨 만들기



준비물
- 20mL 차이염소산나트륨(1,000ppm)
- 1,000mL 메르병



작업 전 개인보호구 착용
- 방수용 장갑(일회용 라텍스 장갑 또는 고무장갑)
- 마스크 및 방수성 앞치마 등

만드는 방법

- 5% 원액 20mL를 페르병에 붓는다.
- 찬물 더하기
- 1,000mL로 채운 후 뚜껑을 닫아 잘 섞는다.

4/5

2020.06.24 질병관리본부 KCDC

소독 전 준비사항을 완료하고 올바른 소독제까지 만들었다면 올바른 소독 방법은 무엇일까요?

올바르게 우리집 방역하기,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

5/5

[인터뷰] 러시아 고려인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 '레오' 형진성 센터장

"고려인 자녀, 차별을 넘어 통일의 주역으로 당당히 자랄 수 있길 바랍니다"

낮선 나라에서 살아가는 일은 생각만큼 녹녹지 않았다. 열정으로 가득했던 3, 40대를 낮선 언어, 낮선 땅에 적응하기 위해 온 시간을 바쳐야 했다.

“결혼하고 바로 러시아에 선교를 위해 갔어요. 당장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라도 언어를 배워야 했고 낮선 시선을 견디며 살아내야 했죠. 좋은 분들도 만났지만, 러시아에서 보낸 25여 년은 이주민들이 한국에서 느끼는 차별과 고충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게 한 시간이 됐어요.”

러시아. 고려인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 '레오(Love each Other)' 형진성 센터장은 “러시아에서 25년을 살다가 잠시 한국에 왔는데 이곳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면서 남게 됐다”고 말했다.

러시아에서 살며 아이들도 낳고 키우며 겪은 교육 문제나 비자, 의료 등의 어려움을 한국에서 거꾸로 겪고 있는 러시아인과 고려인들의 아픔을 외면할 수 없었다. 한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러시아로 다시 돌아가려 했던 계획은 러시아. 고려인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로 삶의 방향을 바꾸었다.

#한국 내 러시아 이주민 만나며 삶의 방향 전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은 그에게 낯설지 않다. 러시아 정착 초반인 1995년부터 7년여간 한국외국어대학의 야쿠츠크 사하한국학교와 16번 학교에서 협력교사로 7년을 일했다. 러시아 학생을 대상으로 수업했던 경험은 방과후학교 '레오'에서 만나는 학생들과도 도움이 됐다.

“러시아 고려인 등은 가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안전하고 공원이 있고, 교육환경도 좋은 곳을 찾아 원곡동

땃골에서 사동 쪽으로 많이 옮겨오고 있어요. 우리 센터에도 현재 30여 명이 와요. 러시아 고려인과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고려인과 현지인들이 찾죠.”

한국에 온 것은 2015년이니 어느새 5년여가 다 돼간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안산 다문화센터장으로 일하다 2019년 7월 사동 쪽에 문을 열고 부부가 함께 레오를 운영하고 있다.

“경제적인 부담도 크지만, 러시아에서 생활할 때 도와주시던 현지인들의 고마움도 자주 떠올라요. 아이를 낳고 힘들 때 붕어, 잉어 등 고아서 가져다주시기도 했죠. 우리가 그곳에서 살았던 것이 한국에 온 러시아 이주민들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죠.”

#고려인 자녀 “남과 북을 잇는 통일의 주역이 될 것”

한국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방인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그는 고려인을 동포보다는 외국인으로 보는 시선에 낮심을 이야기했다.

“얼마 전에 주차금지 고갈 글에 쓰인 ‘주차금지. 외국인이세요?’를 보고 외국인에 대한 공격적이고 차별적인 시선에 놀랐어요. 동포라 해도 외국인으로 받아들이고 억양 등이 강한 러시아어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차이를 차별로 인식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한국에서도 여전히 ‘나는 누구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하지만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놀며 한국을 이해하고 좋은 감정을 갖길 바라기 때문에 레오는 최선을 다해 지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남과 북을 오갈 수 있는 러시아 고려인 자녀들

이 통일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 언어를 가르치고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한국에 정착하든 다시 돌아가든 이곳에서 얻은 경험들이 통일을 이끌어갈 힘이 되리라 믿기 때문이다.

“같이 살려면 언어가 중요해요. 러시아,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온 고려인들이 안산지역에 타운이 형성돼 있어 언어나 공부에 관심을 두지 않아 아이들과 부모들을 설득하죠. 갈급함이나 절실함이 없는 아이들을 끌고 나가는 것이 가장 어려워요.”

#교육제도에 진입 어려운 학생을 위한 대안학교 꿈꿔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이뤄지지만, 올해 입학한 러시아 이주민 자녀들은 수업을 듣기도 어려워져 레오는 현재 수업지도 중심으로 운영한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월~금요일 오후 2시부터 6시30분까지 한국어와 국어 영어 수학 컴퓨터 교육과 그림 그리기 등의 활동을 한다.

현재 타임제로 운영되는 레오를 찾는 학생은 30여 명이다. 코로나19로 자원봉사자나 외부강사를 부를 수 없어 형진성 센터장 부부가 이끌어가고 있다.

형진성 센터장은 “한국에 남든 떠난든 ‘따뜻했던 나라였다’라는 좋은 느낌, 애뜻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서류가 없어서 한국 교육제도에 들어갈 수 없는 학교 밖 아이들 등을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 규모가 커지면 나중에는 대안학교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오마이뉴스 동시게재〉

김영의 기자



안산시, KI-Pass(전자출입명부) 외국인 안내 전용 창구 운영

안산시(시장 윤화섭) 외국인주민지원본부는 언어의 장벽 등으로 KI-Pass(전자출입명부)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주민을 위해 외국인 안내 전용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수기로 작성하던 출입자명부는 지난달 22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개발·배포한 QR코드 기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도입으로 바뀌었지만, 한국어 사용이 서툰 외국인인 네이버(NAVER)나 카카오톡 등에 가입이 안 돼 있어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설치에 어려

움을 겪어 왔다.

이에 안산시는 외국인의 전자출입명부 QR코드 사용의 한계를 해소해 외국인주민의 안전과 방역 시스템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3일부터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안내 전용 창구를 설치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에 들어갔다.

전자출입명부는 시설 방문 시 앱을 통해 QR코드를 발급받고 방문 시설에 설치된 QR코드 스캔기를 통해 방문기록을 생성하는 시스템으로, 명부의 허위작성,

개인정보 누출, 필기구 접촉 감염 등 방역망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추가 감염 위험 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관계자는 “임대폰 등 QR코드 인증이 불가능한 외국인들을 위해 수기 출입자명부 작성도 병행하고 전자출입명부 전용 출입구를 만들어 외국인 방문자의 신속하고 안전한 청사 출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Получение водительских прав в Корее 한국에서 운전면허 취득하기

Когда я приехала в Корею, самое первое, что меня поразило-это дороги. Ровные, четкие, большие и маленькие, даже в самых труднодоступных местах аккуратно покрытые асфальтом или галькой. Их было так много, что мне показалось, что Корея значит ельно больше Узбекистана(на самом деле территория Южной Кореи в 2,5раза меньше Узбекистана). Если раньше я всегда считала, что женщина за рулем-это обезьяна с гранатой, то, попав в Корею и увидев это великолепие дорог, я поневоле стала сомневаться в своих убеждениях. Когда родился второй ребенок и выезжать куда-то самой с детьми на общественном транспорте стало просто очередным и испытанием на прочность, я поняла, что мои прежние суждения были юношеским заблуждением. Я отправилась в таунацентр с четкой целью получить водительские права.

Чтобы получить права в Корее, вас ожидают 3 этапа- 3 экзамена: письменный(тесты за компьютером),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ый (после которого выдают временные права) и экзамен на дороге. Сдать их в один день сложно, т.к. у каждого экзамена есть расписание и предварительная регистрация.

1этап-письменный экзамен.

7 лет назад, когда я сдавала экзамены, письменный экзамен, помимо основного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проходил на многих языках, в том числе и на русском. Это намного упрощало прохождение первого этапа. Но сейчас из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остались только английский, китайский и вьетнамский. И для сдачи тестов русскоязычным иностранцам для начала придется попотеть над своими знаниями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Письменный экзамен можно сдавать в любой день с понедельника по пятницу и 1субботу в месяц. Для этого Вам следует обратиться в ближайший Экзаменационный центр по получению водительских прав с необходимыми документами.

Необходимые документы:

айдикада, 3 фотографии 3,5×4,5см, оплата 10.000вон, заполненный экзаменационный лист. Там же при регистрации Вы проходите физическ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оплата 6.000 вон (в случае наличия подтверждения прохожд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мед.обследования в течение последних 2лет проходить физическ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не нужно).

Перед сдачей письменного экзамена в обязательном порядке необходимо прослушать курс по безопасности движения. Длится он час,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по просьбе возможно подключить титры на ан-

лийском языке.

Письменный экзамен состоит из тестов, вы решаете их в компьютерном классе, всего 40вопросов, за каждый вопрос начисляется определенное количество баллов. Из общих 100 баллов для второй 2 обычной категории проходной составляет 60 баллов, для 1 обычной категории- 70 баллов. Длительность экзамена 40 минут. По окончании экзамена сразу же выходит результат о сдаче или провале.

В случае провала письменный экзамен можно в тот же день пересдать.

2 этап-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ый экзамен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ый экзамен сдается на ограниченном участке дороге, проверяются основные практические навыки будущего водителя: умение включать/выключать машину, парковаться, регулировать фары, дворники, поворотники, а также реакция в экстренных ситуациях.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можно в ближайшем отделении Экзамен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по получению водительских прав.

Для регистрации необходимы айдикада и экзаменационный лист с пометкой о прохождении письменного экзамена, оплата 22.000вон для 1 и 2 обычной категории.

Перед началом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ого экзамена Вы проходите обучение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где инструктор объясняет основные моменты, на которые следует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для успешного прохождения экзамена. Затем Вы садитесь в машину и экзамен начинается. Вы должны выполнять голосовые команды робота-навигатора, внимательно слушая их, т.к. при каждом невыполнении той или иной команды высчитываются баллы. Из максимально возможных 100 баллов проходной составляет 80 баллов. По окончании экзамена сразу же сообщают результат. В случае успешного прохождения второго этапа Вы получаете временное водительско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со сроком на год, в течение которого Вы можете сдать экзамен на дороге и получить водительское удостоверение. Пересдача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ого (и дорожного) экзамена в случае провала возможна только спустя 3суток.

Так как без практики прохождение второго и третьего этапа получения водительского удостоверения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довольно сложным, то обычно на втором этапе можно обратиться 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е учебные центры по вождению и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практическим экзаменам. В среднем цены на обучение в таких центрах колеблются от 350.000вон

~600.000вон. Во многих учебных центрах есть возможность сдачи экзаменов там же, тогда регистрация производится также в учебном центре.

3 этап- экзамен на дороге

Прохождение третьего этапа- самого ответственного и сложного- происходит на обычной дороге, в реальном времен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ться можно в ближайшем отделении Экзамен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по получению водительских прав.

Для регистрации необходимы айдикада, экзаменационный лист с печатью о прохождении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ого экзамена, оплата 25.000вон.

Как и перед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ым экзаменом, перед дорожным экзаменом Вы проходите обучение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где инструктор объясняет основные моменты, на которые следует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для успешного прохождения экзамена. После этого, как только Вас вызывают, начинается экзамен. Вместе экзаменатором Вы идете к своей машине, но перед тем как занять водительское место, следует обойти машину вокруг и проверить колеса и общее состояние машины. Затем Вы садитесь в машину и выполняете команды робота-навигатора. За каждое невыполнение команд или нарушение правил дорожного движения высчитываются баллы.

Проходной балл составляет 70 баллов для 2 и 1 обычной категории из 100 максимально возможных.

Результат экзамена сообщают тут же, пересдать в случае провала можно только спустя 3суток.

После успешной сдачи дорожного экзамена можно сразу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получение водительского удостоверения и в тот же день(как минимум в течение 20мин) его получить!

Всем, кто подготовился сдавать на водительские права в Корее, удачи и широкой дороги!

В помощь тем, кто собирается получать водительские права:

-ссылка на банк вопросов для письменного экзамена на 2020г. на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ах(английский, китайский, вьетнамский)

<http://dl.koroad.or.kr/>

-бесплатное онлайн-приложение для смартфона в [운전면허plus](#), с информацией об учебных центрах по Вашему региону, тренировочная база экспериментального и дорожного экзаменов.

Адреса Экзаменационных центров по получению водительских прав по Кёнгидо:

Экзаменационный центр по получению водительских прав в г.Ансан 김엘레나 경기외국인SNS기자단



'I Am Going to Physically Explode': Mom Rage in a Pandemic

With coronavirus concerns, stay-at-home orders, financial instability and mounting civil unrest, it is no surprise that mothers are experiencing intensified anger.



By Minna Dubin, The New York Times July 6, 2020

After I wrote a personal essay on mom rage in 2019, strangers on Twitter declared me an unfit mother. But I expected Twitter-hate. What I did not expect were the many emails I received from mothers around the world, saying they too struggle with mom rage and my story made them feel less alone.

After the initial flood of emails, a trickle continued over the next six months. Then Covid-19 happened, and with it, stay-at-home orders. My inbox began lighting up again, illuminating a direct correlation between mom rage and sheltering in place.

"Mom rage" is the colloquial term for the unrestrained anger many women experience during pregnancy, postpartum and beyond.

It is a popular topic these days in a support group for working moms at The Motherhood Center, a clinical treatment facility in Manhattan that offers services for pregnant and postpartum women. Paige Bellenbaum, a group facilitator and the center's founding director, said, "Mom rage is something we talk about all the time. Social isolation, lack of support, managing high levels of anxiety and stress-this is the new normal of being a mother, and during the pandemic in particular."

Anger and rage are waving red flags hinting at feelings below the surface. Mothers who experience rage may be feeling alone, unheard, and unsupported, Bellenbaum said. "But it's so much more powerful to feel angry and rageful than to touch the vulnerability of what lives behind it."

Between stay-at-home orders, Covid-19 health concerns, financial instability (or fear of it), and police violence against Black people, it is no surprise that mothers are experiencing intensified rage above the surface, and feelings of grief, fear, and loneliness below.

"We're asking all parents, but it's

especially moms on the front lines, to try to do 24/7 child care without a break at the same time that they're trying to often hold down a job," said Laura Markham, Ph.D., a clinical psychologist, parenting coach and author of "Peaceful Parent, Happy Kids: How to Stop Yelling and Start Connecting." "So, is there more mom rage?" she asked. "How could there not be?"

Mom rage expresses itself in different ways. Anya Persaud, who has a 3-year-old and a newborn and lives in Beacon, N.Y., could pinpoint her fury: "Raising my voice and walking hard are signs I'm heading from frustration to rage."

Virginia Duan, who homeschools her four children, ages 3, 6, 8 and 10, in the San Francisco Bay Area, said: "It feels as if I am going to physically explode, like having an out-of-body experience where I cannot seem to control the litany of invectives flying from my mouth."

Molly Caro May, who lives in Bozeman, Mont., and is the author of "Body Full of Stars: Female Rage and My Passage into Motherhood," said of her rage, "I never hurt anyone, but I was out in the forest throwing rocks at trees."

Moms aren't supposed to yell and stomp and throw rocks, and we aren't supposed to share our rage publicly. I have wondered if I've been able to write openly about mom rage without much reproach because it has become so commonplace in our lexicon, or if it is because I am white.

Nefertiti Austin, the author of "Motherhood So White: A Memoir of Race, Gender, and Parenting in America," wasn't familiar with the term "mom rage" but acknowledged that the intense anger is somewhat universal for moms. Of Black mothers, Austin said: "It's tricky for us, because we are already saddled with 'angry Black woman.' I definitely don't want to be described as having mom rage, because it's not going to play the same if I say I have it, than if a white mom says she has it."

Austin added that because of racist stereotypes, Black mothers are under more pressure to appear perfect. With police violence against Black people, Austin said, Black mothers may have their "children on a tighter leash than white parents."

"The whole 'kids will be kids' thing? We know that that's not true when it comes to our kids. There isn't a lot of grace for Black children," Austin said.

That fear and perfectionism can only add fuel to the mom-rage fire.

Since viewing the video of George Floyd's death, Persaud said her mood and sleep have suffered. "I've had overwhelming anxiety and feelings of hopelessness and helplessness."

Duan said one of the factors affecting her mom rage is "the trauma of being Asian-American during the pandemic," after some, including President Trump, have blamed China for the coronavirus outbreak. The attack has led to a surge in xenophobia against Asian-Americans.

It's been a few months since the pandemic began and several weeks since protests against police violence filled our neighborhoods. All the while, mothers continue to work multiple jobs at once (teacher and mom at a minimum), and they're exhausted. May said she vacillates between "this week, we're going to study cities of the United States" and "actually, we're just going to be outside playing with sticks."

Like May, Duan concedes her bandwidth has been lower since Covid-19. "I think it goes hand-in-hand with my resignation," she said. "I'm fine with the kids just messing around and occasionally learning."

Persaud is having similar throw-up-her-hands moments these days. "Where before I might have raised my voice, now I give in," she said. She will allow her son to skip a nap or eat with the television on. "Surely, we can't yell and scream every day, right?"

This "laissez faire" parenting style seems more than warranted during this strange, stuck-at-home period. But how can mothers fill up their tanks above empty? Is self-care even possible for mothers during the coronavirus era?

May described her self-care during the pandemic as "feast or famine." "Some weeks, I'm on it," she said. "I exercise, feed myself beautiful food, get some quiet time, and I feel really good. Other weeks I'm literally eating butter on bread in the corner of my kitchen eight times a day. It can feel like I just need to get my basic needs met and everyone is in the way of that."

When I asked Persaud how she makes time for herself, she answered unequivocally, "Showers!" Whitney Sandoval, who lives in Wichita, Kan., with her 5- and 3-year-olds, will drive to pick up her groceries and then hang out in her car in the parking lot. "I listen to music or

a podcast, read or just sit in silence. It's the closest I can get to being alone."

Eating properly, exercising, showering and getting a little alone time sound like they belong in the "basic health requirements" category as opposed to "self-care for mothers."

Even if those bare minimum self-care needs are met, mom rage doesn't just disappear. Rage has something to say and, according to Dr. Markham, "Rage doesn't dissipate until it feels heard."

Ruth King, an educator, life coach, meditation teacher and the author of many books, including "Healing Rage: Women Making Inner Peace Possible" and "Mindful of Race: Transforming Racism from the Inside Out," said: "Rage sits at the crossroads of personal transformation. Rage is not to be understood as a useless emotion, empty of knowledge. Rather, rage is fierce clarity and untapped fuel? when we push rage away, we can't learn from it."

Unfortunately, many mothers are doing just that. It is a challenge to find mothers who will talk on the record for this article. One mom eagerly emailed me about her rage, but then declined being quoted, saying, "You know, mom shame."

Bellenbaum of The Motherhood Center said, "There's so much guilt that we feel toward ourselves, and a kind of inner-disappointment that we have these types of feelings at this intensity, especially toward our children." It can be challenging for partners living with those who have mom rage to be able to offer compassion and support, especially during the pandemic, when the emotional bandwidth of all parents is stretched thin.

In support groups at The Motherhood Center, Bellenbaum has seen mothers find the nonjudgmental witnesses they need in each other. She said, "When we connect with other women who are having the same feelings, that sense of community creates an initial and immediate relief."

I have experienced this relief myself. What the mothers who write to me about their mom rage don't know is that their emails help me feel less alone, too. Since the pandemic began, people have been clapping, singing and howling into the night at a certain hour. Some clap to thank essential workers. Others howl in grief or just to relieve stress. Maybe it's time for mothers to take to the windows and bellow out a collective earsplitting roar.

고려인 동포와 함께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캠페인

땃골에서 (사)너머, 대한고려인협회,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 참여해 캠페인 벌여

국내 거주 고려인지원단체 사단법인 너머(이하 너머)는 지난 7월 3일 대한고려인협회와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와 함께 안산 땃골마을 일원(선부2동)에서 '고려인 동포와 함께하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에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고려인 동포와 외국인 주민들에게 예방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보 전달과 생활 습관 개선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대한고려인협회 소속 고려인 동포들과 고려인 노년 여성들로 이루어진 고려인어머니봉사단, 너머 고려인청소년경찰단 등 다양한 연령대의 고려인 동포 30여 명이 참가했다.

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금요일 저녁 시간에 맞춰

땃골 삼거리 주변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독과 고려인 동포와 외국인 주민들에게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수칙과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에 대해 안내했으며 마스크를 갖추지 못한 주민들에게 마스크를 배포하였다.

이날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 캠페인에 참여한 고려인 동포들은 국민참여형 의료진 응원 캠페인 '덕분에 챌린지'에도 참여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애쓴 의료진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러시아 국적의 텐 타마라(고려인어머니봉사단 제비단장)은 "요즘 러시아,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에서 코로나19가 많이 확산하고 있어 많이들 걱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안산에 있으면 우리 가족이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고 많이 감사하다."라고 고마

움을 전했다.

이번 캠페인을 주최한 안산시고려인문화센터의 김영숙 센터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거부감과 혐오의 정서가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 내외국인 모두 다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마음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며 "고려인 동포들이 주체가 되어 진행된 캠페인을 통해 우리 이웃과 가족들이 건강하게 코로나19 위기를 잘 이겨내자고 다짐하고 독려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앞으로도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독 및 예방 활동과 교육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김영의 기자



"안산 어디까지 가봤니?" 초등생 지역사회 탐방 멘토링 진행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선.이주민 초등생 대상 안산 탐방 행사 오리엔테이션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선.이주민 초등학교 6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지역사회 탐방 멘토링 '안산 어디까지 가봤니?'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안산 어디까지 가봤니?'는 한양대학교 대학생 멘토 5명과 선.이주민 멘티 10명이 3인 1조를 이루어 총 5회기 동안 안산지역을 자유롭게 탐방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 중심 세계화(글로벌라이제이션)'의 취지에 근거하여 지역사회의 이슈가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도록 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들은 역사, 문화, 환경, 다문화 등의 주제로 나누어 조별로 안산을 탐방해 나갈 예정이다.

안산시는 올해 국내 최초이자 아시아 두 번째로 유럽

평의회가 주관하는 상호문화도시(ICC)로 지정되었다. 상호문화도시는 다양한 문화와 국적을 가진 이주민과 원주민이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상호교류하는 도시를 말하는 만큼 이러한 선.이주민 청소년이 함께 '내가 살고 있던', '내가 이주해 온' 도시를 탐방하는 것 자체가 상호문화이해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선발 과정에서 면접에 참여한 아동·청소년들은 "안산에서 태어났는데 안산을 잘 몰라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안산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본 곳이 거의 없어요. 이번 기회에 안산을 알고 싶어서 지원했어요"라며 안산탐방에 많은 흥미를 드러내 보였다.

이번에 참여하게 된 대학생 멘토들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다문화. 탈북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양대학교 ERICA 멘토들로서 길게는 4년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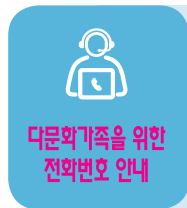
다문화 멘토링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 학생들이 멘토들을 롤모델링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상호존중하는 태도를 몸에 익힐 수 있을 전망이다.

조별로 안산지역 탐방 내용은 9월 12일 '성과보고회'를 열어 '안산 어디까지 가봤니? 발자취 맵'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사정으로 이날 보고회는 온라인으로 개최될 수 있다.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이승미 센터장은 "안산을 대표하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선.이주민 청소년들이 자신을 키워줄 지역사회로 안산에 관심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안산 어디까지 가봤니?'는 한국가스공사에서 후원한다. 031-599-1781

김영의 기자



안산시외국인주민지원본부 1666-1234 안산시외국인주민상담지원센터 1644-7111 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599-1700 안산시글로벌청소년센터 031-599-1770 안산출입국관리사무소 031-364-5700 외국인력상담센터 1577-0071 글로벌미션센터 070-8600-8040 안산종합고용지원센터 031-413-3106 원곡보건지소(외국인 진료) 031-481-3606 안산다문화작은도서관 031-481-2661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시흥시 찾아가는 인구교육, 다문화가정 학생 많은 학교는 동시통역으로!

군서중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수요자별 맞춤교육, 전시민 공감대 형성 계기



시흥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은 지난 7월 7일 군서중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2020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살펴보면 인구교육에 대해 '국민의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 이해와 결혼·출산 및 가족 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위해 인구교육을 활성화해야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해야한다'고 그 정의와 당위성이 기록돼 있다.

이에 시흥시는 가치관 형성에 가장 중

요한 시기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찾아가는 인구교육을 추진해왔다.

현재까지 6,419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인구문제, 저출산, 고령화 등에 대한 서로 간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2019년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목표가 '출산장려'에서 '삶의 질 개선'으로 변경되면서 2020년도에는 출산장려, 결혼의 당위성보다는 개개인의 삶에 초점을 맞춰 인구를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인구현상과 그에 따른 문제점 극복 등에 중점을 두어 교육내용을 편성했다.

올해 인구교육은 수요자별 맞춤교육으로 초·중·고등학생은 주제별로 워크북과 인구창업동화 독후활동을 병행해 학교에서 주제를 취사선택할 수 있게 했고 중·고등학생은 인구에 대한 강의 및 주제별 토론을 통해 가치 있는 인구교육이 진행되

도록 계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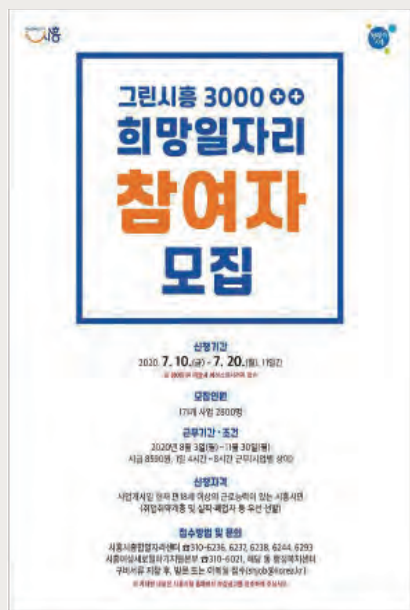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 학사일정연기 등 교육추진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참여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에 힘입어 7월부터 군서중을 시작으로 중학교 2개교, 초등학교 6개교를 11월까지 추진할 예정이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예방을 위한 안전수칙도 철저히 준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이 날 참여한 군서중은 다문화 비율이 높아 참여 학생들이 교육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동시통역으로 진행했다"며 "향후 교육대상을 일반인 및 기업인까지 확대해 인구에 대해 전 시민이 함께 고민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 '그린시흥 3000++ 희망일자리'로 취업 도전해요

시흥시, 코로나19 극복 위해 171개 사업 2,800개 일자리 모집, 다문화가족도 참여



일 자리를 찾고 있는 다문화가족이라

면 '그린 시흥 3000++ 희망일자리'로 눈을 돌려보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그린 시흥 3000++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그린 시흥 3000++ 희망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 실직, 폐업자, 무급휴직자,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생계를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됐다.

현재 모집 중인 일자리는 ▲생활방역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회복 ▲문화예술분야 환경개선 ▲긴급 공공업무지원 등 171개 사업 2,800개다. 직종별로 다르지만, 1일 4~8시간 주 5일 근무를 원

칙으로 한다.

만 18세 이상인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 중 지역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시흥시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이나 휴, 폐업 자영업자, 특수고용자, 프리랜서 등을 1순위로 선발하며, 전일제 직접 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이거나, 공무원 가족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20일까지 구비서류를 지참해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나 시흥여성새로일하기 지원본부 또는 동행정책지원센터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shjob@korea.kr) 접수하면 된다.

참여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며 시급

8,590원과 주휴수당, 월차수당, 간식비를 지급 받는다. 기타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는 시흥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그린 시흥 3000++' 희망일자리 사업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흥시민들에게 '그린 시흥 3000++ 희망일자리' 사업이 희망으로 나아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2,800개 일자리 외에도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해 시민 생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린 시흥 3000++ 희망일자리' 사업 관련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 종합일자리센터(031-310~6257)로 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시흥시청 031-310-2114 시흥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319-7997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031-434-0411 시흥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 031-496-9393/9494 시흥고용센터 031-496-1900 시흥여성인력개발센터 031-313-0473~4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Hè này đi đâu nào!! vườn thực vật sihung!

시흥 외국인주민의 용도식물원 탐방기, 지역사회에서 즐거움 찾아오

Hè đến rồi, mọi người đã có kế hoạch gì cho riêng mình chưa nào!!!hôm nay mình sẽ giới thiệu cho các bạn vườn thực vật tại thành phố sihung. vườn thực vật yongdo có diện tích rơi vào khoảng 33000m2 dưới chân núi yangjisan ở gurim-dong, sihung-si. trong vườn có hơn 1200 loài thực vật với đa dạng các chủng loại, gồm có vườn các loài hoa hoang dã, làng cây cảnh, có cả mô hình khủng long và các tác phẩm điêu khắc rất sinh động, bạn sẽ được trải nghiệm cảm giác khi cho các con thú ăn, cảm giác thú vị khi trượt trên những đường ray từ trên cao xuống, và những con đường đi bộ đầy cây xanh, đây là một nơi tuyệt vời để tận hưởng một kỳ nghỉ hè tuyệt vời phải không nào!!

*Phí vào cửa: Người lớn: 3000won / trẻ em: 2000won

trẻ em dưới 24 tháng tuổi hoặc người già trên 75 tuổi, người khuyết tật cấp độ 1-3 sẽ được ưu đãi giảm giá(điều kiện: phải đem theo chứng minh thư và giấy tờ chứng thực)

*thời gian hoạt động: tháng 4 ~ tháng 10: mở cửa lúc 9:30 sáng / tháng 11 ~ tháng 3: mở cửa lúc 10:00 sáng

*giờ đóng cửa: tháng 4 ~ tháng 10: đóng cửa lúc 7:00 tối / tháng 11 ~ tháng 3: đóng cửa lúc 5:00 chiều

nếu bạn đến thăm vườn vào ngày thường thì sẽ khá yên ắng, đổi lại là tiếng chim kêu ríu rít bên tai rất thú vị đấy. ở trong làng cây cảnh, có bán các loại đồ uống và cả mì gói nên mọi người cũng không cần quá lo sẽ bị đói bụng nhé. vì do dịchCOVID nên các nhà hàng tạm thời ngưng hoạt động, nên nếu được thì mọi người chuẩn bị thức ăn và mang theo cũng là một cách để tận hưởng chuyến đi nhé.

♦làng cây cảnh:

có đầy các loài cây cảnh và sen đá với đủ các thể loại đa dạng. các loài cây

này được trồng trong một nhà kính, nếu bạn có sở thích với sen đá thì không nên bỏ qua khu vườn này nhé. và nếu muốn mua, bạn có thể liên hệ với quầy thu ngân gần đó để thanh toán nhé.

phía bên ngoài cổng vào có bán các loại thuốc chống muỗi thảo mộc thiên nhiên, nếu lo sợ muỗi và côn trùng cắn, hãy sắm ngay một lọ cho mình nhé!!!

khi mua vé, hai thứ bạn nên mua kèm thêm đó là cơm cá chép và cà rốt. cà rốt bạn sẽ sử dụng khi những đứa trẻ cần cho động vật ăn gì đó, và nó chỉ có 1000won mỗi cái, quá rẻ phải không nào.

♦trải nghiệm cho cá chép ăn:

cá chép rất nhiều với đủ loại màu sắc, việc cho cá ăn cũng là một trải nghiệm thú vị phải không nào, tất nhiên bạn cũng nên cẩn thận không để trẻ nhỏ đưa tay xuống nước vì lũ cá chép có vẻ lúc nào cũng đói và không phân biệt được đâu là thức ăn đâu đấy.

♦trải nghiệm cho động vật ăn:

khi đi vòng quanh bạn sẽ bắt gặp khá nhiều các loài động vật, và chúng có vẻ khá thích cà rốt, đó là lý do tôi khuyên các bạn nên mua nó ngay lúc vào cổng đấy. và cũng nhớ cẩn thận không để trẻ em cho ăn quá gần nhé.

♦trải nghiệm xe trượt:

trẻ em trên 36 tháng và dưới 15 tuổi mới có thể trượt nhé. nhưng một điều hơi đáng tiếc là xe trượt chỉ mở cửa vào cuối tuần, nên nếu đi ngày thường thì không thể trải nghiệm được, hơi tiếc một chút phải không nào. chi phí cho một lần trượt là 3000won cho 40 phút sử dụng nhé.

ngoài ra khu vườn đầy các mô hình khủng long cũng là một nơi lý tưởng cho con trẻ vui chơi. nếu bạn vẫn chưa quyết định sẽ đi đâu vào dịp hè này thì

đây là một điểm đến đáng để cân nhắc cho các gia đình có con nhỏ đấy. chúc mọi người có một trải nghiệm mùa hè đầy thú vị bên gia đình nhé.

드디어 여름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여름계획 세워보셨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시흥 용도식물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용도식물원 면적은 33000제곱미터 정도이고 시흥시 매화동에 위치합니다. 식물원 내에서는 1200 종류의 야생화 및 다양한 식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공룡과 조각 작품들도 전시되어 있어 관광객들이 새로운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동물들한테 먹이를 것도 재미있고 썰매를 타는 것도 관광객들한테 관심을 갖게 하는 놀이입니다. 게다가 길 양쪽에 푸른 나무들이 있어서 여름에 시원한 느낌도 가져다줍니다. 여름에 꼭 가볼 만한 곳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입장료 성인: 3000원 / 어린이: 2000원

24개월 이하인 소아 또는 75세 이상인 어르신분 또는 1-3급 장애인은 특별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이나 증명서류 지참 필수)

*운영시간 4월~10월: 9시30분부터 / 11월~3월: 10시부터

*폐장시간 4월~10월: 저녁 7시까지 / 11월~3월: 오후 5시까지

공휴일이나 명절 아닌 평일에 식물원에 방문하시면 조용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고 각종 새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식물원 내에서는 음료수 및 라면을 판매하는 곳이 있어서 배가 고프면 언제나 먹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식당은 운영 중단되었으니 여러분이 식물원에 방문하시기 전에 집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미리 준비하면 여행을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물마을

식물마을 안에서는 각종 식물과 다육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크린하우스에서 키우고 있고 다육을 좋아하는 분이라

면 여행계획에 식물마을을 방문하는 거 빼 수 없는 일정이죠. 사고 싶은 식물 있는 분은 근처 계산대에서 계산하면 됩니다.

입구에는 자연성분으로 만들어진 모기약 및 곤충약이 있어 모기에 물리지 않게 하나를 구매해서 바르시면 좋습니다.

입장티켓 구매 시 잉어먹이랑 당근이랑 같이 사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식물원 안에 동물장이 있어서 귀여운 동물한테 먹이 주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먹이 하나에 1000원이라 너무 저렴하죠.

♦잉어 먹이 주기 체험

이곳의 잉어는 각각 다 색깔이 다릅니다. 잉어한테 먹이를 주는 체험은 역시 재미있죠. 한가지, 잉어 먹이 줄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손을 잉어한테 너무 가까이 대지마세요. 항상 배 고프는 잉어들이 손과 먹이를 구분할 수 없어서 손이 다칠 수도 있습니다.

♦동물 먹이 주기 체험

식물원을 한 바퀴 돌아보면 많은 다양한 동물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동물들은 당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당근 사오는 거 권장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동물한테 먹이를 줄 때 손을 너무 가까이 대지마세요. 위험하니까요.

♦썰매 타기 체험

36개월 이상인 아거나 15세 이하인 어린이만 탑승 가능합니다. 아쉬운 게 썰매 타기는 주말에만 운영되고 있으니 평일에 못 탑니다. 한 번 타는데 3000원이고 40분 동안 탈 수 있습니다.

공룡 광장도 배치되어 있어서 어린이들은 많이 좋아할 곳입니다. 여름에 아직 가족들과 어디 놀러갈 계획이 없으시다면 시흥 용도식물원을 추천합니다. 가족들과 즐거운 여름 휴가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레타인공 경기외국인SNS기자단



**KONEKSYON NG PAMILYA
PATRAS NA MALASAKIT SA SIKLO
NG BUHAY!**

Ang Aking Unang Aklatan

Bawat Aklatan sa lugar

- **Target ng Proyekto** : Mga buntis na kababaihan ~ 12 buwan matapos ang kapanganakan (hanggang 22 buwan)
- **Panahon ng aplikasyon** : Buong taon
- **Nilalaman ng Suporta** : Serbisyo pagpapadala para sa mga buntis at mga sanggol na nahihirapan sa pagbisita sa library
- **Paraan ng Pagpaparehistro** : Bisitahin ang mga pampublikong aklatan sa nasasakupan
- **Mga Kailangang Dokumento** : ID card, sertipiko ng pagbubuntis o rekord ng maternity record (para sa mga sanggol, petsa ng kapanganakan ay maaaring kumpirmahin)
- **Institusyon na namamahala**

Numero	Pangalan ng Aklatan	Para sa mga Katanungan
1	Silid aklatan ng Jung-ang	031-310-5225
2	Silid aklatan ng Neungnok	031-310-2556
3	Pambatang silid aklatan sa Daeya	031-310-5250
4	Silid aklatan ng Daeya	031-310-5274
5	Silid aklatan ng Gunja	031-310-5194
6	Pambatang silid aklatan sa Joengwang	031-310-5186
7	Silid aklatan ng Moggam	031-310-2590
8	Silid aklatan ng Janggok	031-310-5235



Pinansyal na Suporta para sa Inampung Bata

Childcare Division (310-3177)

- **Mga Maaaring Magparehistro** : Mga pamilyang nag-ampun ng bata sa loob ng bansa sa pamamagitan ng ampunang organisasyon at dumaaan sa tamang proseso at kondisyon na naaayon sa Special Case Adoption Act.
- **Pamantayan sa pagpili** : Special cases ng mga batang may edad na 17 taon na inampon at sa wasto at tamang proseso na naayon sa "Special Case Adoption Act"
- **Buwang suporta para sa ampon na bata**, at ito ay mahihinto pag sapat ng ika-17 kaarawan.
- **Maaaring bayaran nang sabay-sabay bilang suporta sa bata may kapansanan**
 * Ang mga batang ampon na nakansela ang rehistro ng pagiging residente sa kadahilang nanirahan sa ibang bansa ay hindi bibigyan ng suporta
- **Nilalaman ng Suporta** : Ang pinansyal na tulong ng pangangalaga sa bata ng KRW 150,000 bawat buwan
- **Paraan ng Pagpaparehistro** : Bumisita at magparehistro sa Childcare Division

Tulong pinansyal para sa pangangalaga ng bata sa bahay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Customized Welfare Team

- **Mga maaring magparehistro**
- Sanggol at mga batang inaalagaan sa bahay, at hindi napasok sa Day Care Center o tumatanggap ng serbisyong tagapag-alaga ng bata sa bahay. Anuman ang antas ng kinikita ay maaring magparehistro (Mga pamilyang nag-aalaga ng bata sa loob ng bahay hanggang 86 na buwan mula pagsilang)
- Mga sanggol na linalampas sa bansang Korea at mayroong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sa lalim ng "Resident Registration Act"
- * Gayunpaman, ang mga bata sa ibang bansa ay maaaring mag-aplay kung nakumpleto na nila ang kanilang pag-rehistro ng residency at may layunin na manatili sa Korea nang higit sa 30 araw.
- Kinakailangan na iparehistro ang pagbabago sa pagtanggap ng suporta ayon sa pangangalaga sa bata (pangangalaga sa bahay => nursery => kindergarten)
- Suporta hanggang sa edad ng pagpasok ng elementarya buwan ng Pebrero (hanggang sa 86 na buwan)
- **Paraan ng Pagpaparehistro** : Bisitahin ang nakakasakop na Administrative Welfare Office sa inyong lugar o mag-apply online sa Welfare Service (online.bokjiro.go.kr)
- **Nilalaman ng Suporta** : Pagkakaiba ng pagbabayad tulad ng sumusunod ayon sa edad

Mga bata na hindi lalampas sa taong 6 na gulang	Mga bata na hindi lalampas sa 12 buwan	200,000 won
	Mga batang mula 12 buwan at hindi lalampas sa 24 na buwan	150,000 won
	Mga batang mula 24 na buwan at hindi lalampas sa 86 na buwan	100,000 won
Mga bata sa rural na lugar	Mga bata na hindi lalampas sa 12 buwan	200,000 won
	Mga batang mula 12 buwan at hindi lalampas sa 24 na buwan	177,000 won
	Mga batang mula 24 na buwan at hindi lalampas sa 36 na buwan	156,000 won
	Mga batang mula 36 na buwan at hindi lalampas ng 48 na buwan	129,000 won
Mga Bata na may Kapansanan at Mga batang nasa rural na lugar	Mga batang mula 48 na buwan at hindi lalampas sa 86 na buwan	100,000 won
	Mga batang hindi lalampas sa 36 na buwan	200,000 won
	Mga batang mula 36 na buwan at hindi lalampas sa 86 na buwan	100,000 won
	Mga bata sa rural na lugar	100,000-200,000won depends on the child's age

* Kung ang isang bata ay mananatili sa ibang bansa nang higit sa 90 araw, ang suporta ay sususpindihin sa bata sa Infant Care Act.

26
27

Sanggol · Bata

**KONEKSYON NG PAMILYA
PATRAS NA MALASAKIT SA SIKLO
NG BUHAY!**

Paggamit ng serbisyong pag-aalaga sa bata

Department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ealthy Family Team (031-310-2617)
Healthy Family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Education Support (031-317-4516)

- **Mga maaaring magparehistro** : Mula 3 buwan hanggang 12 taong gulang
- **Oras ng paggamit** : part-time (hanggang sa 720 na oras sa isang taon), full-time sa mga sanggol (60 hanggang 200 na oras bawat buwan)
- **Kabayaran** : Bawat Oras (pangkalahatang 9,650won, kabuuang 12,550won)
 * Pagkakaiba-iba ng suporta ayon sa antas ng kita
- **Paraan ng Aplikasyon** : Magparehistro sa homepage ng Child Care Service (https://dolbom.go.kr)

Pangalan ng serbisyo	Haba ng oras ng Serbisyo	Bayad (bawat oras)
Buwag Araw na Serbisyo sa Bata	3 oras pataas / araw	9,650 won
Part-time na serbisyo	2 oras pataas / araw	Pagkaraniwan 9,650won/ buong serbisyo 12,550won
Serbisyo para sa may sakit na bata	2 oras pataas / araw	11,580 won
Serbisyo ng dispatch ng ahensya		16,500 won

Paggamit ng Dream Start Center

Childcare Division, Dream Start Team (031-310-3174)

- **Kwalipikasyon** : Ang mga batang wala pang 0-12 taong gulang at kanilang mga pamilya
- **Panahon ng Aplikasyon** : Buong taon
- **Nilalaman ng Suporta** : Suporta sa emosyonal na panlipunan, edukasyon sa kalusugan ng bata, pag-unlad ng bata at edukasyon sa pagiging magulang
- **Paraan ng Aplikasyon** : Bumisita Administrative Welfare Center o Dream Start Center
- **Mga kinakailangang Dokumento** : ID kard

Suporta para sa halilihang pag-aalaga ng bata

Department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Healthy Family Team (031-310-2617)
Healthy Family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Education Support (031-317-4516)

- **Kwalipikasyon** : Mga magulang na may mga anak na grade 1-3
- **Panahon ng aplikasyon** : Buong taon
- **Application** : Pinansyal na suporta sa aktibidad (20,000won bawat mag-aaral / buwan)
- **Paraan ng Aplikasyon** : Tumawag sa Healthy Family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Paglalaro ng tubig sa labas sa tag-araw

Park Management Team (031-310-3862 ~ 3865/3869 ~ 3871)
Siheung City Corporation (031-488-6900, 6903 / 6962 ~ 3)

Pag punta sa tabing dagat

Lugar	Kinaroroonan	Bayad	Makipag ugnayan
Gaegol Sea Experience Center	Siheung, East-West 287	4,000won (30% dikwento para sa mga residente ng Siheung)	Siheung City Corporation (031-488-6900, 6903)
Hanwool Park SeaWater Experience Center	Siheung, Jeongwang-dong 2590	4,000won (30% dikwento para sa mga residente ng Siheung)	Siheung City Corporation (031-488-6962-3)

Mga parke na my tubig na palaruan

Numero	Pangalan ng lugar	Kinaroroonan	Numero	Pangalan ng lugar	Kinaroroonan
1	Sandeul Geunlin Park	1352, Geomo-dong	8	Mulbich Park	2464 Jeongwang-dong
2	Sincheongeunlin Park	57 Sincheon-dong	9	Supsohyang-gi park	2385 Jeongwang-dong
3	Bidulgi Park	551 Eunhaeng-dong	10	Hani Park	2795 Jeongwang-dong
4	Hasang Children's Park	372, Hasang-dong	11	jeolm-eungwa paegui park	1800-5 Jeongwang-dong
5	Saesmalgeunlin Park	848, Hajung-dong	12	Gunseo Geunlin Park	1581, Jeongwang-dong
6	Solsup Geunlin Park	12-6, Misan-dong	13	Okgu Park	2138, Jeongwang-dong
7	Siheung Moggam Park 1	413-2, Jonam-dong			

**KONEKSYON NG PAMILYA
PATRAS NA MALASAKIT SA SIKLO
NG BUHAY!**

Pilipino



30
31

“작은 텃밭 만들며 코로나 함께 극복해요”

시흥외복, 국가별문화행사지원사업 프로그램 운영

시흥시(시장 임병택)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종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친 마음을 달래고자 지난 6월 28일 공동체 12개국 외국인주민 3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동체 원예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여름철 작물 상추와 잎들깨 모종으로 작은 텃밭을 꾸밀 수 있는 키트와 매실 열매를 활용한 매실액 만들기키트를 제공했다.

또한, 간단한 모종 심기 및 텃밭 관리방법은 센터 SNS를 통해 온라인강의를 제공했다.

이날 원예활동은 코로나로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었던 외국인주민들의 정서적인 지원과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공동체간의 온라인을 통한 공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우즈베키스탄 공동체 아잠존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제한을 받아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이번 활동을 통해 집에서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외국인주민들도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는 외국인근로자들과 이주민들이 한국 문화에 적응하도록 돕고 내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주민의 권익과 인권을 보호하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집 안에만 머물긴 아까운 시간, 공공도서관 서비스로 ‘알차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다문화가족도 집 안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자칫 지루한 시간으로 일상이 흐트러지기 쉬운 요즘 시흥시 공공도서관의 ‘북 테이크-아웃’ 서비스로 슬기로운 시간을 가져보자

시흥시중앙도서관은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 중 시민의 독서 활동 지원을 위해 운영 중인 ‘북 테이크-아웃 서비스’ 대출 권수를 지난 7월 8일부터 기존 5권에서 10권으로 확대했다.

이용방법은 도서관 통합 홈페이지(<https://lib.siheung.go.kr/>)를 통해 도서를 예약 신청한 후 예약일에 도서관 입구에서 도서를 받아가는 방식이며, 타 도서관 소장 도서를 대출할 수 있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포함해서 10권 대출이 가능해진다.

도서예약 대출서비스인 ‘북 테이크-아웃 서비스’는 현재 시흥시 공공도서관 10개 관에서 운영 중이다. 시흥시 중앙도서관은 시민들의 독서 편의 제공을 위해 오디오북 115종(575권)의 신간 및 베스트셀러를 6월 말에 추가 구입해 서비스하는 한편, 신천역, 정왕역에 운영 중인 ‘스마트도서관(무인도서대출납기)’, 신간 도서를 바로 이용할 수 있는 ‘동네서점 바로대출 서비스’, 전자책, 오디오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企画2] 韓國の不動産狂風、多文化家族はどうすれば?

7. 10不動産対策、多住宅者には税金爆弾... 無住宅者には購入しやすく

最近アパート価格が急激に上がり、アパートを所有していない人たちは不満を訴えている。2年前、京畿道のある都市で2億ウォンの貸出を受け3億ウォンのアパートを購入した人は、わずか2年で値段が4億5千万ウォンとなり、1億5千万ウォンを手にいれた。ソウルでアパートを購入したら、価格の上昇額はもっと大きく、3億ウォン以上を手にいれた人も数知れずだ。一生懸命働いても稼げない金額だ。2年前3億ウォンで買った家が、今では4億5천万ウォンになるわけだから不満も高まる。特にソウルではアパート価格が上がり続け、いい場所では9億ウォンを超し、良くない場所でも4億ウォン以下は下らない。このように最近の不動産価格暴騰にアパートを所有していない庶民の抗議が続き、政府は多様な対策を打ち出した。7月10日に発表された政府の対策を調べてみよう。

無住宅者、住宅購入たやすく

政府の今回の対策は、ひとりがいくつかのアパートを所有する場合、膨大な税金を加算し、アパートを所有していない人にはより容易くアパートを購入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する対策など、二種類に要約される。

まず民間建設社の民営住宅請約に生涯最初特別供給’を新設し、新婚夫婦特別供給の申請所得基準を緩和した。

特別供給は生涯初の住宅購入者や新婚夫婦、子どもの多い世帯、高齢者扶養世帯などのための物件を別に用意して供給する制度だ。投機過熱地区内の9億ウォン超過アパートは除き、85㎡以下小型アパートのみ適用される。民営住宅は現

在特別供給せねばならない比率が新婚夫婦20%、子どもの多い世帯10%、機關10%、高齢者扶養3%など、計43%だ。これに生涯初の供給が加わり7~15%を新たに配定する。

新婚夫婦特別供給は該當地域の居住者のうち、未成年の子どもが多ければ優先順位が高くなる。子どもがいない、あるいはひとりの場合、当選しにくくなる。

住宅を購入する場合、貸出は?

無住宅庶民がアパートを購入するならば、貸出は必須だ。一度に巨額を支払える人だけがアパートを購入することができるとなると不公平だからだ。しかしお金があるからといって貸出を利用し3棟以上のアパートを購入し、そのためアパート価格が上がるという現象が生まれると、政府は不動産取引が活発な地域を投機過熱地區、調整對象地域などに指定して、アパート貸出を減らす政策を行った。

そうすると今度は無住宅庶民がアパートを購入することができなくなるという副作用が生まれ、7月10日に政府対策で無住宅庶民に限って貸出を少し増やすという政策(住宅擔保貸出比率(LTV)と總負債相換比率(DTI)緩和)を發表した。投機過熱地區に指定された水原市、河南市と龍仁市、安山市、南揚州市、高陽市などの一部京畿道地域は、アパート購入価格の40%だけ貸出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調整對象地域として指定された所では50%だ。しかし無住宅庶民はこれに加えて10%づつ貸出を受けることができる。多文化家族はアパート購入を考えている地域がどのような規制地域に指定されている

のか調べてみよう。貸出がどれぐらいになるかわかるからだ。

多住宅者税金爆弾

2住宅以上を保有している人は、今回の不動産対策でたくさん税金を払うことになる。家を購入するときには、地方自治團體に取得税を払うことになるのだが、住宅価格とは関係なく、2住宅世帯は8%、3住宅以上世帯は12%の取得税を払う。家を1棟所有しており、追加で3億ウォンの家を購入すると取得税で2400万ウォンを支払う。無住宅庶民が家を購入するときには1%の取得税がむしろ50%割引かれ、0.5%となる。

所有している家を売るときの譲渡税も大幅に値上がりした。不動産規制地域のアパートを購入後、1年以内に売却する場合70%、2年以内は税金が60%となる。例えば3億ウォンのアパートを購入後、4億ウォンで売却すると、1億ウォンの利益がでるが、1年以内に売却すると7000万ウォン、2年以内は6000万ウォンを譲渡税として支払う。アパートを購入して利益を得る行為自體を取り締まるためだ。

家を所有しているために払う税金の総合不動産税(総不税)も値上がった。調整對象地域内の2住宅者が所有するアパートの合算市勢が20億ウォンの場合、総不税が568万ウォンから1487万ウォンに、30億ウォンの場合、1467万ウォンから3787万ウォンへと二倍の増加だ。家を2棟以上所有する人は早く売却しろという意味だ。1住宅者はこれよりはるかに少額の税金を払う。〈中國語 面、ベトナム語 面、日本語 面〉

ソン・ハソン記者

<한글 기사 25면>

05 Бэлгийн хүчирхийлэл ба хүчин болсон бол?

Бэлгийн хүчирхийлэл гэдэг нь? эсрэг талын бодлоос эсрэг хүч султайг ашиглан эсрэг талын бэлгийн өөрөө шийдэх эрхэнд халдсан буюу бэлгийн үйлдэл нэрийн утгаар бэлгийн хүчирхийлэлийн холбогдох хуулийн дагуу хохирол учруулсан эрүүгийн харууцлага хүлээгээс болох хүчин, хүчирхийлэл хэргийг хэлнэ

Тусуудын үед эсрэг талын бэлгийг үл хайрлан үйлдэл хийсэн бэл хүч эсрэг талыг хүчин, эрүүгийн хүчиндээс ялгаж байна

Хүчин бэлгийн хүчирхийлэлт бэлгийн дарамт ойлголтуудыг ялгахгүй байна үү?

- 1. Хүчин: хүчингийн төрлийн нэг ба хүчин ба хүчиндэхийг зөвдөрөнгө хэлнэ
2. Бэлгийн хүчирхийлэл: эсрэг талын бодлын эсрэг бэлгийн ингүүртэй байдал ба үзэн ядах мэдрэмж төрүүлэх бэлгийн үйлдэл ба гэр бүлээс гадуур завхайрах үүрээс бусад бэлгийн хохирол үзүүлэх үйлдэл(аюул ба заналхийлсэн бол албадсан бэлгийн н хүчирхийлэл)
3. Бэлгийн дарамт: үйлдэл бэлгийн үг яриа хөдөлгөөн эсрэгээр хохирогчид бэлгийн гутаамшиг мэдрэмж, үзэн ядах мэдрэмжийг төрүүлсэн буюу үйлдэл ба ажил дээрхи бэлгийн дарамт нь голдуу ажил, ажил эрхлэхэд эрх мэдлийн ялгаанаас үүсдэг



Гадаад ажилчин ажиллуулах тухай хууль 13дугаар зүйл, 15дугаар зүйл, 23дугаар зүйлд үндэслэн E-9, H-2 визтэй гадаад ажилчин бол заавал хамрагдах ёстой даатгал

Гадаад ажилчин хамрагдах даатгал

Table with 3 columns: Инжилт, Ослын даатгал, Нутаг буцах даатгал (Итгэмжлэл). Rows include: зорилго, хамрагдагч, хамрагдах компани, хамрагдахгүй компани, даатгуулагч болон төлбөр авагч, даатгалын нөхөн төлбөр олгох шалтгаан, даатгалын нөхөн төлбөр зүсэх үйл явц.

6-3 13дах сарын цалингийн даатгал

13дах сарын цалингийн даатгал гэдэг нь? гадаад ажилчин ажлаас гарах мөнгөний зориулалтаар ажил олгогч тогтоод даатгал ба ажлаас гарахад гадаад ажилчин ажил олгогчоос ажлаас гарах мөнгө ба 13дах сарын цалингийн зөрүүг олгох даатгалын нөхөн төлбөр

13дах сарын цалингийн нөхөн төлбөр олгоноос улсад олгох болохгүй учир буцахдаа гадаад шилжүүлэг ба онгоцны буудлаас хүлээн авна(200с дээш компанид ажилласан бол тус тус үүсэх 13дах сарын цалингийн нөхөн төлбөрийг бүтэйд нь буцахдаа хамт хүлээн авна)

Төлөөс дээш ажилласан бол, 13дах сарын цалин үүсэхгүй учир тус даатгалын нөхөн төлбөр авах эрх ажил олгогчид байна

Баталгаа гаргах агуулга (олгох хувь) дараахтай адил

Table with 2 columns: Төлөөс дээш, Үндсэн мөнгө. Rows: 12сарын дараа, 12сарын дараа, 24сарын дараа, 36сарын дараа, 48сарын дараа.



Дарлах үйлдлүүдийг хүчингээс сэргийлээрэй

- Гэр үлгэсн төвштүүрэн 0 дугаар тэмт хэргийг мэдэгдэх ба 112 дугаар яаралтай үед ашиглана
-орой удах шөнийн цагаар гарахаас зайлсхийж, гэрэх шаардлагатай бол тандар хүмүүсээс утга авчиггүйх
-танхгүй өөр хүн найрсагаар машинд суухыг уриалал суухгүй байх
-хавтга цэнгэр сайн хах, хахны тусба зэргээр дамжин орж ирэхээс хамгаалан төмөр хаалт хийх
-бэлдгээтэй машин зогсоолын газар (эмэгтэй хүний зориулалтын) машин зогсоолын ажилчин байртай байдаг, камертай зэрэг
-танхид суухад танхгүй хүнтэй хамт суухгүй байх

Хүчингийн хэрэг гарсан бол дараахтай адил эрх хэмжээ авна үү

- хүчин гарсан бол аюулгүй газар руу зүүлэх
-дэрийг шатаах мэдэгдэх
-цагаан эмэгтэйнүүдэд шуухай туслах төв (☎ 1577-1366), эмэгтэйнүүдийн парралтай үгас (☎ 1366) дээрх газруудаас тусламж хүсэх
-хохирол учирсан бол нотлох баримт үндэсхийн тулд утгах ба хувираах солых өмчлөлийг зөвшөөрж хмуу цагдаагийн газар очиж нотлох баримтыг цагаан үүгэнд каталах

6-1 Өгөөгүй цалинг баталгаажуулах даатгал

Өгөөгүй цалинг баталгаажуулах даатгал гэдэг нь? 13дах сарын цалин ба цалин авч чадаагүй бол ажил олгогч заавал хамрагдах өгөөгүй цалин баталгаажуулах даатгалтаар дамжуулан нөхөн төлбөр олгоно

Даатгалын баталгаа нь дараахтай адил: 20ая воны хязгаар дотор өгөөгүй мөнгөн хэмжээ 13дах сарын даатгал нь 13дах сарын цалингийн даатгалын нөхөн төлбөр авсан хэмжээний зөрүүг олгоно

Хүсэлт гаргах өгч дараахтай адил: Мөнгө олгоогүйг батлах бичгийг аваад даатгалын нөхөн төлбөр нэхэмжлэнэ үү

Харьяа зөв баруулан гарсан хөдөлмөрийн нөхцөл байгуулалт (дарлах, хэсэгт ажил олгогчид өмчлөх) гарсна бичгийг батлах бичиг

Саяу баталгааны даатгал, урьдчилсан ажилчингүй даатгалын нөхөн төлбөр нэхэмжлэнэ

Дарлах бичиг: даатгалын нөхөн төлбөрийн ажилт 1хувь, баявны дэргэйн хуульч/баруулагч нар дээр) 1хувь
Баримт баруулагч: бичгийн байцаалт (паспорт эсвэл гадаад иргэний үнэмлэх) хуульч 1 хувь, мөнгө олгоогүйг батлах бичиг(ажил эрхлэлт хөдөлмөрийн яамнаас гаргана) 1хувь, бусад нөхөн төлбөр шалгах үед нэмэлт хэрэгтэй бичиг баримт

13дах сарын цалингийн даатгалын нөхөн төлбөрийг нэмж нэхэмжлэнэ онгоцны буудал дээр салбартай банкныг урьдчилан сонгоод тухай банкнод биеэр очиж валют солих харилцагч банк болгох хусалт гаргана

Урьдчилан буудал дээр салбартай банк: (Ийнхүү онгоцны буудал) Шинжон банк, Ханя банк, Урн банк (Ийнхүү онгоцны буудал) Шинжон банк

Бурдүүлэх материал

Даатгалын компанид даатгалын нөхөн төлбөрөө утсаар зориулсан гаргасны дараа "даатгалын нөхөн төлбөр олгох бичиг" гаргана. Даатгалын нөхөн төлбөр олгох бичигт даатгалын нөхөн төлбөрийн ажилт буцах тухай мэдэгдэл, гадаад иргэний үнэмлэхийг хуульч, паспортны хуульч, буцах өдөр паспорт, онгоцны тийз, даатгалын нөхөн төлбөр олгох бичиг авчирсан сонгоосон онгоцны буудалд байрлах банкны салбарт очиж "валют хүлээн авах бичиг" авна. Эхлэл нэвтрэх шалтгаан дараа татваргүй бүсийн валютсолих цэрт "валют хүлээн авах бичиг"ийг өгч валют мөнгө хүлээн авна.

Зориулалтын даатгалын компанид даатгалын төлбөрийг утсаар нэхэмжлэнэ. даатгалын төлбөр хураах бичиг баримт, даатгалын нөхөн төлбөрийн ажилт буцах тухай мэдэгдэл, гадаад иргэний үнэмлэхийг хуульч, паспортны хуульч авах арга тус бүрийн нэмэлт бичиг баримт тухай орны дансанд шилжүүлэх тусгай орны дансанд шилжүүлэх тусгай орны банк руу шууд шилжүүлэх, нэмэлт материалгүй гадаад шилжүүлгийн зориулалтын данс, валют солих харилцагч банк

Буцах тухай мэдэгдэлгүй бичиг: ажилт хөдөлгөөн ба орны суух хувираа дуусгаар болж буцах гэж байгаа бол ажилчин буцах гэр өгдөөс 1сарын өмнөх өдрөөс эхлэн хөдөлмөрийн бичигд буцах тухай мэдэгдэл гаргана гаргасны дараа буцах тухай бичиг авна

06 Гадаад ажилчны зориулалтын даатгалыг бүү мартаарай!

Гадаад ажилчны зориулалтын даатгал гэдэг нь?

Ажил олгогч хамрагдах даатгал

Table with 3 columns: Инжилт, Өгөөгүй цалингийн баталгааны даатгал, 13дах сарын цалингийн даатгал (Итгэмжлэл). Rows include: зорилго, хамрагдагч, хамрагдах компани, хамрагдахгүй компани, даатгуулагч болон төлбөр авагч, даатгалын нөхөн төлбөр олгох шалтгаан, даатгалын нөхөн төлбөр зүсэх үйл явц.

6-2 Ослын даатгал

Ослын даатгал гэдэг нь? -Ослын даатгал нь ажлын ослоос бусад нас барах ба өвчин гадаад ажилчин хамрагдах даатгал

Баталгаа гаргах агуулга дараахтай адил: ажлын ослоос бусад осол ба нас барах, хөдөлмөрийн чадвар алдах хамгийн дээд тал нь 30сар вон*

Ажлын ослоос бусад өвчин ба нас барах, өндөр хэмжээний хөдөлмөрийн чадвар алдалт дээд тал нь 15сар вон**

Дарлах бичиг: баримтын баруулагч хуульч гаргана

Мас баруулагч бол: Даатгалын нөхөн төлбөрийн ажилт 1.Нас барсан тухай дүнхэл буюу эмгэгийн тусламжтай паспорт, гадаад иргэний үнэмлэхийг хуульч, нэвтрүүлэгч буюу үндэслэл ажилт хэл дээр, Монгол улсын төрийн байгууллагаас олгосон хуульч авч эв загварчлалын тусламжтай ажилт хэл дээр/төрийн төр засаг буюу гэрээний лавлагааг авчиргана. 2.Гэр бүлийн хөдөлгөөний гэрээнд 3.эв загварчлалын бичгийн байцаалтын хуульч/үс бүрийн эв загварчлалын хуульч дагуу эв загварчлал бүхий бичиг байдалт ба паспортны хуульч (Бичгийн байцаалт урьдчилан үрд хойт талын хуульч эрхлэлт) 5.Төлөөлөн эв загварчлалын тусламж итгэмжлэх үс бүрийн хуульч дагуу эв загварчлалын дэргэс төлөөлөн эв загварчлалын 1 хувийг тогтооно 6.Төлөөлөн эв загварчлалын баявны дэргэйн хуульч/тухайн орны хэл дээр байсан ажилч орнуудна 7.ослыг шалгах итгэмжлэх

1. Даатгалын нөхөн төлбөрийн ажилт 2. Бичгийн байцаалтын хуульч/ паспорт эхлэл гаргал иргэний үнэмлэх хуульч 1 хувь 3. Хөдөлмөрийн чадвар алдсан эмгэгийн тусламжтай

6-4 Нутаг буцах зардлын даатгалын нөхөн төлбөр

Нутаг буцах зардлын даатгал гэдэг нь? гадаад иргэн буцахад хэрэгтэй зардлыг бэлтгэх даатгалын төлбөр

Баталгааны агуулга (олгох хувь) анх төлсөн өдрөөс 17.7.15 хойш хамрагдагчид хамаарна)

Table with 2 columns: Төлөөс дээш, Үндсэн мөнгө. Rows: 12сарын дараа, 12сарын дараа, 24сарын дараа, 36сарын дараа, 48сарын дараа.

Буцах зардлын даатгалын нөхөн төлбөрийг нэмж нэхэмжлэнэ Самсунг гал түймэр далайн даатгалын лавлах төвд утсаар хусалт гаргана Бурдүүлэх бичиг баримт

Даатгалын үндсэн бичиг баримт Гадаад шилжүүлгийн зориулалтын дансанд шилжүүлэх материал

Даатгалын нөхөн төлбөрийн ажилт -Өөрийн нэрийн банкны дэвтэр -Өөрийг батлах банкны баримт паспорт ба гадаад иргэний үнэмлэх Буцах тухай бичиг валют солих харилцагч банк болгох бичиг паспорт

'마음건강키트' 마음을 어루만지다

코로나19 극복 위한 심리지원 캠페인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코로나19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가격리자에 대한 심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마음건강키트를 배부하고 있다. 시흥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시흥시는 자가격리자가 별도의 격리공간 안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 무기력감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키트를 제작했으며, 지난 4월부터 관내 자가격리자 물품지원시 함께 배부하며 심리적 방역 활동을 강화해왔다.

마음건강키트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얼음깨기 보드게임 ▲스트레스 불과 심신을 안정시켜줄 수 있는 쉼

링북세트, 콩나물재배기 ▲심리적 어려움을 도움 받을 수 있는 정보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격리중인 시민들이 마음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자가격리를 하던 정왕동 주민 김00(남, 37세)님은 “집에 있기만 하니까 답답한데 콩나물 기르는 재미가 쏠쏠하고 반찬도 해먹었다”며 즐거워했고, 매화동 주민 이00(여, 26세)님은 “스트레스 불이 촉감도 좋고, 마음대로 던져도 안전해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됐다”고 말했다.

시흥시보건소 관계자는 “마음건강키트가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지친 시민들의 마음건강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불안, 우울감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시민이라면 언제든지 상담 받을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031-316-6661)로 전화하거나 센터 홈페이지(www.shsmhc.or.kr)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이지는 기자

온라인 수업 중도입국청소년 교육 만족도 ↑

시흥외복, 다양한 사업 맞춤형교육 진행



온라인 수업 과목으로는 ‘한국어’, ‘진로상담’, ‘미술’ 등을 진행 중이며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다.

‘한국어 수업’은 입문/초급/중급반으로 나누어 수준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진로상담’은 개인 상담을 비롯해 가정에서도 손쉽게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미술 수업’은 만들기 위주로 수업에 재미를 주어 수강생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수업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학업 공백을 채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이중교 센터장)는 중도입국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대면 수업이 어려워지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해하고 있을 학교 밖 중도입국 청소년을 위해 가정에서 쉽고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진행해 코로나19 여파를 극복할 예정이다. 이지는 기자

2020년 다양한 가족 행복사례 발굴 공모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가족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에세이와 UCC」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참가 자격 : 에세이 | 다양한 가족(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재혼가족, 데탕트 가족, 1인가구 등)
UCC | 한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

주제 : 1. 다양한 가족으로 다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야기
2. 생활 속에서 겪은 편견
3. 가족다양성 인의개인 중 공모전 취지에 적합한 주제

공모 기간 : 2020.06.08. ~ 08.08

공모 방법 : 이름, 나이, 연락처, 공모전 작품(에세이 또는 UCC)을 다음의 메일주소로 보내주세요.
theseserv.ucc@gmail.com (※ 별도의 양식 없음)
· 에세이 | 한글 또는 워드 작성 하여 워드 파일로 제출(본문 글꼴 : 바탕, 크기 10포인트 / A4 [10*14])
· UCC | 5분 이내의 동영상 제작하여 워드 파일로 제출

시상 내역 (총 6,400,000원)

대상	우수상		佳作	
	에세이 1명	상금 1,000,000원	에세이 1명	상금 400,000원
佳作상	UCC 1명	상금 1,000,000원	UCC 1명	상금 400,000원
	에세이 1명	상금 800,000원	佳作	상금 250,000원
	UCC 1명	상금 800,000원	佳作	상금 100,000원

유의 사항 : 1. 1인 1작품만 송부가능
2. 허위사실 표절, 기 발표작은 수상권 및 법적 책임은 송모자 본인에 있음.
3. 상금 수상에 따른 계좌공과금은 수상자 본인 부담
4. 수상자에 한해 추가적인 개인정보 확인과 중병 필수.
5. 공모전은 반환하지 않음.
6. 당선작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아시아문화연구원·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귀속됨.

문의 | 공모전 운영사무국 031-243-7688

찾아가는 보육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와 함께 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다자녀 등 만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종류

시간제 서비스	종일제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제공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시보육 및 놀이활동 * 학교,보육시설 등-하원 * 준비된 간식 챙겨주기 - 시간당 9,890원 * 정부지원 유형별 요금 자동 지원 * 연 720시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3개월 ~ 만36개월 이하 영아 - 제공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유식 먹이기 * 기저귀 갈기 * 젖병소독 * 목욕 등 - 시간당 9,890원 * 정부지원 유형별 요금 자동 지원 * 월 최대 200시간 지원

질병감염 아동지원

- 전염성, 유전형 질병에 의해 아동의 가정 양육이 필요한 경우 제공
- 시간당 11,860원
- * 증명서류 제출시 정부지원 50% 적용

일시 연계 서비스

서비스제공기관이 운영하지 않는 **야간 및 준야간**에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보미 선생님께 직접 서비스를 신청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서비스

- * 6월 중순 오픈 예정
- * 아이돌봄서비스 앱 설치 필요 (앱스도어, 플레이스도어 검색하여 설치)

신청 방법

정부지원 신청	국민행복 카드 발급	홈페이지 회원가입	서비스 신청 및 대기
아이돌보미 연계	이용료 사전 결제	서비스 이용	모니터링 실시

• 홈페이지 이용자명, 정부지원 신청자명, 국민행복카드 명의가 동일해야 합니다.
• 회원가입 후 정회원승인 및 이용시간 파악을 위해 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031-317-4516(선택번호 1번)
▶ 홈페이지 : <https://idolbom.go.kr>

여성가족부 | 서울특별시 경기도 | 시흥시 | 여성가족부 | 시흥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이 하는 아동성폭력예방, 인형극으로 배우고 함께해요”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아동성폭력예방 인형극 자조모임 운영



“안돼요~, 싫어요~, 가지마!”

어린이집에서는 아이들의 함성이 우렁차게 들렸다. 아동성폭력예방 인형극에 흠뻑 빠진 아이들이 한목소리로 내는 소리다. 아이들은 인형극의 주인공처럼 나쁜 사람의 등장에 마치 위험에 빠진 친구를 구하려는 듯 “안돼요~, 싫어요~”를 이구동성으로 힘을 합쳐 외쳤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2018년부터 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와 함께 결혼이민자 대상으로 아동성폭력예방 인형극 자조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조모임을 결성하여 부천시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대상으로 아동성폭력예방과 관련한 인형극 공연을 자원봉사로 진행해오고 있다. 2019년에는 부천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과 초등학교 비롯해 11개 기관에서 공연했다.

아동성폭력예방 인형극은 학교폭력예방, 성폭력예방 등 아동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주제를 담아,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어린이의 몸과 마음의 소중함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아동성폭력예방 인형극이 아동들의 관심을 끌고 호응이 좋은 것은 신나고 재밌게, 때로는 진짜 위험에 빠진 듯 실감 나게 연기해주는 6명의 결혼이민자의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

인형극 자조모임을 이끄는 6명의 결혼이민자가 자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회적 책임감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연습한 끝에 이루어낸 성과이다.

“지금 공연을 하면서 우리 딸이 생각난다!”, “우리 아

들이 학교에서 흑시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 어찌지?” 인형극에 참여한 여섯 명의 결혼이민자는 자신의 자녀를 생각하며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아동성폭력예방 인형극 자조모임을 결성하게 됐다.

아동성폭력예방 인형극 공연을 통해 아이들에게 나쁜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처 방법과 어릴 때부터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람으로 오늘도 연습 삼매경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공연이 연기되고 있지만 6명의 결혼이민자는 각자 가정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더 원활한 봉사활동과 아이들에게 멋진 공연을 보여줄 수 있도록 좀 더 철저한 공연을 준비하며 아이들과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더 많은 사람이 아동의 권리와 안전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아동성폭력예방 인형극 자조모임을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동성폭력예방 인형극 자조모임에서는 신입 인형극 자조모임 봉사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김영의 기자

[规划 2] 7. 10房地产对策, 对多住宅者是税金炸弹...对无住宅者是容易购房的政策

最近随着公寓价格的急剧上涨, 没有公寓的人们纷纷表示不满。2年前, 在京畿道的一个城市贷款2亿韩元购买3亿韩元公寓的人, 在2年内房价上涨到4亿5千万韩元, 赚了1亿5千万韩元。如果在首尔购买公寓, 价格上涨幅度更大, 赚3亿韩元以上的人比比皆是。就算努力工作也挣不到这些大笔钱。2年前用3亿韩元能买到的房子, 现在要用4亿5千万韩元才能买到, 故无房户的苦恼也越来越大。特别是在首尔, 公寓价格持续上涨, 位置好的地区超过了9亿韩元, 不好的地区也很难找到4亿韩元以下的公寓。对于最近房地产价格暴涨, 没有公寓的市民们纷纷提出抗议, 因此政府推出了多种对策。让我们来看看7月10日出台的政府对策。

无房者购房容易

政府的此次对策可概括为2种方向, 第一是如果一个人拥有多套公寓, 将征收巨额税金, 第二是尚未购买公寓的人更容易购买公寓。

首先, 政府决定在民办建筑公司建筑的民营住宅认购中新设“生平首次特别供应”, 放宽新婚夫妇可申请特别供应

的收入标准。

特别供应是指, 为生平首次购买住宅者或新婚夫妇、多子女、抚养老父母家庭等提供住房的制度。投机过热地区内价格超过9亿韩元的公寓将被排除在外, 只适用于85平方米以下的小型户型。 民营住宅目前需要特别供应的比率为新婚夫妇20%、多子女10%、机构10%、老父母抚养3%等共43%。 在此基础上, 将新安排7-15%的生平首次特别供应货量。

如果当地居民中未成年子女较多, 新婚夫妇特别供应对象将得到优先考虑。有传闻说, 如果是无子女或独生子女家庭中奖可能性很小。

当你买房子的时候, 如何进行贷款?

无住宅平民要想购买公寓, 必须得到贷款。因为, 如果拥有很多现金的人才能购买公寓, 这是不合理的。可是, 有钱人也在利用贷款购买3套以上公寓, 故公寓价格再次上涨。对此, 政府把房地产交易活跃的地区划分为投机过热地区、调整对象地区等并制定购买该地区公寓时减少抵押贷款金额的政策。

于是, 这次出现了无住宅平民也无法

购买公寓的副作用。对此政府于7月10日发布的政策中包括了对无房户购房时增加其贷款幅度的政策(放宽了住宅担保贷款比率(LTV)和总负债偿还比率(DTI))。

被指定为投机过热地区的水原市、河内市和龙仁市、安山市、南杨州市、高阳市等部分京畿道地区只能得到公寓购够价格40%的贷款。在被指定为调整对象地区可以得到购房价格50%的贷款。但无无房户平民在此标准再加上10%的贷款。多文化家庭一定要查看好自己想购买公寓的地区是否被指定为此类地区。因为了解清楚才能知道购房时可以贷款多少钱。

多住宅姿态税炸弹

因为此次房地产对策, 拥有2套以上住宅的人将缴纳很多税金。购买住宅时, 要向地方自治团体交纳使用税, 与住宅价格无关, 2住宅一代和3住宅以上一代分别要交纳8%和12%的使用税。如果在拥有一套房子的情况下再购买3亿韩元的房子, 仅购买税就需要缴纳2400万韩元。无住宅平民在购买住宅时, 将1%的使用税反而减少50%, 只交纳

0.5%。

拥有房子后在出售时缴纳的转让税也大幅上涨。 在房地产限制地区购买公寓后, 如果在不到1年的情况下再次出售, 就要交纳70%的税金, 如果在不到2年的情况下出售, 就要交纳60%的税金。 例如, 购买3亿韩元的公寓后, 如果以4亿韩元出售, 就会得到1亿韩元的市价差。如果在1年内出售, 就要交纳7000万韩元, 如果在2年内出售, 就要交纳6000万韩元的转让税。 也就是说, 要阻止购买公寓赚取利润的行为本身。

由于拥有住宅而缴纳的综合房地产税(综房税)也有所上涨。 调整对象地区内的2住宅拥有者拥有的公寓的合计市价为20亿韩元时, 综合房地产税将从568万韩元增加到1487万韩元; 30亿韩元时, 综合房地产税将从1467万韩元增加到3787万韩元, 增加两倍以上。由此可见, 拥有2套以上住宅的人让其尽快出售。拥有 1套房时则缴纳的税金要比拥有多套房时少得多。

<한글 기사 25면>

翻译人: 金姬善

다문화가족, '희망부천4500'으로 코로나19 극복!

부천시, 오는 20일까지 행정복지센터나 워크넷에서 접수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이라면 부천시(시장 장덕천, 사진 왼쪽)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일자리사업 '희망부천4500'에 참여해 보자. '희망부천4500'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서 취약계층 등에게 공공일 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참여자 4,500명을 오는 20일까지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생활방역 지원 ▲청년 지원 ▲재해 예방 ▲공공 휴식공간 개선 ▲공공업무 긴급지원 등 5개다. 참여자는

각 분야 사업부서에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배치된다.

신청 대상은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근로 능력이 있는 자로, 지역 경제 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부천시민이다.

관심 있는 시민은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워크넷 홈페이지(www.work.go.kr)에 신청서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에는 부천시 홈페이지 내 온라인 신청 경로 바로가기 아이콘이 생성되어 쉽

게 접속할 수 있다.

사업 참여자에게는 시급 8,590원과 주.연차수당, 4대 보험가입이 지원된다. 근로시간은 65세 미만은 주 20~30시간, 65세 이상은 주 15시간이다.

부천시는 신청자의 자격 심사를 거쳐 오는 8월 초 참여자를 확정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대상자에게 부천시 및 관련 기관의 채용박람회, 취업 알선 등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개인에 역량에 적합한 민간 일자리를 연결해 줄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일반공고나 공공일자리아사업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부천시 전화상담실(032-320-3000)이나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032-625-2711~14)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부천시민의 세계시민의식, '한 줄 시로 보여주세요!'

부천시평생학습센터는 부천시민의 세계시민의식 향상을 위해 제1차 온라인 '한 줄 시' 캠페인을 진행한다.

세계시민의식이란 이웃의 발견, 더불어 사는 삶, 다름의 이해 등 지구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인권 의식과 실천을 뜻한다. 부천시민이라면 누구나 세계시민의식의 개념과 필요성을 주제로 한 '한 줄 시'를 적어 오는 26일까지 온라인으로 응모할 수 있다. 비대면 문화의 확산에 따라 시민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응모작 현황 ▲시민투표 결과 ▲전문가 심사 결과 ▲선정작 등 모든 과정을 페이스북,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8월 중 온라인 시민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총 11개의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최대 2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김영의 기자

언어쑥쑥!!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교실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연령수준에 맞는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발달 수준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언어교육이 필요한 아동에게 무료로 언어교육을 제공하는 다문화 언어발달교실을 운영합니다.

- 서비스명**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서비스
- 기간** 연중 수시 모집
- 대상** 다문화가족자녀, 외국인 자녀, 북한이탈주민 자녀(생후 30개월~만12세 미만)
- 장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내 언어발달교실(2층)
외부기관(보육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경우 「교육아동 2명 이상」 지원 가능
※가정방문 불가능

준비서류 및 서비스 절차

-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 : 주민등록등본(결혼이민자가 등본상 기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와 외국인등록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여권사본
- 외국인가족(외국인근로자, 외국인유학생, 재외동포, 난민 등): 외국인등록증 또는 거주신고증
- 북한이탈주민가족: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선택) 부모가 사실혼 관계 등에 있는 경우,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출생증명서 구비

1. 서비스신청	전화 및 내방 문의 → 평가 일정 확정
2. 초기면담 및 평가	평가(정성발달 시 종료) → 대기 및 교육시작
3. 교육진행	주 2회, 회당 40분 교육 원칙(1회 6개월 진행)
4. 진전 및 종료평가	6개월 이상 교육 아동 → 진전평가 실시 → 결과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연장 최대 3회 가능, 최대 교육기간 2년)
5. 만족도조사 및 사후관리	언어교육서비스 종료 시 만족도조사 실시 사후상담 및 평가 실시

● 현재 교육을 진행 및 대기하고 있는 아동이 많은 관계로 언어발달교육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우처, 방문교육 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자의 경우 언어발달서비스를 중복지원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청 및 문의 | 평일 오전9시~오후6시
경기도 부천시 조중로 68번가길 4
Tel) 070-4457-6168~9

여성가족부지원·경기도·부천시위탁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Bucheonsi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동번역서비스 제공합니다

다문화가족의 한국생활습관, 언어, 문화 차이로 인한 어려움을 해결하여 행복한 가정 및 사회생활 지원

서비스대상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기관
서비스방법	니번, 전화, 출장, 이메일 등
서비스언어	중국어, 베트남어
서비스기간	1월 ~ 12월
서비스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초기 생활 및 정보 제공 • 가족간 의사소통 지원 및 상담, 모친 시, 괴구 병역 • 행정 기관 관련 비용 지원 • 위기 상황 시 긴급지원 등 • 브랜딩, 후원 전략 등이 필요한 분야 • 결혼 이민자 자녀 유치원 입학 상담, 출생등록 • 양육 상담, 구직 상담 등
신청방법	전화, 방문 또는 내방 신청서 작성 ☎ 070-4457-0106 (중국어) ☎ 070-4457-6107 (베트남어) ☎ 팩스번호 : 002-025-1571
주소	• 부천시 조중로68번가길 4 (원미동) • 대성교동 3동 111번지 ☎ 070-4457-0106 (중국어) ☎ 070-4457-6107 (베트남어) ☎ 팩스번호 : 002-025-1571

부천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Bucheonsi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코로나19 다문화가족의 슬기로운 일상에 도움 될 부천 정보

부천시, 시민들이 건강 지키며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다문화가족을 비롯한 부천시민들의 일상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을 지키면서 일상을 슬기롭고 즐겁게 지내는 것이 필요하다.

#부천시립도서관, 도서방문 대출서비스 재개

부천시는 지난 7월 13일부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임시 휴관했던 시립도서관과 직영 작은도서관을 부분 개관한다.

부천시는 지난 1일부터 '도서 예약대출 서비스'를 운영하며 이용률 분석, 의견 수렴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이 안전하게 지식 정보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상했다. 지난 13일부터는 직접 도서관에 방문해서 책을 대출할 수 있는 '도서방문 대출서비

스'를 재개한다. 이에 시립도서관과 직영 작은도서관은 시민이 불편함 없이 도서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한 이용자 입·출입 관리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도서관에 방문하는 시민은 발열 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도서관 관내 열람을 위한 이용은 제한된다.

방문대출서비스는 월~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는 휴관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시립도서관 홈페이지(www.bcl.go.kr)나 상동도서관(032-625-4700) 또는 원미도서관(032-625-473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워킹 부모와 자녀 관계개선 '위라벨 집콕생활'

부천시여성회관은 워킹 부모와 자녀의 관계개선을 위한 <위라벨집콕생활> 참가자를 추가 모집한다. <위라벨집콕생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장생활과 자녀 돌봄을 병행하는 워

킹 부모의 스트레스 해소와 자녀와 관계 개선 지원 프로그램이다.

<위라벨집콕생활>은 중등 이하 자녀를 둔 워킹 부모가 코로나19로 힘든 가족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제출하면 공기청정 반려식물이나 방울토마토, 허브 등 채소를 활동자료와 함께 각 가정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부천시여성회관에 따르면 '위라벨 집콕생활'1차 참여자 모집(80명)이 2시간 만에 마감되었다. 추가모집 정원은 40명이며, 선착순 신청(http://naver.me/5jWbgHoY) 받는다.

#부천, 무인택배보관함 10개소 확대 설치

부천시가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10개소를 지난 7월 1일 추가 설치하며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앞장선다.

부천시는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장보기 활성화, 재택 시간 증가 등 택배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세대·원룸이 밀집한 원도심 지역을 우선으로 무인택배보관함을 확대했다.

이번에 설치된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은 역곡3 주민지원센터, 소사본3 주민

지원센터, 상동도서관, 시민의 강 제1공영주차장, 강남시장 공영주차장, 약대 주민지원센터, 원종2 주민지원센터, 성곡동행정복지센터, 고강1 주민지원센터, 부천노동복지회관 등 10개소다.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 7월 신규 개원

부천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공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7월 국공립어린이집 2개소를 신규 개원했다.

이번에 신규 개원한 중동센트럴파크어린이집과 이편한온수어린이집은 2019년 9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내에 의무적으로 설치한 1·2호 어린이집이다.

부천시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상동하늘꿈어린이집, 중동해링턴어린이집, 이편한심곡어린이집, 아침햇살어린이집 등 4개소를 신규설치하여 정원 149명을 확보했다. 이번 신규 개원에 따라 146명의 국공립 정원을 추가 확보하며 2018년 6월 말 10.2%였던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14.0%로 대폭 증가했다.

한편, 부천시는 올해 상반기 신규 확충된 6개소를 포함하여 총 5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다.

김영의 기자

Защита прав иностранцев по Кёнгидо, помощь проще получить онлайн.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прав иностранцев в Кёнгидо в преддверии посткороны, создал "Онлайн систему подачи петиции".

Центром поддержки прав иностранцев в Кёнгидо (главный директор О Гёнг Сок) 13-го числа было объявлено о том, что в преддверии посткоронной эпохи, бала создана и запущена "Онлайн система подачи петици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могли заявить о своих правах в любое время и в любом месте.

Эта мера позволяет, с учётом ситуаци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Корона 19, более удобно получить помощь от центра без ограничений по времени и месту, путём введения метода удалённого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я онлайн, без контактирования.

С мая месяца Центр защиты прав иностранцев начал продвигать работу над страницей подачи петиции, переводом, расширением сервиса, в итоге была создана "Онлайн система подачи и петиции".

Иностранные жители, которые нуждаются в помощи, могут подать петицию на веб-сайте Центра (www.gmhr.or.kr), кликнуть столбец «Петиция», ввести простую информацию, такую как имя и контактный номер телефона и далее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о нарушении прав человека.

Любой иностранец, проживающий на территории Кёнгидо, чьи права были нарушены, или любой гражданин, который знает о таких случаях, может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правовую защиту свободно в любое время и в любом ме

сте с помощью компьютера или смартфона.

Поданная петиция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 центре личн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юристом по вопросам труда, работающим полный рабочий день, после чего по телефону или онлайн будет оказана помощь или подробн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Хонг Донг Ги, глава отдела внешней политики, сказал: "Благодаря открытию данной онлайн-системы облегчена доступность и удобство для иностранных резидентов, которые хотят защитить свои права" далее добавил: "В дальнейшем мы будем реализовывать и другие новые способы оказания помощи, такие как консультации в прямом эфире."

Центр поддержки прав иностранцев

в в Кёнгидо - это организация, занимающаяся политикой в области прав иностранцев, созданная и действующая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основных прав иностранных жителей в провинции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Указом о поддержке прав человека в Кёнгид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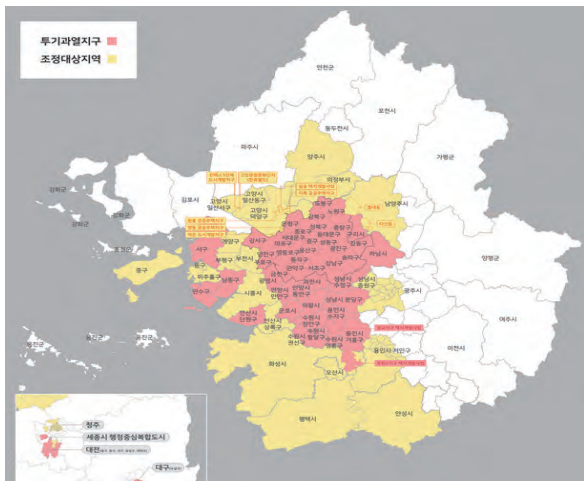
В частности, на 7-х гражданских выборах, для того, чтобы реализовать обещание «Кёнги для всех без дискриминации прав человека», чтобы выполнить это обязательство, мы продвигаем различные проекты начиная с поддержки защиты прав в отношении правонарушений в сфере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ы, несчастных случаев на производстве, несправедливого увольнения и дискриминации и т. д. и другие проекты.

<한글 기사 10면>

[기획2] 한국의 부동산 광풍, 다문화가족은 어떻게?

7.10부동산대책, 다주택자에게는 세금 폭탄... 무주택자는 구입 쉽게

아파트 구입 원하는 다문화가족, 청약통장 개설하고 특별공급 받기 계획 세워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자 아파트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2년 전 경기도의 한 도시에 2억원을 대출받아 3억원 짜리 아파트를 산 사람은 2년 만에 집값이 4억 5천만원으로 올라 1억 5천만원을 벌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샀다면 가격 상승폭은 더 커서 3억원 이상을 번 사람도 즐비하다. 직장을 열심히 다녀도 벌기 어려운 큰 돈을 번 것이다. 2년 전 3억원에 살 수 있었던 집을 지금은 4억 5천만원에 사야하는 사람들의 고민도 더 커졌다.

특히 서울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 위치가 좋은 곳은 9억원을 넘었고 좋지 않은 곳도 4억원 이하를 찾아보기 힘들다. 이처럼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에 대해 아파트를 갖지 못한 서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7월 10일에 나온 정부대책을 살펴보자.

무주택자 주택 구입 쉽게

정부의 이번 대책은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아파트를 가진 경우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물리고 아직 아파트를 사지 못한 사람들이 보다 쉽게 아파트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등 2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정부는 민간 건설사가 만드는 민영주택 청약에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있는 소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부양 가구 등을 위한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85㎡ 이하 소형 평형에만 적용된다. 민영주택은 현재 특별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신혼부부 20%,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모 부양 3% 등 총 43%다. 여기에 생애 최초 물량으로 7~15%를 새로 배정한다는 것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해당지역 거주자 중에서 미성년 자녀가 많으면 우선순위를 얻는다. 무자녀 혹은 1자녀일 경우 당첨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다.

주택 구입할 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이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대출을 받는 것이 필수다. 한꺼번에 많은 돈을 가진 사람만 아파트를 살 수 있다면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도 대출을 이용해 3채 이상의 아파트를 구입하고 이 때문에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르는 현상이 발생하자 정부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지정해 아파트 대출을 줄이는 정책을 썼다.

그러자 이번에는 무주택 서민들이 아파트를 구입할 수 없게 되는 부작용이 생겼고 7월 10일 정부 대책에서 무주택 서민들에 한해 대출을 조금 더 해주는 정책(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수원시, 하남시와 용인시, 안산시, 남양주시, 고양시 등의 일부 경기도 지역은 아파트

구입 가격의 40%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50%를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무주택 서민은 여기에서 10%씩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은 자신이 아파트를 사려고 하는 지역이 어떤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는지 꼭 살펴봐야 한다. 그래야 대출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다주택자 세금 폭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들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많은 세금을 내게 됐다. 집을 살 때는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내는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2주택 세대는 8%, 3주택 이상 세대는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집을 1채 갖고 있다가 추가로 3억원 짜리 집을 산다면 취득세로만 2400만원을 내야 한다. 무주택 서민이 집을 살 때는 1%인 취득세를 오히려 50% 깎아서 0.5%만 내도록 했다.

집을 갖고 있다가 팔 때 내는 양도세도 큰 폭으로 올랐다. 부동산 규제지역의 아파트를 산 뒤 1년이 안돼 다시 팔 경우 70%, 2년이 안돼 팔 경우에는 60%의 세금을 내도록 했다. 예를 들어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산 뒤 4억원에 판다면 1억원의 시세차익이 생기는데 1년 이내에 팔았다면 7000만원, 2년 이내에 팔았다면 60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아파트를 사서 이익을 남기는 행위 자체를 막겠다는 것이다.

집을 가졌기 때문에 내는 세금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올랐다.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가 가진 아파트의 합산 시세가 20억원인 경우 종부세가 568만원에서 1487만원으로, 30억원인 경우 1467만원에서 3787만원으로 두 배 넘게 증가한다. 집을 2채 이상 가진 사람은 빨리 팔라는 얘기다. 1주택자는 이보다 훨씬 적은 세금을 낸다.(중국어 24면, 베트남어 40면, 일본어 36면)

송하성 기자

“부천 기주 외국인 유학생의 인정적인 한국생활 정착 도와요”

서울신학대학교 국제교류원, 부천소사경찰서와 외국인 유학생 정착 지원 교육 실시



서울신학대학교 국제교류원(원장 임영택)은 지난 6월 24일 부천소사경찰서와 ‘외국인 유학생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및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Google Meet 프로그램으로 비대면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기초 질서’, ‘아르바이트’, ‘Q&A’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기초 질서’ 관련 교육 시간은 기본 도덕적 소양(길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노상 방뇨 금지, 침 뱉지 않기 등)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졌으며 ‘아르바이트’ 관련 교육 시간에는 유학생들이 타 국가인 한국에서 학비 동원을 위하여 종사 가능한 업종을 소개하고 불법 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였다.

Q&A 시간에는 유학생들이 준비한 질문에 답을 하며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이 경찰에 신고할 시 중국 신고번호 ‘110’과 대한민국 신고번호 ‘112’에 혼동이 오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신고번호 ‘112’를 강조하며 교육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제교류원과 부천 소사경찰서가 준비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며 살아갈 때 필요한 실용적인 정보와 위급상황에 대처하는 법 등을 교육함으로써 외국인 유학생들에게는 유익한 정보 소통의 시간이 되었다.

김영의 기자



2. 대한민국 통화와 물가

Mata uang dan Harga Barang di Republik Korea

다. 물가

Harga Barang

▶ 물가지수

Indeks Harga

◎ 소비자물가지수와 생산자물가지수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물가라는 것은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 뿐만 아니라 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산자 입장에서도 중요합니다. 물가가 너무 높으면 소비가 줄어들 것이고, 물가가 너무 낮으면 생산자 입장에서 낮은 가격에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이익이 줄어들어 생산이 위축됩니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물가지수 역시 소비자와 생산자의 관점에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는 소비자가 일상 생활에서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 변동을 조사한 것으로, 이를 통해 도시가계의 평균적인 생계비나 화폐 구매력 변동을 측정합니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38개 주요도시에서 매월 489개 상품 및 서비스 품목(상품 329개, 서비스 160개)의 가격을 조사하여 산출합니다.

◎ Berikut ini akan dijelaskan mengenai 'Indeks Harga Konsumen' dan 'Indeks Harga Produksi'.

'Harga Barang' tidak hanya penting bagi konsumen yang membeli barang, tetapi juga bagi produsen penyedia barang dan jasa. Harga barang yang terlalu tinggi dapat menurunkan tingkat konsumsi, dan harga barang yang terlalu rendah bagi produsen akan mengalami penurunan keuntungan karena terpaksa menjual barangnya dengan harga murah.

Dengan demikian, penentuan mengenai 'Indeks Harga Barang' haruslah disesuaikan dari sudut pandang konsumen maupun produsen.

Pertama-tama, Indeks Harga Konsumen (CPI, Consumer Price Index), yang dapat digunakan untuk meneliti perubahan harga baik barang maupun jasa yang dibeli oleh konsumen dalam kehidupan sehari-hari untuk mengetahui biaya hidup rata-rata rumah tangga di kota atau perubahan daya beli uang.

Indeks Harga Konsumen ditetapkan dari penelitian atas 489 jenis barang dan jasa (barang 329, jasa 160) yang dilaksanakan setiap bulannya di 38 kota besar di Korea termasuk Seoul.

▶ 공공요금

Biaya Fasilitas Umum

그럼 대한민국에서 생활에 필요한 기본 물품들의 가

격은 어느 정도일까요

Jika demikian, berapakah harga barang-barang keperluan dasar untuk kehidupan di Korea?

가계 생활에 가장 기초적인 소비항목으로는 도시가스, 전기, 수도 및 전철·버스·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생활 필수 항목의 가격 또는 요금을 결정할 때 ①전기 등의 중앙공공요금은 중앙정부에서, ②대중교통, 도시가스, 상·하수도과 같은 지방공공요금은 지방공공단체에서 직접 관여하고 있습니다.

Yang menjadi konsumsi paling dasar dari rumah tangga adalah gas, listrik, air, dan transportasi seperti subway, bus dan taksi. Di Korea Selatan, dalam menentukan biaya konsumsi dalam kehidupan seperti tersebut di atas ①untuk fasilitas dari pusat seperti listrik dll dikelola oleh pemerintah pusat, ②Transportasi

umum, gas kota, air bersih dan air kotor, dikelola secara langsung oleh lembaga umum di daerah.

①중앙공공요금 : 전기

전기 요금은 사용량이 많을수록 가격도 높아지는 누진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 일반, 산업, 교육, 농사, 가로등 등 용도별 기준에 따라 요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①Biaya Fasilitas Pusat : Listrik

Biaya pemakaian listrik menggunakan sistem pajak progresif, yang artinya biaya akan bertambah sesuai jika memakai listrik dalam jumlah besar. Biaya listrik juga terbagi menurut pemakaiannya, yaitu untuk perumahan, umum, bisnis, pendidikan, pertanian, penerang jalan, dan sebagainya.

②지방공공요금

대중교통, 도시가스, 수도 및 쓰레기봉투와 같은 공공요금은 자치단체 등의 지방공공단체가 관여하여 결정됩니다. 따라서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2015년 12월 기준 전체 시도의 평균지방공공요금입니다.

②Biaya Listrik Daerah

Biaya fasilitas umum seperti bus, gas kota, air, dan kantong sampah dikelola dan ditentukan oleh pemerintah daerah setempat. Karena itu biayanya berbeda-beda. Tabel berikut ini adalah daftar biaya fasilitas umum menurut daerah pada bulan Desember 2015.

[참고] 물가 및 지방공공요금 정보

각 지역별 지방 공공요금 및 생필품 물가정보는 한국 소비자자원 행정자치부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생필품 가격정보 : www.price.go.kr / 행정자치부 물가정보 : www.moi.go.kr

[Referensi] Informasi harga barang dan tagihan fasilitas umum lokal

Setiap perubahan harga barang komoditas dan informasi tagihan fasilitas umum lokal dapat dipantau melalui situs Badan Konsumen Korea dan Kementerian Pemerintah Administratif. Badan Konsumen Korea untuk informasi harga barang : www.price.go.kr / Departemen Pemerintah Administratif untuk informasi tagihan fasilitas umum : www.moi.go.kr

3.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

Sistem Jaminan Sosial Republik Korea

가. 대한민국의 사회보장제도

Sistem Jaminan Sosial Republik Korea

질병·노령·장애·빈곤 등의 문제는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업화로 인한 환경오염·산업재해·실직이나 대가족 제도의 해체로 인한 노인 부양 문제는 개인 차원을 넘어서 국가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는 이러한 사회적 위험과 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입법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집합적인 보장수단입니다.

Permasalahan sosial seperti penyakit, usia lanjut, cacat, kemiskinan dan sebagainya, sudah dialami oleh Korea bahkan sebelum terjadinya industrialisasi. Namun, karena industrialisasi menimbulkan permasalahan seperti polusi, kecelakaan industri, pengangguran, meningkatnya populasi lansia karena meningkatnya angka perceraian. Sehingga hal-hal tersebut dianggap sudah melampaui tingkat individu dan muncul sebagai masalah sosial yang menuntut intervensi pemerintah. Sistem Jaminan Sosial adalah tindakan yang dilindungi oleh undang-undang yang dibuat oleh pemerintah untuk mencegah terjadinya permasalahan sosial dan finansial masyarakat seperti yang telah disebutkan di atas.

1960년대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역사는 시대의 요구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1960년대 산업재해보험(이하 산재보험), 1970년대 국민건강보험, 1980년대 연금보험과 1990년대 고용보험이 시행되면서, 지금의 4대 사회보험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복지사회를 향한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①노후(공적연금), 질병(의료보험), 산업재해(산재보험), 실업(고용보험)에 대비한 보험 형태의 사회보험제도, ②극빈자들의 경제적인 복지 지원을 위한 공공부조, ③노인·아동복지·부녀·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등의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Sejarah pertumbuhan ekonomi korea yang dimulai sejak tahun 1960, yang juga merupakan sejarah kebijakan sosial berdasarkan perkembangan zaman. Seiring dengan diberlakukannya Jaminan Kecelakaan Kerja (JKK) pada tahun 1960an, Asuransi bagi Pengangguran pada tahun 1970an, Asuransi Kesehatan Masyarakat pada tahun 1980an dan Asuransi Dana Pensiun pada tahun 1990an, hal tersebut menjadi 4 asuransi kesejahteraan sosial utama bagi Korea, dan menjadi landasan bagi kesejahteraan masyarakat. Saat ini Korea memiliki beberapa Sistem Jaminan Sosial untuk menangani: ①Hari tua (Dana Pensiun Rakyat), penyakit(Asuransi Kesehatan), kecelakaan industri(Asuransi Kecelakaan Industry), pengangguran(Asuransi Kerja), ②Bantuan publik untuk mendukung kesejahteraan ekonomi kaum miskin ③dilengkapi sistem layanan kesejahteraan sosial bagi kesejahteraan manula, anak, wanita, dan penyandang cacat.

'외국인주민에게 부과된 경범죄 벌금 50만원, 강제추방의 시작'

한국법과 절차 모르는 이주민, 추방 위기에 구제 호소하지만 방법 없어



한국사회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지키는 일이다. <사진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을 기다리는 외국인주민>

하지만 외국인주민의 생활기반을 무너뜨리는 추방 조치가 아주 사소한 일에서 비롯되거나 당사자들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벌어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파키스탄 출신으로 한국에서 중고자동차 무역업을 하는 외국인주민 S(남, 40)씨는 어느 날 직원 한 명이 사무실 앞에서 중고차 헤드라이트를 교환하다가 단속반원에 발각되어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입건됐다.

이 경우 직원 보다 사업주인 S씨에게 책임을 물어 벌금이 부과된다는 말을 들었다. 벌금이 나오면 납부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1~2개월 후 검찰에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되었다는 통보를 받았다.

생각보다 벌금이 많다고 생각했지만 그 역시도 내면 된다는 마음으로 큰 신경을 쓰지 않았으나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다.

한국에서 10년 이상 거주한 S씨는 영주권 신청을 준비하던 중 최근에 받은 벌금으로 인해 영주권 취득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S씨는 “작은 일이라도 한국의 법을 어겼으니 금전으

로라도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내가 저지른 일도 아닌데 직원이 한 일로 인해 생명과도 같은 개인 체류자격 변경이나 연장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S씨는 벌금 처분에 따라 영주권 취득이 어려운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 체류자격을 연장하지 못해 한국에서 추방되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중국동포 L씨도 억울한 일을 당하기는 마찬가지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그는 한국인 반장과 동료 한국인 K씨와 함께 회식을 한 후 말다툼이 커져 K씨로부터 심한 폭행을 당했다.

코뼈가 골절되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고 병원에 3일간 입원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한국인 동료 K씨는 다음 날 멀쩡하게 출근해 근무를 하면서도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서를 받아 경찰서에 먼저 L씨를 고소했다.

물론 L씨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L씨는 사건 이후 상해 치료비와 위자료 등의 명목으로 가해자에게 1200만 원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자 한국인 반장이 중재에 나서 “이런 일로 쌍방이 고소를 하면 서로가 벌금만 물게 되니 이쯤에서 서로 합의하고 같이 열심히 일하자”고 해 합의를 했다. 그런데 합의금 500만 원은 가해자가 아닌 반장이 대신 L씨에게 지급했다. L씨는 조금 이상했지만 그러려니 했다.

이후 고소를 당한 L씨는 경찰서에서 오라고 하니 가서 조사를 받았다. 한국어를 곧잘 하지만 피고, 원고, 가해자, 피해자 등의 법률 용어는 알 턱이 없었고 진술한 뒤 서명을 하라고 하니 하고 왔을 뿐이다.

조사받는 과정에서 통역은 없었다. 법률 용어가 생소한 외국인이 민감한 조사를 받을 때는 반드시 통역사를 통해 자신의 진술을 확인하고 사건 조서에 최종서명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찰서는 “L씨가 한국어를 잘 하

니 상관없다”며 이를 무시하고 조서를 꾸민 뒤 검찰에 송치했다.

L씨는 뒤늦게 검찰에서 날아온 약식기소 의견에 따라 벌금 150만 원을 통보받았다. 알고 보니 피해자인 L씨가 오히려 가해자로 둔갑해 있었다.

L씨 역시 이 벌금으로 인해 영주권 신청에 결정적인 불이익을 당하게 됐다. 이미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바로 잡기 위해 수 백 만원의 돈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할 계획이지만 사건이 뒤집힐 가능성은 많지 않다.

L씨는 “이미 합의가 됐고 아무 문제가 없을 줄 알았는데 내가 가해자가 되어서 벌금이 부과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정다툼을 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법과 절차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체류비자 행정에서 불이익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법무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형사범죄를 저질러 벌금, 집행유예 등의 처분을 받게 되면 출입국사법심사를 받아야 하며 체류허가 및 비자연장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인도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류연장이 되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관련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인선 경기글로벌센터 대표는 “이민자들은 잘못된 행정, 정보부족 등으로 인해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다. 그 결과 체류자격 변경이나 영주권신청, 귀화신청 등에서 결정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반사회적 범죄는 체류자격 판단에 엄격하게 적용해 불이익을 줘야 하지만 단순 범법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으로 경종을 울리되 체류자격에는 불이익이 없도록 범죄 사안에 따라 이를 차등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오마이뉴스 동시게재>

송하성 기자

“부천시, 국제스마트시티연합에 합류해 날개를 활짝 펴다”

정회원으로 합류하며 24개 국내외 기관과 스마트시티 조성 국제 협력



부천시가 지난 6월 22일 국제스마트시티연합(UTA, Urban Technology Alliance)의 가입 승인을 받아 정회원으로 가입하며 스마트시티로 발돋움하기 위한 날개를

활짝 폈다. 국제스마트시티연합은 전 세계 도시, 기업, 대학, 연구소 간 스마트시티 생태계를 조성하는 비영리 단체다.

지난 201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설립된 후 스마트시티 모델 개발과 산업 진흥 도모에 앞장서고 있다.

국제스마트시티연합에는 국내, 외 24개 기업, 대학, 도시들이 활동하고 있다.

대표 회원으로는 창립 멤버인 카이스트(KAIST), 국내 도시인 부산시, 세종시를 비롯하여 프랑스 그르노블시와 전자정보기술연구소(CEA), 일본 게이오대, 대만 타이베이시, 영국 페어머스(Paremus) 등이 있다.

부천시는 미래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해 국제스마트시티연합을 매개로 스마트시티 자원, 기술,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첨단 기술을 실증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부천 스마트시티 도전, 스마트 주차시스템 등 우수한 부천형 스마트시티 모델의 수출과 확산을 위해, 국제스마트시티연합과 긴밀한 협력 체제를 유지하며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국제스마트시티연합회원 기관과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부천형 스마트시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것”이라며 “부천시는 테스트베드 혁신 도시로서의 입지를 넓혀 스마트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오산시 다양한 가족 지원 위해 지역사회 협력 강화하다"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사업 범위 확대 5개 기관과 협약 맺어 눈길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병희, 오산건가다가)가 오산시 다양한 가족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오산건가다가는 7월에

‘2020년 지역사회 네트워크 업무협약’을 5개 기관과 체결했다. 7월 7일에는 ‘LH 오산세교2지구12단지’와 ‘LH 오산세교주상1블럭’ 등 2개 기관과 행복한가족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8일에는 ‘경기화성 아동보호전문기관 오산사무소’와 아동보호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9일에는 ‘화성맘톡톡상담센터 및 (사)씨알여성회부설성폭력상담소’와 상담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다양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문화 및 가족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담사업, 사례관리, 돌봄사업 등의 폭넓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센터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기관 간 공식적인 협력을 위한 신규 파트너즈 기관발굴과 업무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다양한 가족의 복리를 위해 지역사회 여러 기관과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신규 업무협약 기관발굴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지는 기자

비대면 가정학습 프로그램
아빠가 빛나는 학교

‘친구 같은 우리아빠, 헬로 프렌디!’

일시 비대면키트전송
(대면 교육 시 도.8월 10:00~12:00)

교육장소 각 이용자 가정
(대면 교육 시, 교육장)

대상 오산시 거주 아버지와 초등학교생, 영유아기 자녀
*6세 이상 권장

내용 비대면키트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접수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접수

문의 가족지원1팀 031-378-9765, 9769
이준형 선임경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위탁운영인 | 시간당 | 나눔과 배움

오산건가다가, 아빠가 빛나는 학교 "친구 같은 우리아빠, 헬로 프렌디!"

오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비대면 가정학습 프로그램 아빠가 빛나는 학교 “친구 같은 우리아빠, 헬로 프렌디!”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아버지-자녀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버지의 고유한 역할이 있음을 인식하고 신체적이며 적극적인 놀이를 통하여 자녀의 사회적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센터 측은 아버지의 자녀양육과 돌봄을 통해 양육역량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가정 내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며

지역사회 내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을 위한 역할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역 내 아버지들의 만남의 장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내 가족 문화공동체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7월부터 10월까지 이용자 각 가정에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회기별로 별도 모집한다.

오산시 거주 아버지와 초등학교생, 영유아기 자녀(6세 이상 권장)가 대상이며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센터 관계자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참여가 증가하

면서 아버지의 양육이 자연스럽게 요구되어 왔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아버지 양육의 인식 변화를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다양한 아버지 역할 프로그램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아버지의 자녀양육역량을 강화하여 가족 건강성을 향상하고 엄마의 가정 내 자녀양육부담을 덜어주고, 가족공동체 의식과 아버지-자녀간 유대감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가족지원 1팀 031-378-9765 / 9769 이지는 기자

가족상담사업

사업소개
가족상담 사업은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과 문제상황을 면접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집단상담 등의 방법으로 문제해결을 유도하고 개인 및 가족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사업입니다.

사업안내

상담기간 1월~2월 상시

상담대상 오산시 거주 지역주민 누구나 가능

이용시간 주간상담 월-금 (09:00~18:00)
야간상담 수-목 (18:00~21:00)
전화상담 월-금 (09:00~18:00)

전화접수 ☎ 031-377-9766 (상담문의 및 접수)

사이버상담 osan.familynet.or.kr 회원가입 후 이용 가능

상담내용 일반상담: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그 외 가족상담, 개인상담 등
상담프로그램: 집단상담(이혼 전 부부, 이혼 후 남성, 성인 아동, 어머니 노인 등)
심리검사 필요시 진행실비 발생할 수 있음

특화상담사업

이혼관련 가족상담 이혼 관련 심리·정서·갈등지점 문제, 미성년 자녀 문제, 이혼 후 심리·정서지원, 기관연계 상담(수원지방법원)

가정폭력/성폭력상담 가정폭력 피해자·가해자 상담, 성폭력 피해자 상담, 기관연계 상담(오산경찰서, 수원지방법원)

임신출산 갈등상담 임신·출산·양육 심리지원 상담 및 정보제공, 한부모 가족상담, 이혼도 사실 등 전문지원기관 연계

다문화 가족상담 이주여성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생활정보, 통역, 상담서비스 제공

가족행복만들기
우리나 함께 할래요

‘找出京畿道的新面孔，并为京畿道设计出品牌形象及标语’

외국인주민이 살기 좋은 경기도, 도민의 자부심 담은 새 얼굴 찾아주세요



作为生活在京畿道十年的居民，小编深感荣幸，因为京畿道一直在发展，在变化，在与时俱进。生活在京畿道的这十年里，亲身体会了不少京畿道的福利和好的政策。有生活上的，比如免费赠送宝宝鞋子。有精神上的，比如心理咨询及治疗。有兴趣爱好上的，如户外活动。有政策上的，如给外国人发放灾难支援金等等，多的数都数不清。

即使我们觉得京畿道居住起来已经很好了，但是京畿道仍在进步，在努力。

为了让1370万的京畿道居民，身为京畿道居民而感到自豪，为了更好的改善京畿道的政策，为了让京畿道居民对未来的生

活充满希望，现由京畿道主办了“寻找京畿道新面孔”的活动。

活动详情如下：

*主题：能够具有代表性的京畿道的新品牌形象和标语。(我认为的京畿道政策，形象，未来价值等自由发挥。)

*活动期限：2020年7月1日~2020年7月26日

*参加对象：对京畿道有关心的任何人。(参加次数不限)

*奖项 ▲创意奖:语言部分一名100万奖金,视觉部分一名100万奖金 ▲概念奖:语言部分一名100万奖金,视觉部分一名100万奖金 ▲表现奖:需要部分一名100万奖金,视觉部分一名100万奖金 *根据作品情况有可能有变动

*投稿及咨询：031-8008-3046 <https://brand.gg.go.kr>

身为京畿道的居民，大家对京畿道有什么样的期盼呢？不妨动一动您智慧的大脑，想出具有代表性，渲染性，宣传性的京畿道形象及标语吧！丰厚的奖金等你拿！大家快快行动起来吧！加油！京畿道！

경기도에서 10년간 살아 온 주민으로

서 필자는 경기도가 시대에 발 맞춰 변화하며 발전해 왔기 때문에 참으로 자랑스럽다고 느낍니다. 경기도에서 10년 동안 생활하면서 저는 경기도의 복지와 좋은 정책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생활방면에서는 아기 신발을 무료로 주는 것들이 있었고, 정신적으로는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와 같은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미활동으로는 실외활동 등이 있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제공하는 등등의 수없이 많은 혜택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경기도는 이미 충분히 살기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지금도 여전히 발전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1370만 도민들이 경기도 도민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경기도 정책을 개선하고, 경기도 주민들이 미래에 대하여 희망으로 가득 차 넘치도록 독려하기 위하여, 경기도는 지금 ‘경기도의 새 얼굴을 찾아라’라는 주제로 경기도 디자인 브랜드 및 슬로건 아이디어 공모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공모전 이벤트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테마: 경기도를 대표 할 수 있는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와 슬로건.(제가 보기엔 경기도 정책, 이미지, 미래 가치 등 자유로운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활동 기간: 2020년 7월 1일~7월 26일

*참가자: 경기도에 관심이 있는 사람 (참가자 수 제한 없음)

*수상 ▲아이디어상: 언어 부분 1명, 100만원 상금/시각적 부분 1명, 100만원 상금 ▲컨셉상: 언어 부분 1명, 100만원 상금/시각적 부분 1명, 100만원 상금 ▲표현상: 언어 부분 1명, 100만원 상금/시각적 부분 1명, 100만원 상금 *작품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출 및 상담: 031-8008-3046 <https://brand.gg.go.kr>

경기도 주민으로서 경기도에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명석한 두뇌를 움직여 대 표적이고 도전적인 홍보 이미지와 경기도의 슬로건을 만들어 봅시다! 푸짐한 보너스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속하게 행동합시다. 화이팅, 경기도!

원난 경기도외국인SNS기자단

Từ tháng 7 bắt đầu check mã QR khi đến những cơ sở có khả năng lây nhiễm cao!!



Hiện nay tình hình dịch COVID 19 đang có xu hướng chuyển biến xấu đi, do vậy từ ngày 1/7/2020 việc xác nhận lộ trình đi lại thông qua mã QR điện tử trở thành nghĩa vụ bắt buộc đối với mọi công dân đang sinh sống tại hàn quốc kể cả người ngoại quốc. Mã QR này sẽ được bộ y tế dùng để theo dõi lịch trình đi lại của những người nhiễm COVID 19 giúp phòng chống dịch một cách triệt để hơn.

Dịch COVID bùng phát bắt đầu từ tháng 2, với nhiều hi vọng cho rằng khi

hiệt độ trở nên ấm hơn thì có thể kiểm soát được dịch bệnh, nhưng cho đến thời điểm hiện tại, mùa hè đã đến, thời tiết trở nên nóng bức nhưng dịch bệnh vẫn không có dấu hiệu thuyên giảm.

Chính vì vậy, cùng với sự nỗ lực từ phía chính phủ, từ ngày 10/6/2020 đã thực hiện chính sách theo dõi lịch trình đi lại thông qua hệ thống điện tử(KI-Pass) và tới ngày 1/7/2020 nó đã trở thành bắt buộc đối với mọi công dân khi ghé qua những nơi có dấu hiệu lây nhiễm cao.

Cấp phát mã QR thông qua ứng dụng Pass hoặc Naver:

khi ghé qua những nơi có khả năng lây nhiễm cao như quán bar, quán karaoke thì người dân phải tạo mã QR sử dụng một lần. có thể tạo một cách dễ dàng thông qua ứng dụng pass được cung cấp bởi các nhà mạng LG, SK Telecom, KT,... ứng dụng Pass là ứng dụng xác thực danh tính người dùng khi ta muốn sử dụng một app nào đó hay một hệ thống nào đó. trên giao diện menu của

ứng dụng pass, nhấn vào dòng QR 출입증(xuất mã QR) và đồng ý các điều khoản đi kèm là mã QR sẽ được tạo ra ngay tức thì.

bạn cũng có thể tạo mã QR thông qua ứng dụng naver, nhấn vào 마이페이지 (trang chủ của tôi) trên cùng góc bên phải của Naver sẽ có một nút tạo mã QR ngay bên cạnh tên người dùng. nhấp vào đấy và đồng ý các điều khiển cho phép thu thập thông tin thì mã QR sẽ được tạo ra.

chúc các bạn có một mùa hè vui vẻ và Nhớ... tạo mã QR để cùng chung tay đẩy lùi dịch COVID 19 nhé~

현재 기준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아 2020년 7월 1일부터 전자 QR코드를 통해 여행 경로 확인을 시민의 의무로 가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외국인도 해당 QR코드를 받아야 합니다. 이 QR코드는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들의 여행 일정을 추적하여 전염병을 보다 철저하게 예방하는 데 사용됩니다.

코로나19의 발병은 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날씨가 더워지면 감염 환자가 줄어든 줄 알았지만 지금은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Pass나 Naver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QR 코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 확률이 높은 클럽이나 노래방에 다녀온 경우, LG, SK Telecom, KT의 PASS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QR코드를 받아서 인증해야 합니다. PASS 홈화면 가운데 QR출입증 부분을 클릭하면 나만의 QR코드가 바로 나타납니다.

그 외에 네이버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QR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우선 네이버에서 로그인을 할 다음에 마이네이버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위에 QR체크인이라는 부분을 클릭하면 QR코드가 나타납니다.

즐거운 여름철을 보내십시오. 그리고 QR코드는 꼭 생성하고 필요시 인증하시기 바랍니다.

레타인공 경기외국인SNS기자단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파주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서 전화상담으로 고충해결 지원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조순일)는 다문화이주민+센터 사업 일환으로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위탁 받아 2017년 7월 11일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파주시 관내 거주 다문화가족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증가함에 따라 직장생활과 한국 생활을 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임금체불, 사업제해, 출입국문제, 고용허가제 문제 등 외국인노동자 및 다문화가족의 한국

생활 적응을 지원하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의 경우 문화적 차이와 언어소통의 한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어 상담이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상담센터며,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항공편 문제로 인해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체류 상담 및 귀국준비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또한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의 자발적인 귀환 및 체류 기간만료 시 각종 보험 및 귀국절차를 안내하고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와 외국인근로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고, 상담에서 현장지원까지 '윈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사업은 특히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고충 상담 및 갈등 중재로 외국인 근로자의 애로사항 해결하는 등 통합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수업뿐만 아니라 생활법률, 한국문화교육, 정보제공 등 지원이 탄력받을 전망이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센터를 휴관해 대상자 일시방문금지 상황으로 인해 방문 및 내방 상담이 어려워 전화 상담(031-949-9161)만 하고 있다. 운영 시간은 일~목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김영의 기자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지역사회 감염 차단 효과

파주시가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임시생활시설이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파주시는 해외에서 입국한 코로나 19 5번 확진자가 지난 3월 27일 오전 파주시 보건소 선별검사소에서 검사 후 다음날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무증상 해외입국자에 대한 전파 가능성을 인지하고 3월 30일부터 임시생활시설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먼저 조리음 흥원연수원에 설치한 파주시 해외입국자 임시생활 시설은 지난 4월 19일까지 운영되며 21일간 305명의 입소자가 이용했다. 이후 4월 20일부터는 조리음 소재 현대자동차 파주인재개발원으로 옮겨 현재까지 740명이 이용하는 등 총 1,045명이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을 이용했다. 김영의 기자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MULTICULTURAL IMMIGRANTS CENTER

"PAJUSI SUPPORT CENTER FOR FOREIGN WORKERS"

Labour Management	Immigration & Insurance	Oth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nsultation on Wages & Severance Pay • Changing of Workplace & Re-employment • Working Conditions & Contract Inquiries • Reinstatement of Sincere Work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quiries about Immigration Periods of Stay • Details of Transition onto the Four Types of EPS Insurance • Refund of Payment onto Return-Cost Insurance & Deciding Quasi-legal Overseas • Consultation o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 Preparation for returning 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uman Rights & Korea Life Adaptation • Life Problems Consultation • Accidents, Assault, Fraud & Death

• Participants: Immigrant Residents (Alien's Resident, Married Alien's Resident, Resident who are holders of the following visas 在留資格在留期間等) etc.)

Office Hour		09:00 - 18:00	Paju Health Family-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Weekdays	Monday-Thursday		
Weekend	Friday		

• Place: 229 Jungang-ro, Paju-si, Gyeonggi-do(Daeseom-dong 782-4) 10923
Paju Health Family-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2층 201호)

Get off at PDPCD Bus Station
9789,919,740,12,011,100-10,100-11,100-31,92,045,064
파주시청(도모드론) 11,121,30-1,909,32,32-1,35-1,12,14,771,9

by Subway: Gyeonggi Jungang Line
Gyeongheon Station(11mins. walking distance)

• Contact Number : ☎031-949-9161
Download: www.facebook.com/pscfww TALK 상담및문의: leeyoojin86

• Consultant: Lee Youjin / Lee Michaele

• Language: 영어, 타갈로그, 한국어, 베트남어

Paju Healthy Family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외국인노동자와 사업주를 위한

파주시다문화이주민+센터

"파주시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노동관리	출입국 관리 및 보험 관련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금 및 퇴직금 상담 • 사업장변경 및 재고용 상담 • 근로조건 및 계약 문의 •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출입국·체류에 관한 문의 • 고용허가제 4대 보험 문의 • 전용보험에 관한 상담 • 산업제해에 관한 상담 • 귀국준비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권침해 및 한국 생활 적응상담 • 생활 고충상담 등 • 사고, 폭행, 사기, 사망

• 대 상 : 외국인주민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외국인주민 포함)
E-9, H-2, F-4, F-5, F-6 등

시 간		09:00 - 18:00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평 일	월요일 - 목요일		
주 일	일요일		

• 장 소 : 10923 파주시 중앙로 229(금촌동782-4)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층 201호)

• 문 의 : ☎031-949-9161
facebook: www.facebook.com/pscfww TALK 상담및문의: leeyoojin86

• 상담원: 이유진/이미셀

• 가능언어: 영어, 타갈로그, 한국어, 베트남어
한국어 잘 못 해도 괜찮습니다. 방편이나 전화해 주세요.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LED무드등 만들며 평등한 부부 관계 만들어요"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배우자 부부 프로그램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조순일)는 파주시 관내 다문화 부부간의 성평등 인식을 고취하고 부부문제 소통 및 평등한 부부관계를 조성하는

배우자·부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6월 3일부터 6월 12일까지 진행된 다문화 부부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하여 부부가 함께 가정에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체험키트 'LED 무드등 만들기'를 진행하였다.

집합모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청자는 일자·시간대별로 예약제를 정하여 워킹투(walking through)를 통하여 센터 입구에서 체험키트를 수령했다.

체험키트를 받은 다문화 부부는 가정에서 직접 LED무드등을 만들며, 배우자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 본국어, 그림 등 자유롭게 표현하여 부부만의 작품을 만들었다.

참여자 중 필리핀 부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외출도 못 하고 마음도 안 좋았는데, 남편과 함께 이런 활동을 하니 정말 좋았다. 집 분위기도 바뀌었고 부부만의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배우자·부부관계 향상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화 차이로 발생하는 부부 갈등 및 상호 스트레스 해소와 서로에 대한 친밀감과 행복한 부부관계를 향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기타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031-949-9164)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京畿道内外国居民의 权利救济, 通过网络 更容易得到帮助

京畿道外国人人权支援中心(所长吴京锡)13日表示,在“后续科罗娜时代”即将到来之际,将新设“在线申诉受理系统”,以便使道内的外国居民随时随地都可以申请权利救济.考虑到由于“后续科罗娜19”的扩散,访问、面对面商谈变得困难的情况,引入非对面的在线远程商谈方式,在不受时间和场所限制的情况下,方便地得到中心的帮助.因此,外国人人权支援中心从今年5月开始推进了制作、翻译接收页面、增设服务器等工作,并开设了此次“在线举报受理系统”.

需要帮助的外国居民登录中心网站(www.gmhr.or.kr)点击“真实信息厅(petition)”栏,填写姓名和联系方式等简单信息后受理人权侵害事项即可.

只要是知道受到人权侵害的道内外国居民自己或相关事例的道民,都可以申请权利救济,可以用电脑、智能手机随时随地都可以自由使用.对于已受理的事项,由在中心工作的专业律师、劳务公司直接审核后,通过电话或在线提供详细咨询等权利救济.

外国人政策课长洪东基(音)表示“通过此次在线系统的开通,可以增进希望得到权利救济的外国居民们的接触性和便利性”,“今后还将尝试视频实时商谈等新方式”.

京畿道外国人人权支援中心是根据《京畿道外国人人权支援条例》为保障道内外国居民的基本权利而设立、运营的外国人人权政策专门开发机构.

特别是进入民选第7期以后,为实现“实现人人平等的人权景气”这一公约,正在推进从对拖欠工资、工伤、不当解雇、差别待遇等的权利救济及权益增进支援到人权实态调查、发掘相关政策、构筑民官合作网络等多种事业.

<한글 기사 10면>

"초심 잃지 않고, 생활 정치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손희정 도의원, 제1회 한국지방의정대상 '소통대상' 수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손희정(파주2, 더민주) 의원은 지난 6월 29일(한국지방의정대회와 서울복지신문, 경기다문화뉴스에서 주최, 주관한 2020년 제1회 한국지방의정대상에서 '소통대상'을 수상했다.

제1회 한국지방의정대상은 지방자치 발전에 공헌하고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대한민국

의 광역 및 기초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선정했다.

손희정 의원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경기도차세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조례 발의 및 파주 청소년교육의회 학생위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들의 참여권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노동과 인권이 존중받는 경기도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경기도 내 소외된 노동자들의 근무여건 및 불합리한 처우 등의 개선방안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결산심의에서 철두철미한 감시 및 견제를 통해 '파주 독순이'라는 별명을 뛰어 넘어 '경기도의회의 독순이'라며 굳건한 의정활동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손희정 도의원은 평소 대안교육기관에도 큰 관심을 기울여 왔다.

지난 6월에는 파주자유학교를 찾아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손 의원은 이날 경기도 청소년과장, 파주시 보육청소년과장 등과 함께 파주자유학교를 방문해 교내 코로나19 방역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필요한 지원 내용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교육사각지대에 놓인 대안교육기관 아이들과 직원을 보호하고,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손희정 의원은 "도민의 아픈 곳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의원이 되 고자 했던 초심을 마음에 품고 달려 온 지난 의정활동의 시간으로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다"라며 "경기도의회를 시작하며 다짐한 '도민의 대변자'라는 초심을 잃지 않고 생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의 기자



파주시청 031-940-4114 파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949-9164 한국다문화복지협회 031-941-1955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 고양출장소 031-960-9310 파주성폭력상담소 031-946-2096 파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949-8219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온라인 한국어교육으로 한국사회 적응 도와요”

군포건가다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 대상 운영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박성희)에 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한국어교육이 어려워지면서 비대면 온라인교육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온라인 한국어교육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에게 수준별 한국어교육을 제공함으로써 한국어 향상뿐만 아니라 나아가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수업이 어려워지면서 원격수업 플랫폼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한국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어 수업과정은 취업준비 한국어교실, 자녀학습지도를 위한 한국어교실, 토픽 읽기반, 토픽 쓰기반, 토픽 듣기반, 중도입국자녀반 등의 목적별 한국어수업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한국어수업이 있으며 각 반의 미팅 주소를 통해 핸드폰 또는 노트북을 활용하여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온라인 수업은 특히 실시간으로 교사와 학생이 쌍방향 소통을 하며, 1:1 피드백과 과제 제시를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박성희 센터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어 교육을 온라인으로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이 교사와의 쌍방향 소통을 진행할 수 있었으며 이는 교사와 학생들 간의 친밀감이 향상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집합이 어려울 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이용자들이 교류하고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자신감과 성취감을 향상하는 한국어교육이 될 것”이라고 참여를 부탁했다.

한편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코로나19에도 결혼이민자를 위해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가족지원팀(031-395-1811)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의 기자



다문화가족의 슬기로운 생활 군포애머니 특별이벤트 혜택



군포시는 지역 화폐인 군포애머니 특별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진행되는 이번 이벤트는 1인당 월간 충전금액 50만원 한도 내에서 충전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 이벤트를 하고 있다”라며, “군포 경제를 사랑하는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군포지역화폐인 군포애머니는 군포시장이 발행하는 충전식 카드형 지역화폐로 군포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군포사랑이 가득한, 군포사랑을 시민 모두가 실천하자는 뜻을 담고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 지역경제과(031-390-0267)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영의 기자

호 trợ quyền lợi cho người nước ngoài tại tỉnh Gyeonggi, nhận sự giúp đỡ dễ dàng hơn trên online

Trung tâm hỗ trợ nhân quyền người nước ngoài tỉnh Gyeonggi, Thiết lập 'hệ thống tiếp nhận khiếu nại online' trong mùa dịch Corona

Trung tâm hỗ trợ nhân quyền cho người nước ngoài tỉnh Gyeong gi(trung tâm Oh-gyung sok), Trong tình hình dịch bệnh Corona hiện nay, để hỗ trợ tốt nhất cho người ngoại quốc trong tỉnh, từ ngày 13 đã tiến hành thiết lập hệ thống tiếp nhận khiếu nại online”.

Trong tình hình diễn biến bệnh corona đang ngày càng phức tạp, việc tiếp đón cũng như hỗ trợ tại quầy đang gặp nhiều khó khăn thì chúng tôi đã cho triển khai hình thức hỗ trợ gián tiếp qua online, bằng phương pháp này các bạn không cần phải đặt lịch thời gian, địa điểm, rất thuận lợi để cho người nước ngoài có thể nhận được sự trợ giúp.

Vào tháng 5 vừa qua tại trung tâm hỗ trợ nhân quyền cho người nước ngoài đã cho vận hành các công việc như là viết đơn, biên dịch, mở rộng server ..vv.. thông qua đó đã phát triển được “ hệ thống tiếp nhận hỗ trợ khiếu nại online “

Những người ngoại quốc cần sự giúp đỡ có thể truy cập vào trang web của trung tâm (www.gmhr.or.kr), click vào mục'đăng kí khiếu nại'(petition)' sau đó điền

các thông tin cơ bản như họ tên, số điện thoại liên lạc ..vv.., và đăng ký hạng mục vi phạm nhân quyền.

Những người ngoại quốc trong tỉnh gặp các vấn đề liên quan đến vi phạm nhân quyền hoặc những người đang biết về những vấn đề vi phạm nhân quyền xung quanh thì bất cứ ai đều có thể khai báo, có nhiều cách để khai báo như là thông qua máy tính, điện thoại, ở bất cứ đâu và khi nào đều có thể sử dụng một cách tiện lợi.

Các vấn đề đã được tiếp nhận thì tại trung tâm, luật sư và các chuyên gia về lao động sẽ trực tiếp kiểm thảo nội dung, thông qua điện thoại hoặc là bằng phương pháp online sẽ hỗ trợ trực tiếp cho các bạn các nội dung tư vấn cụ thể liên quan đến việc hỗ trợ nhân quyền

Trường phòng chính sách cho người nước ngoài ông Hong Dong Ki phát biểu rằng“ Thông qua việc triển khai hệ thống online lần này, chúng tôi sẽ tăng cường tính tiện lợi và sự tiếp cận cho những người ngoại quốc cần sự giúp đỡ nhân quyền” và “chúng tôi dự kiến trong

thời gian tới sẽ cho triển khai thêm các phương thức mới như là tư vấn trực tiếp qua video”

Trung tâm hỗ trợ nhân quyền cho người nước ngoài tỉnh Gyeong gi-do là cơ quan được thiết lập và đang vận hành đảm nhận phát triển chuyên về các chính sách nhân quyền cho người ngoại quốc nhằm bảo đảm các quyền lợi cơ bản của người nước ngoài trong tỉnh dự theo “ Điều lệ về hỗ trợ nhân quyền cho người ngoại quốc trong tỉnh Gyeong gi-do”

Đặc biệt, bước vào cuộc bầu cử lần thứ 7, với điều công ước có nội dung “ Thực hiện chính sách không có bất kì ai bị phân biệt đối xử nhân quyền trong tỉnh Gyeonggi ”,bắt đầu từ việc hỗ trợ tăng cường quyền lợi, lợi ích và hỗ trợ nhân quyền về các vấn đề như trả lương chậm, sa thải bất hợp pháp, phân biệt đối xử ..vv.. chúng tôi đang đề cử các dự án đa dạng liên quan đến việc thiết lập mạng hỗ trợ hợp tác công – tư, điều tra thực trạng nhân quyền, phát hiện các chính sách liên quan ..vv..

〈한글 기사 10면〉

[기획3] 한국의 부동산 광풍, 다문화가족은 어떻게?

주거환경 좋지 않은 다문화가족,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주목해요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지원센터에서 모집한다.

모집 시기는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LH 등에 문의해야 한다.

임대주택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기도시공사가 저소득 계층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자격 기준을 갖춘 우선순위대상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기모집기간에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와 ‘매입임대사업’ 등 2가지 유형을 공급하며, 공급 기관에 따라 공급 물량의 차이가 있다.

두 기관에서 제공하는 주택에 입주 가능한 1순위 대상은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인 총자산가액 2억원, 자동차가액 2천468만원 이하를 가진 사람이다. 세부적으로는 생계·의료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최저 주거수준에 미달한 주거지원 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 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등록자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이 가능한 2순

위 대상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중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자,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장애인등록자다. 기타 순위 대상에는 보훈처에서 명단을 통보한 국가유공자가 포함된다.

매입임대 주택 신청이 가능한 2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 이하인 자, 영구임대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하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100% 이하인 장애인등록자다. 다만, 비주택거주자, 가정폭력 피해자,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만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며 최저주거기준이 미달한 자 등은 우선 입주할 수 있다.

지원대상 주택도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전세임대주택은 전용면적 85㎡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으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지원한도액 9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보증금의 2~5%를 부담해야 한다. 부담해야 할 월 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의 이자다.

아무튼 무척 산 금액이다. 임대 기간은 2년이며,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가격의 30% 범위에서 나누어 책정되며, 임대기간은 전세임대와 동일하다. 지원대상 주택은 1형(전용면적 50㎡ 이하), 2형(전용면적 50㎡ 초과~85㎡ 이하)이다.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접수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주민지원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혹시 신청을 원하는 다문화가족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이미 접수가 끝났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다시 공고가 난다.

기타 자세한 모집내용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http://apply.lh.or.kr>)와 LH 경기지역본부(1670-2592),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www.gico.or.kr), 경기도시공사 콜센터(1588-0466)와 경기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031-214-8463)로 문의하면 된다.

〈중국어 43면, 베트남어 42면〉

송하성 기자

다문화가족, 희망일자리 코로나 극복

생활방역 등 122개 분야 1,045명 모집

군포시는 지난 7월 14일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생계지원을 위해 1,040여 개에 이르는 희망일자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0개 유형, 122개 분야에 걸쳐 1,045개 일자리를 모집하는 이번 사업의 신청자격은 2020년 9월 1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의 근로 능력이 있는 군포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일자리 배정 인원은 공공시설물 생활방역 421명, 관내 환경정화 283명, 학교 방역과 등·하교 지도, 시설물 관리에 78명, 공공도서관 운영 보조 인력 68명 등이다.

신청은 23일까지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해야 하며, 최종선발자는 8월 27일 시청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문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1,045명 전체 정원에 미달할 경우 신청자 전원을 배치하고, 정원을 초과할 경우 선발기준에 의한 고득점자순으

로 배치되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과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등을 우선 선발한다.

만 65세 이상 시민은 모집정원 미달 시 전체 정원의 20% 이내에서 선발하되, 노인일자리사업이 권장된다. 심사 점수와 거주지, 일자리 경험 유무, 사업 특성 등을 참고해 근무지가 정해지고,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근무하게 되며 시급 8,590원이 지급된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와 시비 등 모두 44억 4천만원이 투입된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콜센터(031-392-3000) 또는 일자리정책과(031-390-066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다문화가족이 더 나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한국어가 필수다. 중급이상의 한국어 실력을 갖추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김영의 기자

국내외 도시와 "이런 사업 어때요?"

군포시, 교류 활성화 위한 아이디어 공모 받아



군포시는 지난 7월 6일 국내외 10개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을 상대로 ‘NEW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해외 교류사업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민 중심의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공모전 주제는 군포시 자매도시의 특성을 반영하거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와 연계할 수 있는 혁신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로, 군포시민

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군포시 자매도시에는 국내외의 경우 경북 예천군, 전남 무안군, 강원도 양양군, 충남 부여군, 충남 청양군이며, 국외는 캐나다 벨빌시, 미국 클락스빌시, 미국 그랜트카운티, 일본 아츠기시, 중국 린이시 등 모두 10곳에 이른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되는데,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연결하거나 군포시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hunnyim@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군포시는 1차 심사에서 20명을 선정한 후 2차 심사서 최종 5명을 확정할 예정이며, 결과는 8월 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김영의 기자

[Kế hoạch 1] Con báo bất động sản tại Hàn quốc, gia đình đa văn hóa sẽ như thế nào ?

Tìm hiểu về chế độ đăng kí gia đình đa văn hóa, thị trường bất động sản của hàn quốc với đặc trưng tình yêu đặc biệt dành cho chung cư

Thị trường bất động sản của Hàn quốc rất đặc biệt. Trong số rất nhiều những loại hình cư trú khác nhau thì chung cư là loại hình chiếm được nhiều sự yêu chuộng nhất. Những loại hình nhà như nhà ở biệt lập, Villa, nhà nhiều thế hệ ..vv.. thì không được yêu chuộng nhiều và nhanh rớt giá theo năm tháng. Trái ngược lại thì với chung cư càng lâu thì giá càng cao. Trong những năm gần đây giá các căn hộ chung cư đang tăng vùn vụt. Những người không thể mua chung cư thì biểu hiện sự bất mãn của họ đối với chính phủ và những người mà sở hữu chung cư nằm ở những vị trí đẹp thì chỉ trong vòng 1 năm họ có thể kiếm từ 100 đến 200 triệu won. Cho dù bạn có đi làm công ty, làm việc chăm chỉ đến đâu thì trong 1 năm nếu muốn kiếm được 50 triệu won thì cũng là 1 việc khó, tuy nhiên có một người nào đó nói là chỉ cần có 1 cái chung cư thì chỉ việc ngồi không cũng có thể kiếm 100 triệu won thì lời nói đó cũng làm chúng ta tức giận. Vì điều này cho nên rất nhiều người dân hiện nay đang chạy theo việc đăng ký chung cư. Báo gia đình đa văn hóa tỉnh Gyeong gi go lần này sẽ tìm hiểu về chế độ mua nhà chung cư và chính sách phúc lợi cư trú của chính phủ.

Chế độ đăng ký nhà ở tại Hàn quốc

Hiện nay chung cư đang rất được ưa chuộng nên có rất nhiều người đang định mua chung cư, vì thế chính phủ đã ban hành chế độ mua nhà ở riêng. Chế độ mua nhà ở riêng là chế độ dành cho những người có ý định mua nhà, họ sẽ phải đến ngân hàng trước và đăng ký làm sổ tiết kiệm mua nhà sau đó nếu thỏa mãn các điều kiện nhất định thì sẽ cung cấp tư cách mua nhà.

Như bình thường thì chỉ cần đi đến các trung tâm mô giới bất động sản nhỏ và vừa và đăng ký mua nhà là được nhưng lý do mà mọi người đăng ký làm sổ tiết kiệm mua nhà là vì muốn mua được nhà rẻ. Gói sản phẩm mua nhà hiện tại có 2 loại “ tiết kiệm mua nhà tổng hợp đặc biệt dành cho thiếu niên ”

và “ tiết kiệm mua nhà tổng hợp”. Hằng tháng, bạn sẽ phải đóng tiền, tùy theo số tiền mà mình muốn đóng từ 20 ngàn đến 500 ngàn won. Gói sản phẩm có lãi ưu đãi hơn đôi chút “ Tiết kiệm mua nhà tổng hợp ưu tiên cho lứa tuổi thanh thiếu niên” thì chỉ những người trên 19 tuổi và dưới 34 tuổi thì mới được tham gia.

Sau khi mở sổ tiết kiệm mua nhà thì điều quan trọng là phải nộp tiền đều đặn định kì hàng tháng và không được nạp muộn. chỉ cần mỗi tháng đóng 20 ngàn won thì cũng đủ điều kiện đứng vị trí thứ 1. Khi đăng ký thì tùy theo các điều kiện như thời gian tham gia sổ tiết kiệm mua nhà, thời gian không có nhà, số gia đình phụ thuộc, số lượng con cái chưa đủ tuổi vị thành niên ..vv.. thì sẽ nhận được điểm số khác nhau.

Tùy theo thời gian không có nhà (tính theo đơn vị 1 năm thì được 2 điểm/ lần) và số lượng gia đình phụ thuộc (5 điểm / người), thời gian tham gia tiết kiệm mua nhà (1~17 điểm) ..vv.. mà số điểm sẽ khác nhau. Số điểm mà hộ gia đình tham gia sẽ được chấm tối thiểu là 8 điểm và tối đa là 84 điểm. Điều dĩ nhiên là nếu điểm số càng cao thì khả năng trúng chung cư mới là càng nhiều.

Đăng ký bình thường với sổ tiết kiệm mua

Theo số liệu của tháng 12 năm 2019 thì số người tham gia sổ tiết kiệm mua nhà

là 25,5 triệu 500 ngàn người. Tỉnh Gyeong gi chiếm số lượng đông nhất là 6,76 triệu người và tiếp đến là Seoul với 6,62 triệu người. Số người tham gia sổ tiết kiệm mua nhà chiếm khoảng 49,4% trong tổng số người trên toàn quốc. Qua đây ta có thể thấy rằng ý chí mãnh liệt của người dân tham gia với mong muốn trúng được chung cư mới.

Theo số liệu này thì rất nhiều người đang tham gia vào sổ tiết kiệm mua nhà nên thực tế nếu muốn được cấp nhà thì tỷ lệ cạnh tranh là 1:100 đối với các tỉnh có số lượng người đăng ký nhiều. Vì

phải tính theo điểm số nên số phương thức cho điểm thực tế rất phức tạp. Những gia đình đa văn hóa có quan tâm đến vấn đề này thì sẽ phải theo dõi thông báo kĩ càng. Đối với tỉnh có mức giá nhà chung cư đắt nhất hiện nay như Seoul thì muốn được mua nhà giá rẻ thì số điểm tối thiểu mà bạn phải tích lũy dự kiến là tầm 60 điểm.

Sử dụng cung cấp đặc biệt

Đến chừng này thì tôi nghĩ rằng rất phức tạp và khó nếu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muốn mua nhà chung cư với chế độ mua nhà mà cần rất nhiều sự chuẩn bị như thế này. Vì thế chính phủ đã đưa ra chế độ “ Cung cấp đặc biệt ”. Gia đình có nhiều con, Vợ chồng mới cưới, người khuyết tật, gia đình có chỉ có 1 bố hoặc mẹ, gia đình đa văn hóa ..vv.. sẽ nhận được hỗ trợ để có thể mua chung cư 1 cách dễ dàng hơn so với các tầng lớp yếu kém trong xã hội.

“ Chế độ cung cấp đặc biệt cho vợ chồng mới cưới” là chế độ được áp dụng cho các cặp vợ chồng kết hôn chưa quá 7 năm thì đủ tư cách đăng ký. Đối với gia đình 3 thế hệ thì theo từng hộ gia đình nếu thu nhập trung bình hằng tháng tính theo từng hộ gia đình người lao động thành phố năm ngoài (gia đình 3 người 5,4 triệu 1814 won, gia đình 4 người 6,16 triệu 5202 won) thì có thể đăng ký mua nhà (đối với trường hợp cả hai vợ chồng đều đi làm thì phải

dưới 120%)

“ Chế độ cung cấp đặc biệt với gia đình đông con” : có trên 3 con dưới độ tuổi vị thành niên và tiêu chuẩn thu nhập nếu thỏa mãn điều kiện sau thì mới được đăng ký (nhà ở quốc dân có diện tích chuyên dụng dưới 84.9m2 thì chỉ có đối tượng có thu nhập bình quân hằng tháng dưới 120% theo từng hộ gia đình lao động đô thị năm ngoài, không áp dụng cho nhà ở tư nhân)

“ Chế độ cung cấp đặc biệt cho gia đình đa văn hóa ”. Với danh nghĩa là thành viên của gia đình đa văn hóa , nếu sống cùng với chồng/vợ trên 3 năm ở tại cùng 1 địa chỉ cư trú thì sẽ trao tư cách cho người đó. Bình thường thì chỉ nhận gia đình 2 thế hệ, Cũng có chế độ là chế độ cung cấp đặc biệt cho gia đình chỉ có 1 bố hoặc mẹ. Vợ chồng mới cưới và gia đình đa văn hóa, nhiều con cái thì phải có sổ tiết kiệm tham gia mua nhà đóng tiền ít nhất trên 6 tháng. Giả sử nếu có trúng được mua nhà cung cấp đặc biệt đi nữa thì cũng không phải là sẽ nhận được giảm giá khi mua nhà chung cư. Người trúng mua nhà theo hình thức tiết kiệm thông thường hay theo hình thức cung cấp đặc biệt thì đều phải nộp cùng một mức phí mua nhà chung cư. Tuy nhiên gần đây chỉ cần nghĩ đến việc giá nhà chung cư đang tăng rất nhanh cho nên nếu chỉ cần trúng gói mua nhà thì giá lại sẽ lên cao nên mọi người đang chạy đua để giành cơ hội .

〈한글 기사 7면〉

#공공증혜소

이민법 전문 변호 안내

김예진 변호사

지율이민법센터

다문화가족과 이주민

비자 변경, 국적 취득, 성본창설
가족법 문제 등 모든 상담 가능

모국어 통역 상담

영어(English), 태국어(ภาษาไทย),
중국어(汉语), 베트남어(Tiếng Việt),

이주민 상담

010.2782.8579

#종아오만개!

유튜브 채널로 시민과 다양한 소통

광명시, 교육 및 건강관리 동영상 정보 전달

광명시에 사는 다문화가족이라면 광명시의 공식 유튜브 채널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건강을 지키면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받을 수 있어 적극적으로 활용해볼 만하다.

#2021학년도 대입전략설명회' 비대면(동영상)

광명시는 매년 고3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열었던 대입전략설명회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광명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한다.

광명시는 코로나19를 예방하고자 현장 설명회 대신 온라인 영상을 제공하기로 하고, 광명시진로진학교사 협의회와 함께 동영상 제작에 나섰다.

동영상은 1부 대입전략 강의(90분)와 2부 질의·답변(30분)으로 제작할 계획이며 청소년수련관 미디어센터에서 촬영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두 차례 촬영과 편집을 거쳐 7월 말 광명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광명시 광명씨'에 게시할 계획이다.

광명시 관계자는 “현장 대입전략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학부모와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입전형 분석과 변화하는 입시 정보 등 알찬 내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장은 “코로나 시대,

광명시는 시민을 찾아갈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여 시민이 필요로 하는 업무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광고당 티비' 개설
광명시는 시민의 고혈압, 당뇨병 관리를 위한 비대면 교육을 진행하고자 유튜브 채널 '광고당 티비'를 개설했다.

광명시는 광고당 티비로 고혈압, 당뇨병 관리 교육뿐 아니라 자가 혈당 측정법,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등 자가 관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당뇨환자의 먹방', '고당 환자의 한 끼 밥상'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질환 관리 방법에 대해 재미있는 영상을 소개할 예정이다.

광고당 티비를 이용하려면 유튜브 검색창에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을 검색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광명시보건소 건강증진팀(02-2680-5509) 및 광명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 교육센터(02-2689-9911)로 전화하면 된다.

광명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 19 상황에 맞춰 비대면 교육으로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지식 전달과 합병증 예방에 힘써 시민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의 기자

“창업 준비 다문화가족, 도움받자”

광명시, '창업지원센터 무료 상담창구' 운영

창업을 고민하는 다문화가족이라면 창업지원센터 무료 상담창구를 이용해보자. 광명시는 7월부터 초기 창업자를 위한 무료 상담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28일 개관한 광명시 창업지원센터는 지역 예비창업자부터 성장단계 기업까지 창업 관련 업무 지원시설로 독립오피스, 공용오피스, 코워킹라운지(카페, 스튜디오,미팅룸) 등 전 층을 창업자 맞춤형 공간으로 구성해 시민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파트너오피스는 창업지원센터와 제휴한 외부 전문가 관계자 등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간단한 세무, 법무 등 기초 상담 및 미니 엑셀러레이터, 사업계획서 작성 등 그룹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해 창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창업자 누구나 사전예약 후 선착순으로 이용할 수 있다.

광명시 관계자는 “창업지원센터는 지역 스타트업의 주요 활동무대이자 창업 동반자로 든든한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창업을 준비하는 시민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상담창구는 매월 첫째 주 월, 화, 수요일 3일간 창업지원센터 파트너오피스에서 운영되며 오전 10시부터 세무, 법무, 지식재산 관련 문제를 무료 상담한다. 상담창구 이용 관련 문의는 창업지원센터(02-2680-6662)로 전화하면 된다.

한편 광명시는 2015년 청년창업지원센터 개관을 시작으로 창업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168개 팀 발굴, 36억여원의 초기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창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다문화가족도 참여해 보자.
김영의 기자

독자여러분께 알립니다

경기다문화뉴스는 경기도와 30개 시군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문화가족의 생활정보 및 정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행되는 신문입니다.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주민 등 구독을 원하는 다문화가족 혹은 구독을 원치 않는 분 그 밖에 주소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경기다문화뉴스 편집부로 연락해 주세요.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21번길 5
- 전화 031-8001-0211 ● 문자 010-2455-9331(변동사유, 이름, 주소 문자가능)

신문발간을 위해 애써주시는 30개 지방자치단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원시, 부천시, 용인시, 평택시, 화성시, 군포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오산시, 하남시, 여주시, 양평군, 과천시, 의정부시, 파주시, 양주시, 구리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고양시, 남양주시, 성남시, 안산시, 안양시, 시흥시, 광명시, 의왕시, 가평군

경기다문화뉴스

"광명에서 지구촌 곳곳의 세계음식 만들며 음식문화 체험해요"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원데이쿠킹클래스 베트남 요리로 힐링

원데이 쿠킹 클래스 진행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임무자)는 지난 7월 10일 오후 19~21시 '원데이 쿠킹 클래스' 2회기를 진행했다. 원데이 쿠킹 클래스는 지구촌 곳곳의 세계음식을 직접 만들고 맛보는 음식문화 체험프로그램이다.

두 번째 회기는 여름과 잘 어울리는 채소 비빔국수 '뽕'과 베트남식 만두 '넴란' 만들기로 이루어졌다. 생활 속 거리두기 관련 지침에 따라 소수인원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넴란'은 재료가 풍성해 손은 많이 들어가지만 바삭하고 담백해 남녀노소 모두 즐겨 먹는 베트남 국민 음식이다.

채소와 고기, 해산물을 다지고 라이스페이퍼 안에 다진 속을 넣어 바삭 바삭 튀기면 동글동글한 베트남 만두 '넴란'이 완성된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은 "신선한 재료를 씻고 조리하다 보니 몸도 마음도 덩달아 깨끗하고 튼튼해지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며 "오랫동안 집 안에서만 생활하느라 답답했는데 채소 가득한 베트남 요리를 만들며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베트남을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요즘, 베트남 전통 음식을 만들며 베트남을 느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며 "지친 몸과 마음도 힐링하

고, 푸짐한 저녁 밥상도 만들어가는 원데이 쿠킹 클래스는 매달 진행되는 만큼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참여해 다양한 국가의 문화와 소통하는 기회를 가져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한국어교육 모집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2020 하반기 한국어교육'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한다.

한국어교육은 기초교육 필요자를 위한 ▲1단계(오후 1시~3시)와 ▲2단계(오후 1시~3시) ▲3단계(오전 10시~12시) ▲4단계(오전 10시~12시)와 ▲토픽반(토픽 시험 준비자 3, 4급/8월 4일~11월 10일/

오후 2시~4시) ▲특수목적(3, 4단계 수준 실력자/자녀학습지도, 취업 등/9~11월) ▲말하기반(3, 4단계 수준 실력자/일상생활 말하기/ 9~10월) ▲입문반(기초교육 필요자/10~11월)을 운영한다.

코로나 19 및 센터 상황에 따라 수업 진행은 변동될 수 있으며 전화(02-6265-1366) 및 방문 접수한다. 센터 방문 시에도 전화예약을 해야 한다. 배치고사는 24일 오전 10시, 설명회는 27일 오전 10시이며 모두 센터 배움터에서 진행된다. 수업비는 무료다. 한국어교육 1단계~4단계 수업은 7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이뤄진다. 이지는 기자



2020 하반기 | 한국어 교육 모집

수업명	대상 및 내용	수업일시	비고
1단계	기초교육 필요자 (지역문화 활용)	7월 29일 ~ 12월 7일 (월,수,금) 13:00-15:00	센터 수업
2단계	1단계 수료 수준 실력자 (지역문화 활용)	7월 29일 ~ 12월 7일 (월,수,금) 13:00-15:00	온라인 수업
3단계	2단계 수료 수준 실력자 (지역문화 활용)	7월 29일 ~ 12월 7일 (월,수,금) 10:00-12:00	
4단계	3단계 수료 수준 실력자 (지역문화 활용)	7월 29일 ~ 12월 7일 (월,수,금) 10:00-12:00	
토픽	토픽 시험 준비자 (3,4급)	8월 4일 ~ 11월 10일 (화,목) 14:00-16:00	
특수목적	3,4단계 수준 실력자 (자녀학습지도, 취업 등)	9월-11월	추후 모집예정
말하기반	3,4단계 수준 실력자 (일상생활 말하기)	9월-10월	
입문반	기초교육 필요자	10월-11월	

※코로나19 및 센터 상황에 따라 수업진행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접수기간** 2020.07.13(월) ~ 모집 완료시까지
- 접수방법** 전화 및 방문(장원희 02-6265-1366) *센터 방문 시 전화예약 필수
- 배치고사** 7.24(금) 10:00 센터 배움터
- 설명회** 7.27(월) 10:00 센터 배움터
- 수업비** 무료 (교재비 별도)

광명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도서관 www.bookhg.com 국내 최대 다문화정보



세계 각지의 다양한 서적을 만나보세요!

- 도서대출(외국도서, 국내도서)
- 교과서대출(전 세계국가, 국내)
- 다문화전자책 나눔 국내유일
- 비도서(DVD, CD, 잡지) 나눔(전세계)
- MARC DATA 구축, 정비, 타킹, 비가작업

한결문고

경기 부천시 평안로 505 북천테크노파크 402동 403호
 전화: 032-325-4755 팩스: 032-325-4772
 E-mail: hope6401@hanmail.net Website: www.bookhg.com

"다문화가족도 다양한 문화 이해하고 문화적 감수성 높여요"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문화 다양성 이해교육 및 체험 실시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지난 7월 11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중국, 베트남 문화체험'을 실시했다.

경기도와 김포시가 지원하는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사업은 다문화 인식개선 및 문화적 감수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이다. 다문화가족들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인식개선 교육이 필요하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활동과 중국·베트남 문화체험으로 전통놀이와 의상 체험, 포토존 사진촬영, 음식 및 공작체험 등으로 구성

됐다.

코로나19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가정에서 체험해볼 수 있는 음식 및 공작체험 키트도 제공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진행한 프로그램은 총 62명이 참여할 만큼 인기가 많았다.

체험 참가자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과 베트남의 문화를 체험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다문화 감수성을 높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우즈베키스탄 결혼이주여성 밀도라 씨는 "아이

들과 집에만 있어서 답답했는데 센터에서 제공한 키트를 아이들과 체험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며 "덕분에 다른 다문화가족들의 모국에 대해 이해할 기회가 되었다. 다음에는 우즈베키스탄 문화도 소개하고 싶다"고 소감을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향후 프로그램에 대한 대상자들의 희망도가 높아 이후에도 다문화가족들을 대상으로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비대면 및 온라인교육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정확한 정보, 교육으로 활동가 역량 높여요

김포건가다가, 가족 지원 활동가, 성희롱 등 예방교육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7월 3일 오전 10시 센터 교육실에서 방문교육지도사 및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활동가(키움보듬이, 지지리더, 배움지도사)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성매매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지난 성폭력·가정폭력예방교육에 이어 진행된 이번 교육은 올바른 성문화를 정착하고 관련 사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출석부 작성 등이 철저히 지켜졌다.

김보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가 나서 직장 및 가정내 폭력근절을 위해 방문교육지도사 및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활동가로서의 역할의 중요성과 실천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교육은 방문교육지도사 및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활동가의 올바른 성인지각수성을 함양하고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성희롱·성매매 사건에 대해 성희롱 피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익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김포시 개인 및 가족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회가 됐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활동가는 "이번 교육으로 성희롱·성매매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당황하지 않고 신속히 대응하는 방법을 알 수 있었다"며, "대상가정에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지은 기자

김포지역 청년 창업지원 모집 다문화가족도 창업 도전해요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부천시와 협업으로 김포·부천시지역 청년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김포·부천(GB)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우선 김포시는 4차 산업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청년 창업지원 프로그램으로 '창업경진대회&인큐베이팅' 창업 참가팀을 오는 24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김포·부천에 거주하는 청년층(19~34세)과 특성화고 및 대학 졸업예정자를 비롯한 구직자·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4차 산업 혁명에 맞춰 예비창업을 준비하는 청년과 스타트업에 관심있는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IOT, AI, 클라우드, 모바일, 빅데이터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창업교육부터 멘토링 과정까지 무료로 진행되며 최종 선발된 창업팀(개인포함) 2팀에게는 창업지원금 각 1,250만 원을 지원하며, 지역 청년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김포시 청년창업 사우센터(청년취·창업센터)에 창업지원 장소로 활용한다. 이지은 기자



다문화가족을 위한
전화번호 안내

김포시청 031-980-2114 김포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031-996-5923 김포외국인주민지원센터 031-986-7660 이주노동자지원센터 김포이웃살이 031-987-6241 김포이주민센터 031-982-7661 김포여성의전화 031-986-0136 김포고용복지플러스센터 031-999-0900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 031-492-9347 범죄신고 112 간첩신고 111 화재, 응급환자발생 및 병원정보 119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1577-1366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397 전기고장신고 123 수도고장신고 121 가스사고신고 1544-4500 법률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전국전화번호안내 114 세계시간안내 116 일기예보안내 131

[Kế hoạch 2]Cơn bão bất động sản của Hàn quốc, gia đình đa văn hóa sẽ như thế nào? Chính sách bất động sản ngày 10 tháng 7, tiền thuế của các nhà đa cư trú tăng mạnh... phương pháp mua nhà đơn giản hơn cho những người không nhà cửa

Gần đây giá nhà chung cư đang tăng rất nhanh nên những người không mua được nhà thì bất mãn rất nhiều. 2 năm trước đây tại một thành phố của tỉnh Gyeong gi do, có một người vay 200 triệu won và mua nhà 300 triệu won, chỉ trong vòng 2 năm giá nhà đã tăng lên 450 triệu won và người đó đã kiếm lời được 150 triệu won. Nếu đã mua nhà tại seoul thì do việc giá nhà tăng không ngừng nên việc nhiều người có thể kiếm dễ dàng 300 triệu won là điều dễ dàng ở đây. Đây là công việc kiếm một số tiền lớn dễ dàng mà nếu bạn muốn kiếm số tiền này bạn sẽ phải đi làm rất vất vả mới kiếm được. Chỉ 2 năm trước, nếu có 300 triệu won thì đã có thể mua được nhà nhưng giờ đây phải có 450 triệu won thì mới mua được nhà, điều này làm không ít người phải lo lắng rất nhiều. Đặc biệt là tại Seoul khi giá nhà đang tiếp tục tăng và những nhà nằm ở vị trí đẹp thì có giá lên tới 900 triệu won, nhà ở vị trí bình thường thì việc tìm nhà với mức giá dưới 400 triệu won là rất khó. Đạo gần đây do việc giá bất động sản tăng nhanh chóng mặt nên người dân không thể mua nhà, về việc này chính phủ đã có đưa ra những chính sách đa dạng khác nhau. Chúng ta hãy cùng tìm hiểu chính sách đã được ban hành ngày 7 tháng 10

Những người không có nhà có thể mua nhà dễ dàng

Chính sách lần này của chính phủ có thể được tóm tắt làm hai ý chính xung quanh nội dung nếu một người sở hữu nhiều nhà thì tiền thuế chắc chắn sẽ phải đóng nhiều, còn với những người không thể mua nhà thì sẽ có chính sách hỗ trợ mua nhà dễ hơn dành cho những người này.

Trước tiên, chính phủ tiến hành thiết lập chế độ " cung cấp đặc biệt

Chế độ cung cấp đặc biệt là chế độ cung cấp thêm lượng nhà riêng nhất định dành cho những đối tượng mua nhà lần đầu như là vợ chồng mới cưới, gia đình nhiều con, gia đình nuôi bố mẹ già ..vv,.. Đối với nhà có mức giá trên 900 triệu won thì không được cho vào danh mục còn với nhà dưới 85m2 thì chỉ

áp dụng cho các nhà loại nhỏ có cùng diện tích. Nhà ở tư nhân thì hiện tại mức cung cấp đặc biệt phải làm có tỷ lệ là đối với vợ chồng mới cưới là 20%, gia đình đông con là 10%, cơ quan 10%, bố mẹ già phụ thuộc là 3% ..vv.. tổng là 43%. Ở đây thì sẽ cung cấp mới lượng nhà ở khoảng từ 7~15%

Đối với chế độ cung cấp đặc biệt cho vợ chồng mới cưới thì trong số những người cư trú ở khu vực tương ứng nếu gia đình nào có nhiều con thì sẽ được xếp ở vị thế ưu tiên, nhà không có con hoặc chỉ có 1 con thì khả năng trung gói mua nhà ưu đãi là khó.

Tiền vay khi mua nhà ?

Người không có nhà nếu muốn mua nhà chung cư thì nhất định phải vay tín dụng. Vì sẽ là bất hợp lí nếu chỉ cho người có tiền nhiều mới mua được chung cư. Tuy nhiên nếu người có nhiều tiền đi vay tiền rồi đầu tư mua 3 căn chung cư thì vì lí do này giá chung cư lại tăng nên để ngăn chặn vấn đề này, chính phủ đã đưa ra chính sách giảm cho vay mua chung cư bằng cách chỉ định các khu vực đối tượng chỉ định, các khu vực phát sinh nhiều giao dịch bất động sản sẽ được chỉ định là khu vực đầu cơ nóng bất động sản.

Theo như trên thì người không có nhà sẽ không thể mua nhà do tác dụng phụ của quy định trên gây ra nên vào ngày 10 tháng 7 chính phủ đã ban hành quy định để hơn về mức tiền cho vay đối với người không có nhà đó là (tỷ lệ cho vay thế chấp nhà ở (LTV) và giảm bớt tỉ lệ trả nợ (DTI)

Các khu vực được chỉ định là khu vực bất động sản nóng trong tỉnh Gyeong gi do như là thành phố suwon, hà nam, yongin, ansan, namyujang, gojang ..vv.. 1 phần các thành phố của tỉnh gyeonggi do thì chỉ được vay 40% để mua nhà. Những nơi được chỉ định là khu vực đối tượng điều chỉnh thì có thể vay lên đến 50%. Tuy nhiên đối với người không có nhà thì có thể được vay nhiều hơn 10% so với mức quy định. Đối với gia đình đa văn hóa thì nếu bạn định mua nhà cho riêng mình thì phải tìm hiểu xem là khu vực mình sinh sống thuộc khu vực

chỉ định nào. Như thế thì mới biết được mức vay mà mình có thể đăng ký được là bao nhiêu.

Thuế nhà đa cư trú tăng cao

Người có sở hữu nhà trên 2 căn hộ thì căn cứ theo chính sách lần này, người này sẽ phải nộp thuế rất nhiều. Khi mua nhà thì phải nộp tiền thuế sở hữu cho chính quyền địa phương và mức thuế phải nộp thêm là đối với nhà 2 hộ là 8%, nhà trên 3 hộ là 12%, không xét mức giá nhà ở là bao nhiêu. Nếu hiện tại đang có 1 căn nhà và mua thêm 1 căn nhà 300 triệu won thì mức thuế sẽ phải đóng là 24 triệu won. Người không có nhà khi mua nhà thì thay vì phải đóng mức thuế sở hữu là 1% thì lại được giảm giá 50% và chỉ phải nộp 0.5% thuế.

Nếu đang có nhà và muốn bán đi thì thuế chuyển nhượng cũng sẽ rất cao. Trường hợp mua nhà chung cư theo khu vực quy định bất động sản và sau 1 năm nếu bán đi thì phải đóng mức thuế là 70%, từ ngày mua đến ngày bán nếu

chưa được 2 năm thì phải đóng 60% thuế. Ví dụ nếu bạn mua nhà chung cư 300 triệu won và bán với giá 400 triệu won thì mặc dù bạn lãi được 100tr won nhưng nếu thời gian từ lúc mua đến lúc bán chưa được 1 năm thì bạn sẽ phải nộp 70 triệu won tiền thuế, từ lúc mua đến lúc bán chưa được 2 năm thì phải đóng 60 triệu won tiền thuế

Vì đã có nhà nên tiền thuế bất động sản tổng hợp phải nộp cũng sẽ tăng cao . Trong khu vực đối tượng điều chỉnh, nếu bạn sở hữu nhà chung cư 2 hộ mà có giá tổng là 200 triệu won thì mức thuế bất động sản tổng hợp sẽ tăng trong khoảng từ 56,8 triệu won lên 148,7 triệu won, trường hợp nhà có giá trị là 300 triệu won thì sẽ tăng từ 146,7 triệu won lên 378,7 triệu won, tăng gấp khoảng 2 lần. Người sở hữu trên 2 căn nhà thì phải nên bán nhanh. Nhà 1 căn hộ thì tiền thuế sẽ thấp hơn nhiều.

(한글 기사 24면)

해수욕장 거리 두기 안전하게 여름 나기

해수욕장 행동수칙

- 가족 단위 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 등 많은 인원이 함께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 개인 차량 시설은 차량 끝을 기준으로 최소 2m 이상 거리를 두어 설치하기
- 해수욕(물놀이, 백사장 활동) 시 다른 사람과 신체적 접촉이 없도록 주의하기
- 백사장 및 물놀이 구역에서 침 뱉기, 코 풀기 등 체액 배출을 자제하기
- 해수욕장 내에서 음식을 섭취를 최소화하고 대화 자제하기
- 탈의실, 샤워실 등은 가급적 개인 속소 시설 등을 이용하기
* 불가피하게 공용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가 가능하도록 한 칸 떨어져 사용하고 대화는 자제하며,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 하기
- 물놀이 용품(튜브, 물안경, 구명조끼, 스노클링 장비(습, 대롱) 등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기

코로나19 기본 행동수칙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가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실내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 부르기, 소리 지르기 등)나 신체 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실내에서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인클로버재단, 가족의 소중함 느낄 수 있는 가족사진 촬영 진행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 사진촬영 및 도서 전달식’

김포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김연화)는 인클로버재단(이사장 한용외)의 후원을 통해 지난 7월 11일 센터에서 다문화가족 20가정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이날 가족사진 촬영은 전국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무료 가족사진을 찍어주는 인클로버재단에서 카메라, 조명, 사진인화를 위한 촬영세팅, 기본메이크업과 헤어 세팅을 준비해 이뤄졌다.

여기에 센터직원 및 결혼이민자 서포터즈가 지원해 다문화가족들이 현장에서 가족사진을 촬영한 뒤 즉석으

로 포토샵 수정 과정을 거쳐 사진인화 후 액자에 넣어 각 가정에 전달했다.

특히 인클로버재단은 이날 영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2가족에게 음성지원이 되는 담뱃(Tombok)기기 및 도서 24권을 지원하는 도서 전달식을 가졌다.

센터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가족사진 촬영을 하는 만큼 사전에 철저한 방역과 소독 등을 실시했다.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센터직원, 결혼이민자 서포터즈를 비롯해 가족사진촬영 스텝 모두 마스크 착용과 발 열체크를 실시했다.

다문화가족들도 가족사진 촬영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차를 두어 센터에 방문하도록 안내하여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만전을 기하였다.

가족사진 촬영에 참여한 한 다문화가정 아버지는 “집에 가족사진이 없어서 미안했는데 이번 기회에 가족사진 촬영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도와준 센터 및 재단에 감사드리며,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지은 기자



[规划1] 在韩国房地产的狂风中，多文化家庭该怎么办？

韓國市场格外偏爱公寓，多元文化家庭要理解认购制度

韩国的房地产市场很奇特。在各种居住形式中，唯独对公寓(Apartment)的人气太高。单独住宅、多户型住宅等其他结构住房人气并不高而且房价随着时间的推移也会下降。相反，公寓价格会随着时间的推移不断上涨。最近公寓价格涨得很猛。还没来得及购买公寓的人们向政府表示不满的最大原因是若在好的位置拥有公寓，1年内房价上涨而可以赚1~2亿韩元以上。即使在公司积极工作，一年挣5千万韩元也很难，但有人以拥有公寓为由，什么都不用做就可赚到1亿韩元，这让人很生气。因此，很多韩国人都热衷于购买公寓。《京畿多文化新闻》在本期上将对韩国的公寓认购制度和政府的居住福利政策加以解读。

韩国住宅认购制度

由于公寓很受欢迎，想买公寓的人越来越多，因此政府制定了住宅认购制度。其内容就是想购买住宅的人提前到银行加入住宅认购账户，如果具备一定的条件，就可以获得订购出售公寓资格。虽然人们去房地产中介直接购买公寓，但人们纷纷加入该账户的理由是为了以更低的价格购买新公寓。目前，购房商品有“购房综合储蓄”和“青年优惠型购房综合储蓄”两种。每月2~50万韩元的范围内定期缴纳本人愿意缴纳的金额。添加略高利息的“青年优惠型住宅承购综合储蓄”只限于满19岁以上至34岁以下的人。

加入认购账户后，重要的是不拖欠规定的缴纳

金，坚持缴纳。金额无关紧要。如果每人交2万韩元，交12个月，通常会成为第一顺位。申购时，可根据申购存折加入期限、无住宅期限、抚养家属人数、未成年子女人数等获得分数。

根据无住宅期限(每一年给加2分)、抚养家属人数(每人5分)、申购存折加入期限(1~17分)等情况分别加不同的分数。申购加分最少8分，最多84分。当然，分数越高，中奖新公寓的几率就越高。

使用申购预约购房账户进行普通申购

以2019年12月为准，全国约有2550万名加入了该储蓄。京畿道地区有676万人，人数最多，首尔有662万人。据悉，全国人口的49.4%拥有认购存折。从中可以看出韩国人想要中奖新公寓的意志是多么的强烈。

如此多的人加入预约购房账户，因此如果实际进入公寓预约，人气地区的竞争率高达100比1以上。因为这么多人要以分数计算，所以实际给予认购加分的方式是非常复杂的。有兴趣的多文化家庭应该仔细观察订购公告等信息。预计，要想在公寓价格上涨幅度最大的首尔地区公寓销售中中奖，最少得需要60分以上的加分。

使用特殊供应

如此一来，很多多文化家庭可能会认为，很难通

过需要大量准备的认购制度购买公寓。因此，政府建立了“特殊供应”制度。这是为了让多子女家庭、新婚夫妇、残疾人、单亲家庭、多文化家庭等社会弱势群体提供获得公寓的机会。

“新婚夫妇特别供应”是指结婚7年以内的新婚夫妇。所有家庭成员的月收入低于上一年度城镇职工家庭月收入的100%(3人家庭为540万1814韩元，4人家庭为616万5202韩元)的情况下才可进行订购(双职工家庭为120%以下)。

“多子女家庭特别供应”是指有3名以上未成年子女的家庭，且符合收入标准(使用面积84.9平方米以下的国民住房不低于上一年度城镇职工家庭月收入的120%，民营住房不适用)的人才可订购。

还有“多文化家庭特别供应”是作为多文化家庭成员，与配偶在同一地址居住3年以上的人才可获得资格。通常只招收两户。还有“单亲家庭特别供应”等。

新婚夫妇和多子女、多文化家庭特别供应也需要缴纳6个月以上的认购预约账户存折。

即使是被选中了特别供应，也未必会给予楼价折扣。无论是以一般认购方式中奖或以特别供应方式中奖，楼价均须同样缴付。但是考虑到最近的公寓价格暴涨，不管怎么想，只要一中奖，价格就会上涨，所以大多数人都一跃而上地涌入到预约购房市场。

<한글 기사 7면>



“과천 다문화가족 복리 위해 힘 모아요”

▲과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성준)는 지난 6월 18일 센터 1층 로비에서 (주)아시안허브(대표 최진희) 협약식을 진행했다. 아시안허브는 결혼이주여성의 교육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 문화전문기업이다. 이지은 기자

과천축제 시민기획단 본격 활동 시민교육 프로그램 수료자 참여

과천시는 지난 7월 시민 21명에게 ‘과천축제 시민기획단’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오는 9월 개최되는 제24회 과천축제를 위한 제4기 과천축제 시민기획단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됐다.

시민기획단은 과천시가 주최하고 재단법인 과천축제가 주관하는 과천시 대표 문화예술축재인 과천축제의 기획에서 진행,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한다.

과천시는 시민기획단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참여 신청한 시민을 대상으로 축제 교육 프로그램 ‘과천축제 기획인 학교’를 5월부터 7월까지 9주간 실시하고, 과정 수료자에 대해 시민기획단 참여 기회를 부여했다. 시민기획단은 오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 개최되는 과천축제의 준비와 진행, 결과 보고가 이루어질 때까지 매주 1회 회의를 개최하며, 축제 프로그램의 기획과 홍보 등에 직접 참여한다. 특히, 과천시는 시민기획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올해부터는 각 분야 전문가인 멘토를 지정하여 시민기획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기획특집 1] ความนิยมด้านอสังหาริมทรัพย์ของเกาหลีครอบครัวมุสลิมชาวคาบองเป็นอย่างไร?

ตลาดอสังหาริมทรัพย์อพาร์ทเมนต์ของเกาหลีทำความเข้าใจกับระบบสมัครสมาชิกครอบครัวมุสลิมชาวคาบอง

ตลาดอสังหาริมทรัพย์ของเกาหลีนั้นมีความพิเศษมากในบรรดาที่อยู่อาศัยประเภทต่างๆ ความนิยมของราคาอพาร์ทเมนต์สูงเกินไปบ้านครอบครัวเดี่ยว, วิลล่า, บ้านหลายครอบครัว ฯลฯ ไม่ได้ได้รับความนิยมมากและราคาลดลงตามกาลเวลาในทางตรงกันข้ามอพาร์ทเมนต์ยังคงเพิ่มขึ้นในราคาเมื่อเวลาผ่านไปในปีที่ผ่านมา ราคาอพาร์ทเมนต์ได้เพิ่มขึ้นอย่างมากผู้ที่ไม่ได้ซื้ออพาร์ทเมนต์ที่นับกับรัฐบาลเพราะผู้ที่มีอพาร์ทเมนต์ในทำเลที่ดีมีรายได้มากกว่า 100 ล้านวอนต่อปีแม้ว่าฉันจะทำงานหนักมากในขณะที่ทำงานกับบริษัทมันก็ยากที่จะได้รับ 50 ล้านวอนต่อปี "ฉันโกรธที่บางคนหนึ่งและรับ 100 ล้านวอนเพราะพวกเขามีอพาร์ทเมนต์ด้วยเหตุนี้ชาวเกาหลีจำนวนมากยึดติดกับการสมัครสมาชิกอพาร์ทเมนต์ในฉบับนี้ข่าวความหลากหลายทางวัฒนธรรมของก็ดูที่ระบบสมัครสมาชิกอพาร์ทเมนต์ของเกาหลีและนโยบายสวัสดิการที่อยู่อาศัยของรัฐบาล

ระบบการจองซื้อที่อยู่อาศัยของเกาหลี

เนื่องจากอพาร์ทเมนต์ได้รับความนิยมมีหลายคนที่ต้องการซื้อ ดังนั้นรัฐบาลจึงสร้างระบบการสมัครสมาชิกที่อยู่อาศัยระบบการสมัครสมาชิกที่อยู่อาศัยเป็นระบบที่อนุญาตให้ผู้ที่ต้องการซื้อบ้านไปที่ธนาคารล่วงหน้าเพื่อสมัครสมาชิกและการสมัครสมาชิกคอนโดมิเนียม

คุณสามารถไปที่บริษัทตัวแทนอสังหาริมทรัพย์และเพียงซื้ออพาร์ทเมนต์เหตุผลที่ผู้คนสมัครสมาชิกคือการซื้ออพาร์ทเมนต์ใหม่ในราคาที่ต่ำกว่าในปัจจุบันมีผลิตภัณฑ์การสมัครสมาชิกที่พอกอศัยสองประเภท: 'ออมทรัพย์' เพื่อการสมัครสมาชิกทั่วไป และ 'ออมทรัพย์ออมทรัพย์ขนาดใหญ่สำหรับเยาวชน' คุณต้องจ่ายจำนวนเงินที่คุณต้องการทุกเดือนตั้งแต่ 2 ถึง 500,000 วอนต่อเดือน 'การออมเพื่อการอยู่อาศัยที่ครอบคลุมสำหรับเยาวชน' ซึ่งให้ความสนใจมากกว่านั้นสามารถลงทะเบียนได้

โดยผู้ที่มีอายุระหว่าง 19 ถึง 34 ปีเท่านั้น

หลังจากสมัครสมาชิกเป็นสิ่งสำคัญที่จะทำให้การชำระเงินที่สอดคล้องโดยไม่เกินกำหนดปริมาณไม่สำคัญหากคุณจ่ายเงิน 20,000 วอนเป็นเวลา 12 เดือนคุณจะถูกอันดับแรกเมื่อคุณลงทะเบียนคุณจะได้รับคะแนนตามระยะเวลา การสมัครระยะเวลาแน่นอนจำนวนผู้ติดตามและจำนวนบุตรที่ยังไม่บรรลุนิติภาวะ คะแนนแตกต่างกันไปตามระยะเวลาของการไว้ที่อยู่ (2 คะแนนต่อปี) จำนวนผู้ติดตาม (5 คะแนนต่อ 1 คน) และระยะเวลาการสมัคร (1 ถึง 17 คะแนน) จุดสมัครสมาชิกจะมีการเรียกเก็บเงินตั้งแต่ขั้นต่ำ 8 คะแนนถึงสูงสุด 84 คะแนนคะแนนที่สูงกว่ายังมีโอกาสของการชนะพาร์ทเมนต์ใหม่ที่สูงกว่าเดิม

สมัครสมาชิกทั่วไปที่มีการสมัครสมาชิก

ณ สิ้นเดือนธันวาคม 2019 มีประมาณ 25,500,000 สมาชิกจังหวัดของก็มีจำนวนสูงสุด 6.67 ล้านคนและโซลมีจำนวน 6.62 ล้านคน เป็นที่ทราบกันว่าประมาณ 49.4% ของประชากรของประเทศเกาหลีมีบัญชีสมาชิก คุณสามารถดูว่าชาวเกาหลีมีความตั้งใจที่จะชนะในจองซื้ออพาร์ทเมนต์ใหม่ที่ยอดเยี่ยมแค่ไหน

เนื่องจากผู้คนจำนวนมากกำลังสมัครรับการสมัครสมาชิกพื้นที่ที่ได้รับความนิยมสูงสุดคือ 100 ต่อ 1 หรือมากกว่าเมื่อเข้าสู่การสมัครสมาชิกอพาร์ทเมนต์วิธีการให้คะแนนการสมัครจริงนั้นซับซ้อนมากเนื่องจากบุคคลเหล่านี้ต้องทำคะแนนครอบครัวชาวคาบองที่สนใจควรดูแลประกาศการสมัครสมาชิกให้ดี คาดว่าอย่างน้อย 60 คะแนนจะต้องชนะการเปิดตัวพาร์ทเมนต์ใหญ่ในกรุงโซลซึ่งราคาอพาร์ทเมนต์จะเพิ่มขึ้นมากที่สุด

โดยใช้อุปกรณ์พิเศษ

ในเวลานี้ครอบครัวชาวคาบองอาจพบว่าเป็นการยากที่จะขายอพาร์ทเมนต์ผ่านระบบสมัครสมาชิกซึ่งต้องมีการเตรียม

การมากมายดังนั้นรัฐบาลจึงสร้างระบบที่เรียกว่า 'อุปทานพิเศษ' เพื่อให้ง่ายขึ้นสำหรับกลุ่มที่มีความเสี่ยง ทางสังคมเช่นเด็กหลายคนคู่บ่าวสาวคนพิการครอบครัวผู้ปกครองเดี่ยวและครอบครัวหลายวัฒนธรรมที่จะชนะได้รับอพาร์ทเมนต์ได้ง่ายขึ้น

'อุปทานพิเศษสำหรับคู่บ่าวสาว' สามารถส่งได้หากพวกเขาแต่งงานภายใน 7 ปีหากรายได้เฉลี่ยต่อเดือนของสมาชิกทุกคนในครัวเรือนน้อยกว่า 100% ของรายได้เฉลี่ยต่อครัวเรือนของคนทำงานในเมืองในปีที่แล้ว (3,540, 18,140 วอน, 4, 616,5202 วอน) คุณ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สมาชิกได้ 'ข้อกำหนดพิเศษสำหรับครัวเรือนที่มีเด็กหลายคน' สามารถสมัครเป็นสมาชิกได้หากมีเด็กเล็กสามคนขึ้นไปและได้มาตรฐานรายได้ (120% หรือน้อยกว่าของรายได้เฉลี่ยต่อเดือนต่อครัวเรือนของคนทำงานในเมืองในปีที่ผ่านมา

นอกจากนี้ยังมีอุปทานพิเศษสำ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ชาวคาบองในฐานะสมาชิกของครอบครัวหลายวัฒนธรรมบุคคลที่อาศัยอยู่ในที่อยู่เดียวกันเป็นเวลาสามปีหรือมากกว่านั้นกับคู่สมรสมีสิทธิ์โดยปกติจะคัดเลือกเพียง 2 รุ่นนอกจากนี้ยังมีบริการพิเศษสำหรับครอบครัวที่มีผู้ปกครองคนเดียว

คู่บ่าวสาวหลายลูกและครอบครัวชาวคาบองอาจต้องมีจดหมายสมัครเป็นเวลาหกเดือนหรือมากกว่าถ้าคุณชนะการจัดหาพิเศษมันไม่ได้ลดราคาอพาร์ทเมนต์ ราคาของผู้ชนะการสมัครสมาชิกทั่วไปหรือผู้ที่ได้รับรางวัลพิเศษหรือราคาอพาร์ทเมนต์จะต้องจ่ายเท่ากัน อย่างไรก็ตามเมื่อพิจารณาจากอพาร์ทเมนต์ที่พุ่งสูงขึ้นอย่างรวดเร็วราคาที่สูงขึ้นจากผู้ชนะดังนั้นทุกคนก็กระโดดเข้ามา

〈한글 기사 7면〉

창의적 가정환경 조성해 자녀 발달 도와요

안양건가다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실시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6월 한 달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부모교육 “너와 나 사이, 공감” 사업을 진행했다.

이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육아에 대한 고민을 해소시켜 양육 태도를 증진하는 것은 물론,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와 함께 창의 미술을 하면서 유아의 창의성 발달을 돕고, 부모가 스스로 창의적 가정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유아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10가족이 참여해 6월 2일부터 ‘자녀와 그림책을 읽을 때 학습방법’을 주제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교육을 수강했다.

10일과 19일에는 북아트 만들기 키트를 배부해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창의적 미술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인증샷을 찍고 만든 작품과 활동사진 2장을 센터에 제출했다.

이번 부모교육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엄마는 “코로나 때문에 외출이 어려운데 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와 함께 하는 일상에 대해 생각하고 여러 가지 활동에 참여하는 기회를 얻었다. 감사하다”고 말했다.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과 양육스트레스가 유아의 사회적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부모의 창의적 가정환경 조성이 유아의 창의성 발달에도 매우 중요하다. 관련 프로그램 추진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2,900명... 다문화가족도 참여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시민 2,900명을 모집한다.

참여대상은 사업시행일 기준 만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안양시민으로 취업 취약계층(코로나19로 실직·폐업 경험자 포함), 휴업자, 무급휴직자 등 지역경제침체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경우이다.

사업 기간은 8월19일부터 11월30일까지이며, 생활방역지원을 비롯해 업무보조(사무보조, 도서정리, 안내등), 현장지원(환경정화, 녹지, 도로 등), 건물내(건물청소, 주방보조 등)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넘을 경우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폐업 경험자를 우선 선발하며 8월13일 결과를 개별통보 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번 희망일자리사업이 시민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경제 지원으로 주민들의 일상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Kế hoạch 3] Tập trung vào chính sách phúc lợi về cư trú của chính phủ, môi trường cư trú không thuận lợi của các gia đình đa văn hóa,

Để ổn định hóa nơi cư trú cho các tầng lớp thu nhập thấp, chính phủ trung ương và tỉnh Gyeonggi-do cùng với Công ty thi công nhà ở Hàn quốc (LH) và công ty thi công thành phố Gyeonggi – do đang thực hiện dự án cho thuê nhà ở dài hạn và mua nhà dành cho những người có địa chỉ cư trú tương ứng với địa chỉ trên chứng minh thư, đợt đăng ký đang được mở tại trung tâm hỗ trợ người dân và trung tâm phúc lợi hành chính <한글 기사 34면>

Thời gian mở đăng ký có thể khác nhau tùy theo nơi ở của bản thân nên có vấn đề thắc mắc, các bạn có thể hỏi qua LH

Dự án hỗ trợ nhà cho thuê là dự án được tổng công ty xây dựng tỉnh Gyeong gi do cùng với Công ty xây dựng nhà đất Hàn quốc thực hiện triển khai nhằm hỗ trợ cho những đối tượng có thu nhập thấp và được phân cấp theo mức độ ưu tiên tiêu chuẩn tư cách của đối tượng thuê nhà.

Trong thời gian đăng ký định kỳ, Cung cấp 2 loại hình như “ Cho thuê dài hạn nhà ở hiện tại ” và “ Dự án mua nhà cho thuê ” ..vv.. có thể phát sinh chênh lệch về mức cung cấp số lượng phụ thuộc theo cơ quan cung cấp.

Đối tượng có mức độ ưu tiên có thể nhận nhà ở được đề cử ở 2 cơ quan đó là người thuộc diện có tổng tài sản dưới 200 triệu won dựa theo tiêu chuẩn tài sản nhà ở vĩnh cửu, người có xe ô tô có giá trị dưới 24,68 triệu won. Cụ thể hơn là các đối tượng thuộc tầng lớp nhận trợ cấp y tế,

gia đình chỉ có 1 bố hoặc mẹ, gia đình có mức tỷ lệ tiền thuê nhà so với mức thu nhập cao hơn 30% trong nhóm gia đình nhận trợ cấp sinh hoạt cơ bản hoặc trong tầng lớp cao hơn hoặc là gia đình nhận hỗ trợ cư trú chưa đạt tiêu chuẩn so với mức tiêu chuẩn cư trú, là người đăng ký người khuyết tật có mức thu nhập trung bình tháng thấp hơn 70% theo từng hộ gia đình người lao động thành phố năm ngoài,

Đối tượng đứng vị trí thứ 2 có khả năng đăng ký thuê nhà dài hạn đó là người có thu nhập bình quân theo tháng thấp hơn 50% trong số những người lao động thành phố năm ngoài, là người đăng ký người khuyết tật có mức lương thu nhập trung bình theo tháng dưới 100% theo từng hộ gia đình người lao động thành phố năm ngoài và phải thỏa mãn điều kiện tiêu chuẩn tài sản nhà ở thuê vĩnh cửu. Các đối tượng thuộc nhóm thứ vị khác thì được bao gồm trong danh sách những người có công với nhà nước được thông báo bởi Bộ đền ơn đáp nghĩa.

Nhóm đối tượng thuộc vị trí thứ 2 trong danh sách những người có khả năng đăng ký nhà cho thuê là người có mức thu nhập bình quân tháng dưới 50% theo từng hộ gia đình người lao động thành phố năm ngoài, thỏa mãn tiêu chuẩn tài sản nhà ở cho thuê vĩnh cửu, người đăng ký người khuyết tật có thu nhập bình quân theo tháng dưới 100% theo từng hộ gia đình người lao động thành phố năm ngoài. Tuy nhiên, những đối tượng không có

nhà ở, nạn nhân của bạo hành gia đình, người cần sự hỗ trợ nhà ở khẩn cấp, người cùng cư trú với trẻ em dưới 18 tuổi, người thuộc diện dưới mức tiêu chuẩn cư trú thấp nhất ..vv.. thì có thể nhận được ưu tiên nhận nhà trước.

Tùy theo đối tượng hỗ trợ, loại hình nhà ở mà sẽ có chênh lệch. Đối với loại hình cho thuê dài hạn thì tổng diện tích chuyên dụng sẽ phải thấp hơn quy mô nhà ở quốc dân là 85m², và được hỗ trợ theo hình thức nhà cho thuê dài hạn hoặc là thuê theo tháng có bảo lãnh. Số tiền thuê nhà phải trả hằng tháng sẽ phải chịu lãi suất 1~2%/năm cho tổng số tiền sau khi trừ đi tiền thuê nhà và tiền đặt cọc. Dù sao đi nữa thì đây cũng là số tiền rất rẻ. Thời gian thuê nhà là 2 năm và có thể ở tới đa đến 20 năm.

Số tiền thuê nhà hằng tháng và tiền đặt cọc thuê nhà mua được chia và định giá trong phạm vi 30% của toàn bộ giá tiền thuê theo thị trường và thời gian thuê cũng giống với thời gian thuê nhà. Đối tượng hỗ trợ nhà ở, loại 1 (diện tích chuyên dụng dưới 50m²), loại 2(diện tích chuyên dịch trên 50m² ~ dưới 85m²)

Nếu đến trung tâm hỗ trợ phúc lợi hành chính hoặc trung tâm hỗ trợ người dân thì có thể đăng ký thuê nhà dài hạn và mua nhà cho thuê, không được đăng ký trùng lặp. Nếu có gia đình đa văn hóa nào có nguyện vọng đăng ký thì cũng đừng tuyệt vọng nếu địa phương mình sinh sống đã hết thời hạn đăng ký. Vì trong vòng 6 tháng hoặc 1 năm sẽ lại có thông báo đăng ký trở lại

Ищем хобби с помощью мульти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코로나 시대,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해 색다른 취미를 찾다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за окном то не выносимо жарко, то нескончаемо льют дожди и времяпровождение на свежем воздухе сводится всё к нулю. В такие моменты самое время искать новое хобби. И мне кажется я его нашла благодаря центру дл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в городе Анян.

Одним утром я получила рассылку от нашего центра, что в честь дня семейной любви можно подать заявку на создание бомбочки для ванны. Я очень люблю создавать различные вещи своими руками и давно хотела попробовать сделать что-нибудь для ванны. И тут такая возможность! Конечно, я сразу же подала заявку. Но так как желающих было очень много нам пришлось ждать.

И вот нашу заявку приняли. Придя в центр, мы получили набор для изготовления бомбочки для ванны. Это был достаточно увесистый пакет с множеством различных порошков и жидкостей: бикарбонат, лимонная кисл

ота, крахмал, органическая сера, глицерин, масло лаванды и формочки для бомбочки.

В целях безопасности вооружившись масками и перчатками, мы начали смешивать все ингредиенты и получать массу похожую на мокрый песок. Затем, спрессовав массу в формы, мы оставили застывать полученные шары на сутки.

Я волновалась, что в результате бомбочки получатся очень хрупкими и будут рассыпаться даже при легком прикосновении. Но все опасения были зря. Утром бомбочки хорошо подсохли и были ничуть не хуже купленных в магазине. Предоставленного материала было более чем достаточно, поэтому у нас получилось 7 красивых бомбочек. Упаковав в оберточную бумагу, которую мы получили в центре, бомбочки стали выглядеть еще более презентабельно. Поэтому я решила, что подарю бомбочки, сделанные своими руками, своим друзьям.

Благодаря центру для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семей я уже попробовала множество видов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пример, флористика, косметика своими руками, маникюр, готовка и др. Возможно, с помощью этих курсов, некоторые смогут найти себе новое хобби или же кто-то найдет дело, которым сможет зарабатывать. Поэтому я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а нашему центру для помощи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м семьям, которые предоставляют бесплатную возможность попробовать себя во многих сферах деятельности.

최근 바깥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무더거나 비가 많이 내려서 시원한 공기를 마실 기회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런 시기에는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안양건가다가)에서 색다른 취미를 찾았습니다.

어느 날 안양건가다가에서 ‘가족 사랑의 날 기념 바스피즈(천연입욕제)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을 신청받는다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 기자는 직접 손으로 다양한 것을 만들기 좋아해서 오래 전부터 목욕할 때 쓸 만한 걸 만들고 싶었습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네요. 저는 바로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드디어 신청서가 접수되었고 센터를

방문해서 바스피즈 만들기 재료를 받았습니다. 중탄산염, 구연산, 전분, 유기 유황, 글리세린, 라벤더 오일 및 폭탄모양 틀과 같은 다양한 분말 및 액체가 들어 있는 꽤 무거운 패키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안전을 위해 마스크와 장갑을 끼고 설명서에 따라 모든 재료를 혼합하고 짚은 모래와 비슷한 덩어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덩어리를 틀에 눌러서 담은 후 만들어진 공 모양을 하루 동안 굳도록 보관했습니다.

바스피즈는 매우 깨지기 쉽고 가벼운 터치로도 부서질 것 같아서 걱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괜한 걱정이었습니. 아침에 바스피즈는 굳어서 상점에서 파는 것처럼 예쁘게 보였습니다. 제공된 재료가 충분해서 7개의 예쁜 바스피즈를 만들었습니다. 센터에서 받은 포장지로 포장하고 나니 바스피즈가 더 보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바스피즈를 선물하려고 합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덕분에 이전에 이미 플로리스트, 수제 화장품, 네일아트, 요리 등과 같은 많은 체험을 해봤습니. 아마도 이러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서 누군가는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창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얻을 수 있을 것 입니. 다양한 분야에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문화가정을 돕는 안양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감사 합니다.

율리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规划 3] 居住环境不好的多文化家庭, 关注政府的居住福利政策

中央政府和京畿道为了低收入阶层的居住稳定, 在韩国土地住宅公司 (LH) 和京畿道城市公司实行的现有住宅租赁及购买租赁住宅入住者招募方法是在居民登记上的地址所在地行政福利中心和居民支援中心申请即可。

招募时间可能因本人居住的城市而有所不同。因此, 请与韩国土地住宅公社 (LH) 等进行咨询。

租赁住宅支援事业是韩国土地住宅公司和京畿城市公司以低收入阶层为对象, 把租赁住宅供应量支援给具备资格标准的优先对象的事业。

在定期招募期间, 将提供“现有住宅全租租赁”和“买入租赁事业”等2种类型, 根据供应机构的不同, 供应量也会有所差异。可以申请入住上述两个

机构提供住宅的第一顺位对象是拥有永久租赁住宅资产标准的总资产金额2亿韩元、汽车金额2468万韩元以下的人。具体来看, 领取生活费及医疗费补助金者、受保护的单亲家庭、领取基础生活费用者或次上位阶层中收入对比租金比率在30%以上或未达到最低居住水平的急需居住支援家庭、上一年度城镇职工家庭成员月平均收入在70%以下的残疾登记者。可申请现有住宅全租租赁的第二顺位对象是上一年度城镇职工家庭中每户月均收入在50%以下的人, 满足永久租赁住宅资产标准, 上一年度城镇职工每户月均收入在100%以下的残疾人登记者。其他排名对象包括报到处通报名单的国家有功者。

可申请购买租赁住房的第二顺序为对象

是上一年度城镇职工家庭月均收入低于50%的人, 符合永久租赁住房资产标准, 上一年度城镇职工家庭月均收入低于100%的残疾人登记者。但是, 非住宅居住者、家庭暴力受害者、需要紧急居住支援的人、与未满18岁的儿童一起居住, 未达到最低居住标准的人等可以优先入住。支援对象住宅也因类型不同而有所差异。全租租赁住房是以使用面积为85平方米, 为国民住宅规模以下的全租或担保月租住宅。入住者在支援限额为9千万韩元范围内, 要负担全租保证金的2~5%。所要负担的月租金为年租金减去租赁保证金后的剩余金额的1%至2%的利息。不管怎样, 这个价格很便宜。租期为两年, 最多可居住20年。

购入租赁住宅的租赁保证金和月租

金是在一般城市全税价格的30%范围内分别确定的, 租赁期限与全税租赁相同。支援对象为1型(使用面积50平方米以下), 2型(使用面积50平方米以上~85平方米以下)。受理租赁住宅和购买租赁住宅, 可到地址所在地的行政福利中心和居民支持中心申请, 不得重复申请。想申请该住宅的多文化家庭也没必要因在自己的居住地区已截止而感到失望。六个月至一年内会发布再次招募的公告。关于招募的其他详细内容可通过LH订购中心网站 (<http://apply.lh.or.kr>) 和LH京畿地区本部 (1670-2592)、京畿城市公司网站, 京畿城市公司呼叫中心 (1588-0466) 和京畿城市公司购买租赁住宅供应中心 (031-214-8463) 进行咨询<한글 기사 34면>

이중언어로 다문화가정 자녀 역량 강화하고 글로벌 인재로 키워요~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아동 이중언어교육 지원 사업’ 진행



교육 과정	개강일시	수업일시	강사	비고
중국어	2020.7.8.(수) 16:00	매주 수요일 16:00~18:00	웨이홍메이	코로나19 현황에 따 라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음.
일본어(초급)	2020.7.9.(목) 16:00	매주 목요일 16:00~18:00	쿠마가이 토모미	
일본어(중급)	2020.7.11.(토) 10:00	매주 토요일 10:00~12:00	쿠마가이 토모미	
중국어 (저학년)	2020.7.11.(토) 10:00	매주 토요일 10:00~12:00	웨이홍메이	
중국어 (고학년)	2020.7.11.(토) 13:00	매주 토요일 13:00~15:00	웨이홍메이	
베트남어	2020.7.11.(토) 10:00	매주 토요일 10:00~12:00	윤아린	

추가할 계획이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은 부모들이 다양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에 센터 측은 지난해 부모들의 요구도를 반영해 병점 일본반과 향남 중국어반은 레벨을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다문화가정 부모들의 사업 만족도는 4.6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올해도 지난해의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내실 있고 치밀한 계획 하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은 이중언어 강사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과 기회를 만들어 다문화가족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있다”며 “다문화가정 자녀 역량 강화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현주)는 특화사업으로 ‘다문화가정 아동 이중언어 교육 지원 사업’을 2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

이 사업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자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이중언어

교육을 통해 부모의 모국어로 소통이 가능하도록 교육함으로써 부모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향상을 도모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중 초등학생 48명을 대상으로 하는 이 프로그램은 1개반 8명으로 6개반을 학년별, 그리고 수준별로 편성했다.

이중언어 강사는 한국에 거주한지 2년 이상 된 결혼이주여성 중에서도 한국어

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대졸 이상 학력인자를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서면심사 및 면접을 거쳐 선발했다.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교육 기간 중 중도 탈락자 발생 예방을 위해 교육 전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여 사업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했으며 올해는 지속적으로 교육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발표 등 참여 프로그램을

대응지침 제9판 부록5 '유증상자 10대 수칙'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면, 10가지 행동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코로나19 주요 증상**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손실 또는 폐렴 등

- 1 외출, 등교,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쉬기
- 2 의료기관 진료에 있다면 사전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주기
- 3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지는지 관찰하기
- 4 발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 1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기
 - 2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받기
 *응급상황으로 119 구급차 이용 시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다고 알려주세요.
- 5 의료기관 방문 시 가급적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기
- 6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30초 이상 꼼꼼하게 자주 씻기
- 7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기
- 8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가족 또는 함께 거주하는 분과 거리두기(2m)하기
- 9 개인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은 따로 사용하기
- 10 자주 접촉하는 표면을 매일 청소, 소독하기

“코로나19와의 장기전, 흔들림 없이 함께 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2020.07.01.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 인종차별 걱정 없이 행복을 꿈꾸고 있나”

Chúng ta có nên phân biệt màu da hay kì thị những người ngoại quốc, gia đình đa văn ho



Hiện nay vấn đề phân biệt chủng tộc hay kì thị người ngoại quốc hoặc kì thị gia đình đa văn hoá đã không còn là vấn đề mới mẻ nhưng vẫn khiến nhiều sự tranh luận, sự bất bình và dư luận phải lên tiếng.

Đỉnh điểm nhất là cái chết của George Floyd - một người Mỹ gốc Phi vào ngày 25/5/2020 đã khiến cho các cuộc biểu tình tại Mỹ nổ ra và tạo nên một cuộc bạo loạn khủng khiếp khiến nhiều người mất mạng và bị thương bao gồm cả trẻ nhỏ. Đó là nước Mỹ nói riêng, còn chúng ta những người đang sinh sống và học tập tại nước ngoài liệu có đang sống một cuộc sống bình đẳng mà chúng ta vẫn thường mơ ước?

Theo thống kê của cục xuất nhập cảnh, cho đến ngày 30/4/2020 số lượng người Việt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là 217.821 người. Trong đó phần lớn là số người kết hôn, sau đó là người lao động và du học sinh.

Hàng năm có hàng ngàn người Việt

nhập cảnh vào Hàn Quốc, không chỉ vậy xã hội đa văn hóa đa đã chiếm phần lớn trên thế giới. Sinh sống và học tập, làm việc ở nước ngoài là một việc không dễ dàng. Chúng ta có thể gặp khó khăn bất kì lúc nào như bị kì thị, bị lừa đảo, bị bóc lột... Vậy những lúc đó các bạn sẽ giải quyết ra sao?

Ở bất kì nơi nào, ở bất kì đất nước nào cũng đều có người tốt và kẻ xấu. Khi chúng ta quyết định đến một nơi khác để sinh sống chúng ta đều phải chấp nhận mình có thể gặp rủi ro bất cứ lúc nào. Theo tôi, chúng ta nên tìm hiểu kĩ về nơi mà mình sẽ đến. Không chỉ là văn hoá, phong tục tập quán mà cái quan trọng là ngôn ngữ của họ để chúng ta không cảm thấy bị lạc lõng ở đó. Nếu trao đổi cho mình một vốn kiến thức nào đó thì đến một lúc nào đó nó sẽ giúp các bạn trong cuộc sống sau này. Khi chúng ta đã tìm hiểu về đất nước bạn vậy dần dần các bạn hãy giới thiệu về đất nước của mình để chúng ta đều có thể hiểu rõ về nhau hơn. Điều quan trọng nhất là khi gặp khó khăn chúng ta hãy tìm đến những người xung quanh mình để nhận được sự trợ giúp và khi thấy những người gặp phải khó khăn chúng ta hãy cùng dang tay giúp đỡ họ.

Chúng ta không cùng một giống nòi nhưng đều sống trên cùng một trái đất. Tiếng nói, màu da, văn hóa là đều khác nhau để tạo nên sự khác biệt giữa chúng ta chứ không phải là điểm sai để tạo thành sự kì thị.

Nếu gặp khó khăn và cần sự giúp đỡ thì các bạn đừng chần chừ mà hãy liên lạc ngay đến các trung tâm đa văn hoá hoặc trung tâm phúc lợi dành cho người ngoại quốc ở nơi mình sinh sống hoặc gọi điện đến số điện thoại dưới đây nhé.

요즘은 인종 차별이나 외국인과 다문화가정을 차별 문제는 더 이상 낯선 일이 아니지만, 점점 논쟁이 되가고 하고 불만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 발생한 자극적인 사건으로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플로이드의 2020년 5월 25일 사망 사건이 있다. 그의 죽음은 미국에서 엄청난 잔인한 시위를 일으켰다. 사망자 중에는 어린이도 있다. 그 사건은 미국에서만 일어난 일이고 한국에서 살며 공부하는 우리들은 이 곳에서 공평한 삶을 꿈꾸며 살고 있나 의문이다.

출입국 통계에 의하면, 2020년 04월 30일 기준으로 한국에 입국한 베트남 사람은 217,821명이다. 그 중의 대부분은 한국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노동자와 유학생이 있다.

매년 수천명의 베트남인이 한국에 입

국한다. 이주민이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현상은 세계적인 현상이다. 외국에서 일하면서 살거나 공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언제든지 어려운 상황은 찾아올 수 있다. 예를 들어 차별, 사기를 당하거나 착취를 당할 때도 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어디에든, 어느 나라에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는 법이다. 이주를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한다. 갈 곳에 대해 잘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곳의 문화, 풍습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곳의 언어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그 곳에서 살아도 외로움을 덜 수 있고 피해 받는 일도 줄일 수 있다. 상대방의 나라에 대해 알아보면서 서로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베트남도 소개해 주는 게 좋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가까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받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다.

우리는 같은 민족이 아니지만 같은 지구에서 살고 있다. 언어, 피부색, 문화가 다 다른데 그 것은 다른 점이지 차별이 되는 일이 아니다. 어려운 상황을 겪을 때, 도움이 필요하면 주저하지 말고 해당 지역의 외국인을 위한 이주민지원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외국인복지센터에 연락해 도움을 얻어야 한다.

윤혜영 경기외국인SNS기자단

Phải đặt lịch hẹn trước khi tới cục xuất nhập cảnh làm việc về vấn đề quốc tịch

Do muốn làm giảm đi những khó khăn khi phải chờ đợi và do công tác phòng dịch bệnh corona nên bắt đầu từ ngày 15.7.2020 sẽ thực hiện việc nhận đặt lịch hẹn trước đối với những việc liên quan tới quốc tịch. Có nghĩa là mọi người sẽ phải đặt lịch ngày giờ trên trang www.hikorea.go.kr trước khi tới làm việc tại cục xuất nhập cảnh. Nếu không đặt lịch hẹn trước khi tới làm việc bạn có thể sẽ không được giải quyết công việc của mình.

Và việc này sẽ được thực hiện với tất cả 18 cục xuất nhập cảnh trên cả nước như soul, nambu, busan, inchon, suwon, tegu, techon, sogcho, donghae, jeonju, chuncheon, cheongju, cheonwon,

yeosu, jeju, yangju, olsan, gwangju.

Bạn cần đặt lịch hẹn trước khi tới giải quyết các công việc liên quan tới nhập quốc tịch, quyết định về quốc tịch hoặc phục hồi quốc tịch. Và các công việc liên quan tới báo cáo mất quốc tịch, báo cáo chọn quốc tịch....hoặc là xin giấy từ bỏ quốc tịch, giấy chứng nhận cam kết không sử dụng quốc tịch.

Nhưng đối với những việc đơn giản như tư vấn hoặc những việc giải quyết trong vòng không quá 10 phút thì bạn có thể tới trực tiếp cục xuất nhập cảnh mà không cần đặt lịch hẹn trước.

Bạn có thể đặt lịch hẹn bằng cách vào trang www.hikorea.go.kr và từ ngày 1.7 bạn có thể vào trang hikorea để đặt

lịch và từ 15. 7 sẽ bắt đầu giải quyết các công việc liên quan tới quốc tịch qua lịch hẹn trước.

Qua đây mong mọi người có thể sẽ bớt phần nào khó khăn và bất tiện khi tới giải quyết công việc tại cục xuất nhập cảnh.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출입국 업무를 보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0년 7월 15일부터 www.hikorea.com에서 체류 업무 외에도 국적 관련 업무의 방문예약시스템이 가동되었습니다. 국적 관련 업무를 보기 전에 미리 방문예약을 하지 않으면 업무 처리가 안 되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국적 관련 업무 방문예약시스템은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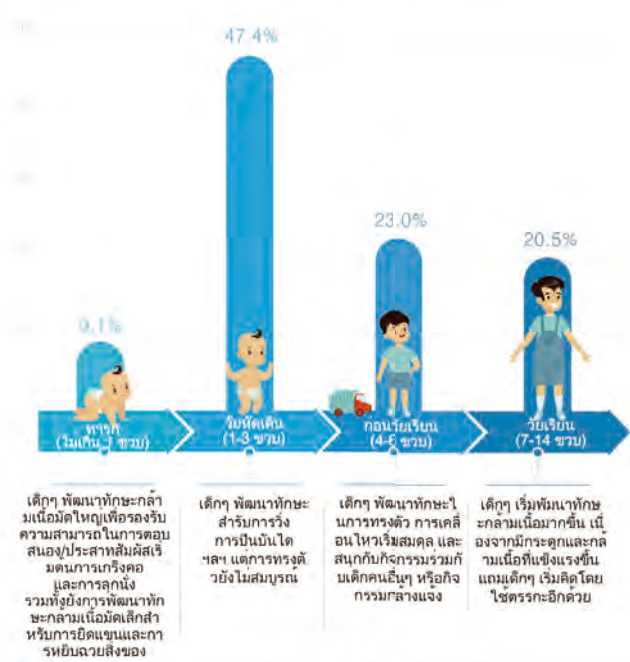
국 서울특별시, 남부, 부산, 인천, 수원, 대구, 대전, 속초, 동해, 전주, 춘천 등에 총 18개의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적 관련 업무는 귀화 신청, 국적 회복 신청 등이 있으며 그 외에 국적 상실 신고, 국적 선택 신고, 국적 포기 신고 등의 다양한 업무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간단한 업무 즉 업무 보는 시간이 10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리 방문 예약하지 않고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하면 됩니다. 국적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싶으면 www.hikorea.com 접속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방문 예약이 가능하고 7월 15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를 통해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 시 어느 정도 어려움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민소아 경기외국인SNS기자단

01

อุบัติเหตุแบ่งตามพัฒนาการของเด็กในระยยะต่าง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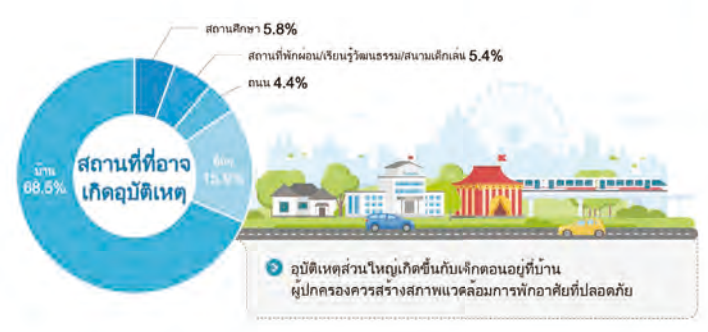
อุบัติเหตุแบ่งตามพัฒนาการของเด็กในระยยะต่างๆ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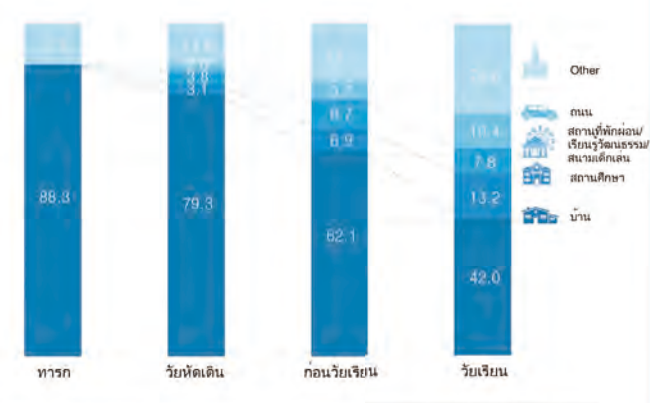
3 เด็กฯ มีการเจออุบัติเหตุหลักๆ ประเภทต่างๆ ได้ตามพัฒนาการแต่ละขั้นของเด็ก คุณควรทำความเข้าใจคุณลักษณะของพัฒนาการแต่ละขั้นและเตรียมมาตรการที่เหมาะสมเอาไว้ป้องกัน



สถานที่ที่อาจเกิดอุบัติเหตุแบ่งตามพัฒนาการของเด็กวัยต่างๆ (2017)



3 อุบัติเหตุส่วนใหญ่เกิดขึ้นกับเด็กตอนอยู่ที่บ้าน ผู้ปกครองควรสร้างสภาพแวดล้อมการพักอาศัยที่ปลอดภัย



3 เมื่อเด็กเริ่มโต อัตราส่วนการเกิดอุบัติเหตุที่บ้านจะลดลง แต่อัตราส่วนการเกิดอุบัติเหตุที่สถานศึกษา/สถานที่ที่พี่เพื่อน และถนนจะเพิ่มขึ้น ผู้ปกครองและเด็กฯ ต้องเรียนรู้วิธีการอุบัติเหตุตามสถานที่เหล่านี้

02

อุบัติเหตุหลักที่อาจเกิดขึ้นกับเด็กฯ

ประเภทที่ 1: อุบัติเหตุที่บ้าน

อุบัติเหตุตกเตียงหรือขาดอากาศหายใจ

การตก
ในช่วงที่เป็นทารก เด็กมักจะตกจากเตียงหรือโซฟาจนทำให้กระดูกซี่โครงหรือมีแผลฟกช้ำได้

- อย่าปล่อยให้เด็กไต่ตามลำพังโดยที่ไม่มีคนคอยดูแล
- ติดตั้งราวกันขอบฯ เตียง
- ติดตั้งหมอนที่พื้นเพื่อลดแรงกระแทกจากอุบัติเหตุการตก

การขาดอากาศหายใจ

การเสียชีวิต* ที่พบมากที่สุดของเด็กทารกก็คือการขาดอากาศหายใจในช่วงที่อุ้มคนเดียว

- วางเด็กลงนอนโดยหงายหน้าขึ้นในช่วงระหว่างขวบแรก
- ใช้เตียงที่เหมาะสมกับวัยของเด็ก

อุบัติเหตุการชนกับเฟอร์นิเจอร์และเฟอร์นิเจอร์ล้ม

อาการบาดเจ็บจากการชนเฟอร์นิเจอร์
เด็กที่กำลังหันเดินมีความเสี่ยงจากการบาดเจ็บเพราะการชนกับเฟอร์นิเจอร์ได้

- ใช้เฟอร์นิเจอร์ที่มีขอบกลมมน
- ติดตั้งแผ่นรองที่กันลิ้นในห้องต่างๆ และห้องน้ำ
- ติดตั้งขอบกันกระแทกบริเวณมุมของเฟอร์นิเจอร์

อุบัติเหตุจากเฟอร์นิเจอร์ล้ม

หากเฟอร์นิเจอร์หรือทีวีล้มอาจส่งผลทำให้เกิดบาดเจ็บที่ศีรษะหรือเสียชีวิตได้

- ล็อกลิ้นชักเพื่อที่เด็กจะไม่สามารถเปิดลิ้นชักได้
- เก็บสิ่งของหนักๆ เอาไว้ในลิ้นชักชั้นล่างๆ
- ตรึงเฟอร์นิเจอร์หรือทีวีเอาไว้กับกำแพงหากจำเป็น

* การเสียชีวิตในกลุ่มเด็กตามรายงานอุบัติเหตุของสำนักงานสถิติเกาหลี (3 พฤษภาคม 2018)



การเสียชีวิตเพราะจมน้ำ

การจมน้ำคือการเสียชีวิตอันดับสามในกลุ่มเด็ก รองจากอุบัติเหตุทางจราจรและการขาดอากาศหายใจ การเสียชีวิตเพราะจมน้ำของเด็กอายุต่ำกว่าห้าขวบ* เกิดขึ้นตอนอาบน้ำหรือเล่นน้ำเป็นส่วนใหญ่

- หลังจากอาบน้ำเสร็จแล้ว ถอดน้ำทิ้งแล้วนำแผ่นรองพื้นห้องน้ำไปเก็บ
- อย่าปล่อยให้เด็กอยู่ตามลำพังในห้องน้ำ

อุบัติเหตุจากการกลืน

หากเด็กหลอกลิ้นกระตุ้ม เหมียงของเล่นชิ้นเล็กๆ ฟงซึกฟอก หรือยาเข้าไป เด็กฯ อาจเสียชีวิตเพราะขาดอากาศหายใจหรือรับสารพิษเข้าไปในร่างกายได้

- อย่าปล่อยให้สิ่งของชิ้นเล็กๆ เอาไว้รอบตัวเด็ก
- ก่อนซื้อของเล่น โปรดตรวจสอบเครื่องหมาย KC Marks (ใบรับรองคุณภาพเกาหลี) และขงอายุของเด็กที่ระบุเอาไว้ในฉลากของเล่น
- เก็บยาและสารเคมีให้พ้นมือเด็ก

การตกจากกระเบื้อง

การตกจากอาคาร (ที่พักอาศัยและสำนักงาน) คิดเป็นสัดส่วน 56.4% ของอัตราการเสียชีวิตจากการตกของเด็ก* ในช่วงระหว่างปี 2014-2016

- ห้ามนำสิ่งของไปวางจนทำให้เด็กสามารถปีนขึ้น ไปบนระเบียงได้
- อย่าปล่อยให้เด็กใช้ระเบียงเป็นที่เล่น

การเสียชีวิตในกลุ่มเด็กตามรายงานอุบัติเหตุของสำนักงานสถิติเกาหลี (3 พฤษภาคม 2018)

외국인도 시민안전보험 자동 가입!

화성시, 자연재해 상해 의료비 등 지원



화성시가 주로 재해사고에 보장하던 시민안전보험을 올해 갱신부터는 ‘상해 의료비’도 지원하기로 했다.

시민안전보험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시민과 등록 외국인, 거주 등록 동포를 포함 누구나 무료로 지원되며, 별도의 가입 절차가 없고 개인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2021년 5월 7일까지이며, 이후 1년 단위로 가입이 갱신된다.

보장항목은 ▲상해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일사병·열사병 포함 자연재해 ▲대중교통이용중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만12세 이하) ▲농기계 상해 후유장애 ▲가스사고 사망 및 후유장애 ▲침몰사고 사망 등이다.

단,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한

다. 특히 올해는 관내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는 내용이 추가돼 보다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상해의료비 지원은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를 제외한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대부분의 상해가 포함됐으며, 응급치료비, 수술, X선 검사, 치과치료, 구급차, 입원, 장례비 등이 진단일 수에 상관없이 자기부담금(3만원)을 제외하고 지원된다.

보장한도는 사망 시 최대 2천만 원까지이며, 상해 및 후유장애는 차등 지급된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시청 홈페이지 시정알림방에서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서식을 다운받은 후 화성시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로 팩스(0504-889-0739) 또는 이메일(safety4912@daum.net) 접수하면 된다.

공경진 안전정책과장은 “시민안전보험에 상해의료비가 추가되면서 취약계층이나 어르신, 유병력자 등 개인 실손 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화성시, 무인민원발급기에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이 무료

징수 조례 개정...15일부터 무료 서비스



고 민원처리 효율을 높이고자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하고 서비스에 나섰다.

현재 관내에는 총 77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운영 중이며, 시청, 동부·동탄출장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홍사환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인민원 발급기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비롯해 가족관계증명서, 국세증명서, 건축물대장 등 86종의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다.

이지은 기자

화성시가 15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화성시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높이

화성시, 희망일자리 참여자 모집

22일까지 공공일자리 4천500명 모집

화성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실업 등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위해 총 4천500개의 공공일자리를 마련했다.

참여대상은 사업공고일 기준 7월 9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화성시민으로 취약계층, 휴업자, 무급휴직자 등 생계지원이 필요한 주민이면 된다.

단,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공무원 가족 등은 제외된다.

실직자, 폐업 자영업자, 특수고용·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 등 취업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은 우선 선발될 예정이다.

모집 분야는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방역 지원 소상공인 회복지원 영농일손 등 농·어촌 지원 마을정비 등 공공휴식공간 개선 문화·예술 환경개선 긴급 공공업무지원 산업 밀집지역 환경정비 재해예방 정책조사 및 모니터

링 등 청년지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등 특성화 사업 총 10개 분야이다.

근무기간 및 시간은 사업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8월부터 11월까지 사업기간 중 4개월 이내로 1일 3시간~5시간, 주5일 근무로 진행된다.

모든 참여자는 4대 보험이 의무가입되며 최저시급이 적용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22일까지이며 이메일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합격자는 31일 개별 통보된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희망일자리사업이 침체된 지역경제와 고용환경을 되살리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며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 참여자 4500명 모집

참여대상
화성시민 누구나
※ 단,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우선 선발

접수기간 2020. 7. 9. (목) ~ 2020. 7. 22. (수) 예정	참여기간 2020. 8. ~ 2020. 11. 예정	신청장소 오프라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 이메일신청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	---	---

※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개 유형 약 4,500명 모집 예정

1유형: 생활방역 지원 2유형: 골목상권 회복 지원 3유형: 농·어촌 경제활동 지원 4유형: 공공휴식공간 개선 5유형: 문화·예술 환경 개선
6유형: 공공업무 긴급 지원 7유형: 산업지역 환경 정비 8유형: 재해예방 9유형: 청년지원 10유형: 지자체 특성화 사업 등

문의 : 화성시청 일자리정책과(031-5189-3078)

다문화가족과 강사 모두 수업하기 적합한 환경 만들기 '힘써요'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한국어교육 8개 지역 강의장 만들었으나 우선 온라인 개강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이현주)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온라인 한국어교육 대상자를 모집하고 강의를 시작했다. 추가 수강생도 계속 모집한다.

7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한국어교육은 화성시 관내 결혼이민자가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학습하여 한국의 일상생활과 사회에 적응하고,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당초 3월부터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개강이 7월로 미

루어져 12월 넷째 주까지 한국어교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화성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화성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8개 강의장 14반을 개설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화성시 관내 지정 강의장은 병점1동, 병점2동, 동탄도서관, 유엔아이센터, 향남 화성문화원, 봉담도서관, 발안만세시장, 남양보훈회관 등 8개 지역에 이른다. 다른 지역의 강의장 보다 훨씬 많은 숫자다.

이후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대상으로 사전평가를 시행하여 수업 레벨에 따라 반을 배정(올해는 작년 수료 기준으로 반배정)했다. 또 전년도 강사평가를 통하여 강사레벨 및 강의장을 배정하는 등 강사와 결혼이민자가 수업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현재 14개 반을 운영 중이며 이후 코로나19가 종식되면 8개 지역 강의장에서 집합 수업을 할 예정이다.

다만 토픽반은 화성 지역의 넓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100% 온라인으로 운영한다.

앞으로 80% 이상 출석과 성취도 평가

를 통해 총점 60점을 넘는 수료자는 반별 수료식을 통해 수료증을 발급하여 꾸준한 수업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집합을 교육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온라인 한국어교육을 개강하게 됐다”며 “한국어교육을 통해 한국사회의 부적응과 갈등 상황을 해결하여 결혼생활 안정성을 도모하고 한국문화이해 및 관습차이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성 기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시적 온라인 한국어교육 대상자모집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서비스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교육 공백 최소화를 위해 특수목적 한국어 온라인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개설과정(코로나19 종식되면 아래 강의장에서 수업예정)

교육장소	요일/시간	단계	교육장소	요일/시간	단계
북부	병점1동 주민자치센터 3층 교육실	매주 화목 10:00-12:00	향남 화성문화원 2층 강의장	매주 수금 12:00-14:00	초급2
	병점2동 주민자치센터 2층 교육실	매주 수금 13:00-15:00		매주 수금 14:00-16:00	초급1
	유엔아이센터 4층 6강의실	매주 화목 13:00-15:00	발안만세시장 고객지원센터 3층 강의실 / 4층강의실	매주 화목 10:00-12:00	중급1
		매주 수금 12:30-15:30		매주 화목 12:30-14:30	중급2
	동탄도서관 3층 문화교실2	매주 목 13:00-16:00	봉담도서관 3층 문화교실2	매주 화목 10:00-12:00	초급1
		매주 수금 10:00-12:00		매주 화목 9:30-11:30	초급1
	매주 화목 13:00-15:00	초급2	서부 보훈회관(남양) 1층 세미나실	매주 화목 11:30-13:30	초급2

★ 위 시간표 강의장소 및 시간은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해당 강의장에서 집합수업 예정. 강의장은 센터 사정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음 / 모둠반은 5명 미만 시 폐강

- 토픽반의 경우 대면 수업이 없으며 시험대비반으로 11월에 있는 한국어 능력시험(토픽)에 응시하는 조건으로 참여가능 함. (응시료 개인부담)

- 수업일 : 7월 1일 ~ 12월 27일 (50회기)
- 준비물 : 노트북 또는 스마트폰, 이어폰, 필기도구, 와이파이, 교재(개별구입), 등
- 교재 :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 초급1 /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정확한 한국어 초급1,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 초급2 /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정확한 한국어 초급2,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 중급1 /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정확한 한국어 중급1,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즐거운 한국어 중급2 / 다문화가정과 함께하는 정확한 한국어 중급2
- 저자 : 국립국어원 / 출판사 : 하우
- 접수방법 : 전화접수 031-267-8770(교육문화팀)
- 주의사항 : 정해진 시간에 수업에 들어와야 출석 인정 /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집합 교육으로 변경 될 수 있음 / 공공장소 수강 금지 등

※ 수업을 위해서는 개인별 이메일 계정이 있어야 하며 자세한 일정은 접수자에 한 해 추후공지예정

'취약계층에 식품구입비 지원한다'

화성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 선정

화성시가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농림축산식품부의 '2020년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에 선정돼 국비 4억 9천4백만 원을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사진은 화성시 로컬푸드의 현황을 보여주는 화성시청 자료사진)

이번 사업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소득 불평등 등으로 인한 계층 간 영양 불균형을 줄이고 지역 내 우수 농가를 지원하고자 도입됐다. 저소득 다문화가정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약 3500여 가구로 오는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1인 가구 4만원, 2인 가구 5만7000원, 3인 가구 6만9000원, 4인 이상 가구는 8만원에 해당하는 바우처가 지원된다. 바우처는 로컬

푸드 직매장과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채소나 과일, 우유 등 현물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취약계층이 고품질의 신선한 로컬푸드를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는 농업·농촌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정책관 등 전문인력을 확충했으며, 로컬푸드 소비 활성화를 위한 화성푸드인증제, 유통정보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또한 먹거리안전망 구축을 위해 로컬푸드 자급률을 향상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소비 기반을 확대하는 화성푸드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